

근대제주 사진엽서 자료 연구

— 재일제주인 고성일(高成一)氏 사진엽서 컬렉션을 중심으로 —

고 영 자 · 김 은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이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에 의하여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발 간 사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은 물론 조선에서도 사진엽서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조선의 문물과 자연을 주제로 대량 발행된 사진엽서들이 식민지 근대성을 드러내는 한편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 제주도를 주제로 한 사진엽서들도 발행되어 유통되었습니다. 근대 제주의 이미지를 기록한 이 사진엽서들은 제주의 풍속, 건축, 생활상, 풍광 등에 대한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근대 제주를 담은 사진엽서들은 도내·외에 산재해 있으나 지금까지 그 실태 파악은 물론 기초적인 조사 및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 인천, 부산, 천안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근대를 주제로 한 사진엽서에 주목하여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과 더불어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에 발맞추어 이번 연구는 제주 사진엽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재일교포 고성일 선생님이 수집 정리한 사진엽서 컬렉션 중 근대 제주 사진엽서에 대한 분류, 내용 분석, 발행원 추적, 도입 과정 및 보급 현황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엽서의 제국주의 선전 도구로서의 기능과 지역의 역사 및 생활문화 자료로서 활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근대 제주 사진엽서들은 기초적인 학술연구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미지 자료의 문화자원화 등 활용 방안이 매우 다양합니다. 때문에 이번 연구가 향후 근대 제주 이미지를 연구하는 데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제주의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제주기록문화연구소 하간 고영자 소장님을
비롯하여 공동연구자인 김은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물심양면 도움을 아끼지 않은 제주학연구센터 박찬식
센터장과 센터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11월

제 주 연 구 원
원장 김 동 전

연구요약

I. 연구개요

○ 연구배경

러일전쟁(1904년~1905년)을 거치면서, 일본은 물론 조선에서 사진엽서의 붐이 일어났다. 세계 최초의 근대 전쟁을 담은 장면은 일본·러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사진엽서 형태로 발매되었다. 같은 시기 조선에서는 대량의 사진엽서가 인쇄되어, 주로 일본인 상대로 판매되었다. 러일전쟁 직후 1905년 당시 조선주재일본인은 이미 4만 명, 1910년에는 17만 명에 달하고 있었다.

러일전쟁을 거쳐 일제강점기동안 식민지 조선을 주제로 대량 발행된 사진엽서들은 크게 보면 식민지 근대성을 과시하는 한편, 식민 통치의 수단으로 생산·발행되었다. 그럼에도 이들 근대조선을 담은 사진엽서는 우리의 사라진 풍속, 건축, 생활상, 풍광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자료적 가치는 부정할 수 없다.

○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구한말을 거쳐 일제강점기 동안 발행·유통된 제주도 사진엽서(繪葉書)에 주목, ‘근대제주’ 이미지 기록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재조명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제주를 담은 사진엽서의 경우는 도내·외 산재해 있으나 지금까지 실태파악은 물론 본격적인 기초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일본 및 한국 지방 정부 차원(서울, 인천, 부산, 천안 등)에서 근대 朝鮮을 주제로 한 사진엽서에 주목하여 다각적인 분석의 기

초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제주사회 역시 이 움직임에 발맞춰 이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 및 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연구내용

관련 분야 주요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차별성을 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할 것이다.

- ① 일본 제국주의 문화산업의 탄생 맥락에서 제주도 사진엽서 연구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
- ② <고성일 컬렉션> 중 근대제주 사진엽서의 분류, 내용분석, 발행원 추적 등을 통해 근대 제주의 사진엽서의 도입 과정 및 보급현황 등을 살펴볼 것이다.
- ③ 제주도 근대우편제도 탄생과 더불어 제주도 사진엽서 유통과 역할, 나아가 제주도 이미지 기록의 역사를 들여다볼 것이다.
- ④ 현재 일본 및 한국 지방 정부 차원(서울, 부산, 천안 등)에서 근대 朝鮮을 주제로 한 사진엽서 활용에 주목, 이를 근간으로 제주도 사진엽서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⑤ 궁극적으로 ‘근대제주’ 이미지 기록의 수집·관리·보존 및 연구 방법론 및 유물로서 이들 시각자료의 문화자원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II. 사진엽서의 탄생과 봄

- 근대일본 및 조선의 사진엽서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진의 발명과 발달, 인쇄기술·기업의 발달, 근대우편제도의 확립(일본-한국-제주도)의 역사를 살펴본다.
- 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사진엽서의 봄을 일본편과 조선편

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식민지 <조선>을 주제로 한 사진엽서의 대표적인 발행원 2곳, 즉 히노데상행(日之出商行)과 대정사진공예소(大正寫眞工芸所)를 소개할 것이다.
- 사진엽서 연구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사진엽서 발행 연도 추정 기준에 대해서 제시할 것이다.

III. 재일제주인 고성일氏 사진엽서 컬렉션

- 재일제주인 고성일氏 소개 및 고성일氏 관련 기사 소개.
- 고성일氏 사진엽서 수집 노트 및 고성일氏 소속 일본사진엽서회(日本繪葉書會) 소개
- 일본사진엽서회(日本繪葉書會)에서 발간한 고성일 저 『일제강점기 사진엽서로 보는 제주도』(고성일, 2016년) 표지 소개.
- <고성일 컬렉션> 제주도 사진엽서 총 73장을 목록화 하고 각각의 사진엽서에 대한 서지정보 카드를 작성.

IV. ‘근대제주’ 이미지 기록의 서막

- ‘근대제주’ 사회를 구성하는 공간과 인구 분포에 대해서 알아본다.
- ‘근대제주’를 방문한 일본인 시찰단 및 조사단 중 대표적인 인물들을 추려서 소개할 것이다.
- 제주도 사진엽서 발행원 6곳, 즉 1) 제주 반지점<伴支店>, 2) 서귀포 사이고상점<西郷商店>, 3) 제주 다구치상점(田口商店), 4) 제주

도청(濟州島廳), 5) 히노데상행(日之出商行), 6) 대정사진공예소(大正寫眞工芸所) 각각을 조사·연구하고, 각 발행원이 발행한 대표적인 사진엽서를 소개·분석할 것이다.

- 일본인 인류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제주도 현지조사와 통신문 발송 경위 등을 통해 당시 제주도 사진엽서 유통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다.

V. 근대 사진엽서 활용 방안 :국내외 사례

- 제주도의 근대 사진 활용 사례 조사·소개.
- 국내 근대 사진엽서 활용 사례(인천, 부산, 군산, 천안, 서울, 대구 등)를 조사·소개.
- 일본의 사진엽서 정보자료화를 사례를 ① 도서관 및 박물관(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사가 현립도서관, 가나자와시 도서관, 후쿠오카 현립도서관, 니이가타 현립역사박물관), ② 지방자치단체(히로시마 현 문서관, 요코하마 도시발전 기념관) 별로 나누어 조사·소개.
- 사진엽서의 지역학에의 공헌과 활용 차원에서, 사진엽서가 ① 전통건축물 복원자료 및 ②지역의 역사 및 생활문화자료로 널리 쓰일 가능성을 제시.

VI. 시사점 및 활용방안

일제강점기, 제주도를 포함 한반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발행된 사진엽서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내용적으로는 ①제국주의 선전도구로서 사진엽서 및 ②지역의 역사 및 생활문화자료로서 사진엽

서가 등장하였고, 문화적으로는 ③관광·문화상품으로서 사진엽서 및 ④개개인의 미적 취향(색채, 디자인, 구도, 상징)에 부응한 사진엽서가 발행되었으며, 한편으로는 ⑤통신매체(정보전달)로서 사진엽서가 등장하였다.

한 장의 사진엽서는 ①~⑤ 역할을 모두 충족한 것도 있고, ①~⑤ 중 부분적으로만 충족한 것들, 또는 한 항목에만 치우친 것들이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사진엽서에의 접근은 우선 그 기능과 활용 차원에서 보더라도, 향후 다양한 접근의 본격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근대제주 사진엽서’가 주는 시사점과 활용방안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근대제주’의 학술 연구 자료로서 연구서 발간
- 지역의 역사 및 생활문화자료로서 사진엽서 전시회 및 자료집 제작
- ‘근대제주’ 이미지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아카이브관 설립
- ‘근대제주’ 이미지 자료의 문화자원화(전시, 출판, 영화, 창작, 디자인 등)
- 제주도 시각자료 전문 사이트 구축(키워드 등을 통한 종합적 검색(이미지, 장소, 시간, 인물 등)).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4. 연구내용	5
II. 사진엽서의 탄생과 붐	7
1. 근대 일본 및 조선의 사진엽서 전사(前史)	7
2. 근대화의 아이콘 : 그림/사진엽서의 붐	16
3. <조선> 주제 사진엽서 발행원	25
4. 사진엽서 발행연도 추정 기준	30
III. 제일제 주인 고성일氏 사진엽서 컬렉션	34
1. 고성일氏 소개	34
2. 고성일氏 관련 기사	35
3. <고성일 컬렉션> 중 '근대제주' 사진엽서 내용	36
4. 고성일氏 사진엽서 수집 노트	37
5. <고성일 컬렉션> 제주도 사진엽서 서지정보	39
IV. '근대제주' 이미지 기록의 서막	104
1. '근대제주'의 구성원들	104
2. 일본인 시찰 및 조사단	107
3. 제주도 사진엽서 발행원	111
4. 제주도 사진엽서 유통과 역할	122

V. 근대 사진엽서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	132
1. 근대 사진엽서의 가치	132
2. 제주도의 근대 사진 활용	133
3. 국내 근대 사진엽서 활용 사례	134
4. 일본의 사진엽서 정보자료화 사례	140
5. 사진엽서와 지역학	143
VI. 결론(시사점 및 활용방안)	149
부록 고성일氏 제주도 사진엽서 컬렉션 목록	151
참고문헌	165
Abstract	168

<표 차례>

[표 1] 한국통감부→조선총독부 발행 관제사진엽서 목록 및 내용	22
[표 2] 1905년경 제주성내 일본인 수	105
[표 3] 1905년경 제주성내 일본인 직업인 수	105
[표 4] 제주도내 일본인 재류자수(1909~1911)	105
[표 5] 식민지기 제주도내 인구 추이	106
[표 6] 1936년 말 제주도내 시가지 및 주요 지역 인구	106
[표 7] 1936년 말 제주지역 직업별 세대수	106
[표 8] 1925년 기준 제주도내 직업별 호구표	107

<도판 차례>

[도판 1] 1913년 김규진의 천연당사진관 부설 고금서화관	9
[도판 2] 옛 우정총국 전경	13
[도판 3] ‘제주도 일본우편국수취소’ 간판	15
[도판 4] 1907년 8월 27일 발행 한국황제폐하 즉위 기념 관제사진엽서	21
[도판 5] 히노데상행 광고 <京城繁昌記, 博文館 1915>	27
[도판 6] 히노데상행 발행 사진엽서 로고 마크 일람	27
[도판 7] 대정사진공예소 발행 사진엽서 앞면 비둘기 로고.	29
[도판 8] 사진엽서 통신란 패션의 변천 - 고베(神戸)엽서박물관 자료	31
[도판 9] 郵便はか(が)き 표기 순서	31
[도판 10] 일본 우표 종류	32
[도판 11] 고성일 작성 사진엽서 컬렉션 주제와 분량을 메모한 수집노트	37
[도판 12] 『일제강점기 사진엽서로 보는 제주도』 (고성일, 2016년)	38
[도판 13] 고성일 작성 사진엽서 컬렉션 중 제주도 사진엽서 목록	38
[도판 14] 제주 반지점(伴支店) 광고	113

[도판 15]	1930년대 제주 반상점(伴商店) 광고	113
[도판 16]	서귀포 사이고상점(西郷商店) 광고	115
[도판 17]	제주 다구치상점(田口商店) 광고	116
[도판 18]	제주 다구치상점(田口商店) 발행 사진엽서	116
[도판 19]	濟州島廳 발행 사진엽서 7매 1조	118
[도판 20]	제주도청 발행 사진엽서	118
[도판 21]	(조선명소) 전라남도 제주도 제주성내 전경	119
[도판 22]	(조선풍속) 부인들의 빨래	120
[도판 22]	제주해녀 사진엽서	120
[도판 23]	조천리 체격 측정 남자 10명	124
[도판 24]	오조리 여자 10명	124
[도판 25]	관덕정 마당에서의 한 판 입춘굿 놀이	125
[도판 26]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조선사진엽서 DB 소개	138
[도판 27]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조선사진엽서 DB 일람	139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사진엽서는 19세기 서양에서 탄생한 산물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것은 바다를 건너 전세계를 향해 배달되며, 세계인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 진화와 발전 또한 눈부셨다. 당시 사진엽서는 오늘날로 치면 간단한 문자와 이미지를 주고받는 전자매체에 필적하는 획기적인 발명품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러일전쟁(1904년~1905년)을 거치면서 사진엽서의 붐이 일어났다. 세계 최초의 근대 전쟁을 담은 장면은 일본·러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사진엽서 형태로 발매되었다. 전장에 있는 병사에게는 위문용의 미인 사진엽서가 보내지기도 했다. 이 시대 사진은 흑백 인쇄였으나, 그 중 일부는 채색되기도 했고, 또는 석판이나 목판 제작을 통해 채색된 것들도 많았다.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개선기념의 관제사진엽서가 발행되어 전국적으로 사진엽서 붐이 본격화되었다. 사진엽서 클럽도 결성되어 엽서의 제작(디자인)·교환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사진엽서 제작·인쇄기업도 난립하여 독자적인 엽서 제작 경쟁을 할 정도였다. 이때 일본 미술(디자인) 역량이 발휘되면서 잠시나마 일본 미술(디자인) 전성시대를 맞기도 했다. 그러다가 카메라-사진 전성시대를 맞아 사진엽서가 대량 생산·보급되었다.

같은 시기 조선에서도 대량의 사진엽서가 인쇄되어, 주로 일본인 상대로 판매되었다. 러일전쟁 직후 1905년 당시 조선주재일본인은 이미 4만 명, 1910년에는 17만 명에 달하고 있었다(水野:2010). 이들 엽서에는 조선에서 일본인이 본 것, 또는 보고 싶은 것, 또는 일본 지배당국이 조선에 온 일본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들로 가득 찼다. 소비자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던 사진엽서에는 식민지 지배라는 욕망이 스며있었던 점도 부정할 수 없다(生田:2010).

러일전쟁을 거쳐 일제강점기동안 식민지 조선을 주제로 대량 발행된 사진엽서의 내용 또는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풍속) 러일전쟁(1904~1905) 이후, 조선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주목되면서 조선명소, 조선풍속, 문화재를 담은 인쇄물들(안내책자, 신문, 사진엽서, 그림, 지도 등)이 대거 등장하였다. 식민지 현지에 대한 낯설고 흥미로운 이미지와 정보들로 일본 방문자들의 호기심과 문화적 취향을 충족시키고자 했다. 특히 인쇄소와 사진관이 합작하여 조선에 관한 사진엽서를 제작, 일본인과 서구 관광객들에게 판매했다.

(근대 건축물)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발행된 사진엽서들 중 풍속과 함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국 주요도시의 거리와 건축물들이다. 새로 들어선 건축물들은 근대의 모습을 보여주기ye 제격이다. 근대 건축물들은 전통적인 가옥, 거리와 비교되면서 일제의 식민통치 성과를 은연중에 홍보했다.

(제국주의관 선전·교육) 부국강병과 식산흥업을 꾀하는 철도, 선박, 통신, 산업, 학교, 군대 등의 이벤트 기념엽서들이 계속적으로 발행되었다. 이를 자국민에게 보급하여, 제국주의관을 선전하고 교육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식민지 산업시설) 관제 사진엽서의 산업시설에 대한 이미지들은 ①육지와 해상의 교통 강화 및 자원 반출을 위한 기반 사업, ②생산 및 수출량 증대를 위한 농수산물 경제 구조화를 위한 사업, ③대륙침략을 위한 군사물품 조달을 위한 광공업 개발 사업, ④ 한국(조선) 자체를 상품화시키기 위한 관광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신축된 기반 시설과 농업을 주축으로 한 수산업과 특산물의 재배 현장과 개선된 수로시설, 광업과 임업의 신식 설비 및 조선의 공장과 주식회사 등을 볼 수 있다. 이들 사진엽서는 일본인의 조선 이주 정책 홍보에 활용되었다.

(새로운 소비문화-관광) 철도와 선박과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공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근대자본주의는 ‘관광’이라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탄생시

켰다. 러일전쟁 이후, 한일병합, 제1차 세계대전 등의 결과 일본의 국토는 확장되어 대만, 한국, 만주, 남양제도, 카라후토, 시베리아 등을 포함했다. 거기다 근대우편제도의 도입으로 사진엽서의 경우는 대표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자리 잡았고, 관광을 조장하는 홍보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병참기지화) 대륙침략을 위한 조선의 병참기지화가 시작된 1930년대에는 관제 사진엽서에 전쟁 상황을 그린 이미지를 인쇄하여 대륙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조선인의 전쟁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일제강점기 사진엽서는 크게 보면 식민지 근대성을 과시하는 한편,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생산·발행되었다. 그렇다고 사진엽서 소비자 개개인들이 발행주체(예, 일제 지배당국)의 의도대로 사진엽서를 해석하여 제국주의 의도나 정책 부응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역효과를 내지는 않았는지? 등은 별도의 문제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 근대조선을 담은 사진엽서는 우리의 사라진 풍속, 건축, 생활상, 풍광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자료적 가치는 부정할 수 없다.

2.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구한말을 거쳐 일제강점기 동안 발행·유통된 제주도 사진엽서(繪葉書)에 주목, ‘근대제주’ 이미지 기록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재조명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제주를 담은 사진엽서의 경우는 도내·외 산재해 있으나 지금까지 실태파악은 물론 본격적인 기초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재일제주인 고성일(高成一)氏는 수년간 수집한 자신의 사진엽서 컬렉션 중 근대제주 사진엽서 70여점을 제공하였다. 지금까지 근대제주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의 경우는 다양한 목적에서 여러 지면을 통해 소개되어 왔으나, 근대제주를 사진엽서 형식으로 묶어서 공개한 경우는 이번이 처

음이다. 본 연구는 이 점에 큰 의의를 두어 향후 근대제주 사진엽서 연구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현재 일본 및 한국 지방 정부 차원(서울, 부산, 천안 등)에서 근대 朝鮮을 주제로 한 사진엽서에 주목하여 다각적인 분석의 기초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제주사회 역시 이 움직임에 발맞춰 이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 및 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우선,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 주요선행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권혁희(2005),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연구방법) 사진엽서가 하나의 ‘문화적 유물’이란 전제 아래 그 유물에 은연중 혹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데올로기와 권력을 추적하고 있다.

(주요연구내용) 저자가 수집한 1500여장의 사진엽서 중 주제가 선명히 드러나는 300여장을 추려서 소개한 책이다. 제국주의 시대 서구열강을 비롯한 일제가 발행한 사진엽서가 대량생산·보급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배권력에 의해 형성된 오리엔탈리즘이 이미지를 통해 상품화되어 대중에게 각인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② 독립기념관 (2012) 《엽서로 보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한국인의 삶》

(연구방법) 수집·조사된 사진엽서를 내용에 따라 독립운동가의 사연, 일제의 수탈, 도시와 풍경, 한국인의 삶으로 분류하여 접근하고 있다.

(주요연구내용) 사진엽서가 근대의 새로운 통신수단이자 일제강점기 조선의 생활상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각자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조선총독부, 철도국, 관광협회가 발행한 사진엽서의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 ③ 이경민(2011) 한국 근대 사진사 연구:사진제도의 형성과 전개/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연구방법)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조선의 사진엽서 도입 과정, 발행처의 인쇄술, 1906년부터 1910년까지 발행된 관제사진엽서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연구내용) 일제강점기 사진엽서의 시대적 역할, 발행과정, 보급현황을 중심으로 사진사를 연구한 논문이다. 1894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 근대 사진문화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사진엽서와 같은 인쇄 우편물과 환등기 및 파노라마 등 근대적 시각장치들을 다루고 있다. 조선의 사진엽서가 근대의 시각매체로서 식민지 시각문화이자 소통매체, 홍보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점을 밝히고 있다.

- ④ 김국화(2015) 일제강점기 관제사진엽서를 통해 본 표상의 정치학:1906년부터 1933년까지 발행된 관제사진엽서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석사논문.

(연구방법) 사진학적·미학적 접근을 통한 도상분석을 하고 있다.

(주요연구내용) 1906년부터 발행을 시작해서 1933년에 발행이 끝난 관제사진엽서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미지 분석과 역사적 사실 조사를 통해 일제의 식민정책에 따른 관제사진엽서의 이미지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4. 연구내용

관련 분야 주요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차별성을 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할 것이다.

- ① 무엇보다도 일본 제국주의 문화산업의 탄생 맥락에서 제주도 사진엽서 연구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
- ② 재일제주인 고성일씨 소장 제주도 사진엽서(1910년대~1930년대 발행), 일명 <고성일 컬렉션> 중 근대제주 사진엽서의 분류, 내용분석, 발행원 추

적 등을 통해 근대 제주의 사진엽서의 도입 과정 및 보급현황 등을 살펴볼 것이다.

- ③ 제주도 근대우편제도 탄생과 더불어 제주도 사진엽서 유통과 역할, 나아가 제주도 이미지 기록의 역사를 들여다볼 것이다.
- ④ 현재 일본 및 한국 지방 정부 차원(서울, 부산, 천안 등)에서 근대 朝鮮을 주제로 한 사진엽서 활용에 주목, 이를 근간으로 제주도 사진엽서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⑤ 궁극적으로 ‘근대제주’ 이미지 기록의 수집·관리·보존 및 연구 방법론 및 유물로서 이들 시각자료의 문화자원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II. 사진엽서의 탄생과 붐

1. 근대일본 및 조선의 사진엽서 전사(前史)

일본 사진엽서(繪葉書)¹⁾의 경우, 일반적으로 1900년 10월 우편법 제정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직후 1904년 러일전쟁을 계기로 폭발적인 사진엽서 붐의 도래를 생각하면, 19세기 사진의 발명과 그 기술, 산업의 발달, 근대우편제도의 확립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사진엽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浦川:2004).

1) 사진의 발명과 발달

렌즈를 구비한 암상자(카메라 옵스큐라)로 풍경이나 인물상을 만드는 기술은 16세기부터 알려졌었으나, 그 상(像)을 기록하여 정착시킨 소위 '사진'은 19세기 되어서 발명되었다. 1826년 프랑스인 니엡스가 렌즈를 통해 상(像)을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본격적으로는 1839년 J.M. 다게르가 다게레오타입(daguerreo type, 은판사진)의 사진술을 발명·발표한 것이 '사진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영국, 미국에서 복수의 사진을 만들고, 인화술을 발명하고, 유리건판을 공업적으로 제조하고, 셀룰로이드 롤 필름, 영화용 필름을 발명·판매하면서 사진산업의 기반이 확고해져 갔다.

일본에서는 다게레오타입이 1840년 초기에 네덜란드 선박에 의해 전해져,

1) 19세기 말 일본에서 말하는 (관계·사제)우편엽서는 9cm×14cm의 규격으로 나온 새로운 채신수단이었다. 초창기 엽서는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이미지가 없는 무지(無地)엽서였다. 이를 일본어에서는 '하가키(葉書)'라 불렀다. 이후 엽서(葉書) 뒷면에 그림이나 사진이 탑재된 엽서들이 탄생하였다. 이때 기존의 '하가키(葉書)'와 구별하여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있다 하여 '회(繪)'자가 추가된 용어 '에하가키(繪葉書)'가 탄생하였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에하가키(繪葉書)의 등장은 '미술의 대중화, 사진의 대중화'라는 사회현상을 일으켰다. 일본어 '에하가키(繪葉書)'에 해당하는 정확한 한국어는 '그림엽서' 또는 '그림·사진엽서'이다. 그런데 이대로 번역하면 혼란이 우려될 뿐더러, 본 연구의 대상이 모두 '사진'이기 때문에 본 연구서에서는 일본어 '에하가키(繪葉書)'를 편의상 '사진엽서'라고 부르겠다.

막부 말기부터 명치초기에 걸쳐 사쓰마(薩摩) 번주(藩主) 시마즈 · 나리아키라(島津齊彬) 등의 진보적인 번주라든가, 네덜란드학 연구자들이 사진술을 연구했다. 사쓰마번 어용(御用)상인의 자제 우에노 · 히코마(上野彦馬, 1838~1904) 그리고 시모오카 · 렌쥬(下岡蓮杖, 1823~1914) 등이 사진술을 배웠다. 1862년 우에노는 나가사키에서(上野撮影局), 시모오카는 요코하마에서 사진관을 개업했다(蓮杖寫眞館全樂堂). 한편 요코하마에서는 1863년에 종군사진가 펠릭스 · 베아토(Felix Beato)가 스튜디오를 개설하여 21년간에 걸친 활동을 개시했다. 또 다모토 · 겐쥬(田本研造, 1831~1912) 등은 명치정부에 의한 북해도 개척 현장을 기록사진으로 남기고, 육군육지측량부원들은 종군 촬영한 기록물 《청일전쟁實記》(1894년)을 출판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당초 우에노 · 시모오카로 대표되는 사진관 · 영업사진가들에 의한 초상사진 등을 중심으로 시작되다가, 서서히 사진이 기록성이 높은 점에 착목한 정부 · 군부등이 기록사진을 다량 촬영하게 되었다. 1920년대는 예술사진가들의 활약이 본격화된다.

사진산업면에서는 1870년에 사진용약품 및 석판재료를 판매하는 사진재료점이 창립되었다. 1885년에는 오가와 · 잇신(小川一眞, 1860-1929)이 처음으로 건판 제조를 시도하여, 1906년에 일본사진건판회사가 설립되었다. 당시 사진회사로는 1902년 로쿠오샤(六櫻社: 小西六寫眞工業 전신), 1919년 동양건판 및 오리엔탈 사진공업이 설립되고, 1929년에는 小西六本店이 일본 최초의 사진 필름을 발매하여, 1934년에는 후지(富士)사진 필름이 일본 최초 영화용 필름을 제조 · 발매했다.

사진의 여명기를 거친 1930년대 일본은 ‘그래프저널리즘(graph-journalism)’²⁾이 성행했다. 또 독일에서는 라이카 및 콘택스 등 각종 소형 카메[라가 제

2) 그래프저널리즘(graph-journalism): 내용적으로는 뉴스 도큐먼트를 주로 하여 사회문제에서 패션 등의 경향이나 미술 · 영화 소개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라이프 Life》, 프랑스의 《파리 마치 Paris Match》 등이 그 전형적인 것이다. 1936년 창간된 미국의 《라이프》지를 대표로 하는 세계적인 그래프저널리즘의 성황은, 의욕에 찬 많은 사진가에게 활동의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포토에세이 · 조사진(組寫眞)이라는 사진저널리즘의 독특한 새로운 수법 · 스타일을 확립시켰다.

조·발매되어 세계시장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진기 및 필름기술이 발전하고, 사진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사진은 일상생활에도 깊이 침투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상, 우라카와 논문(浦川:2004) 요약·번역

한편, 같은 시기 한국사진사도 개략적으로 보자.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국해병대의 전투기록, 역관, 해외사찰 사진 등을 통하여 사진에 대한 개념이 한반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한국사진사는 1880년대부터 시작된다. 문헌상에 의하면 1884년 지운영이 일본에서 사진술을 배워 서울 마동에서 사진관을 차리고, 동년 고종의 초상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초상사진 시대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00년대에 들어서부터 사진의 본격적인 도입과 기술들이 보급된다. 청일전쟁(1894) 이후 일본인들이 한국에 진출, 사진관을 만든다. 한국인이 개설한 최초의 사진관은 해강 김규진(영친왕의 서예 스승)이 설립한 ‘천연당 사진관’이다([도판 1]). 그는 왕실의 편의를 제공받아 일본의 노노미야 사진관에 가서 1년 동안 사진술을 배우고 돌아와, 1907년 8월 17일 석정동에 ‘천연당 사진관’을 개관, 약 10년 동안 운영하였다.



[도판 1] 1913년 김규진의 천연당사진관 부설 고금서화관

1895년 실시된 단발령으로 초상사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 시기 천연당사진관의 고객은 수백 명에 이르렀다. 초상사진의 수요증가에 의해 영업사진관과 사진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1910년대에 들어 YMCA(기독교청년회)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진과 신설하여 사진교육을 실시하였다. 1920년대는 예술사진의 태동기이자 각종 사진학원이 전국적으로 세워졌다. 이 시기 한국인만으로 결성된 '경성사진사협회'가 출범한다.

1920~30년대에는 근대적인 사진교육을 받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가는 조선인들도 증가했다.

조선인 일본 유학생들은 대표적으로 동경사진전문학교(신락균, 김성환, 박송우 등), 오리엔탈사진학교(현일영, 김규혁, 임정식, 박천도, 유석영, 조배현, 주운학, 화가 유영국 등), 동경사진학교(강대석, 정인성, 강이문, 정해창, 진두성, 김도곤 등) 등에서 사진교육을 받고, 귀국하여 영업사진가, 보도사진가, 기자, 교수 등으로 대활약을 한다.³⁾

하지만 위에 언급한 <일본·한국>의 사진의 역사에서 사진가들의 사진과 사진엽서를 위한 촬영과 제작에의 참여 여부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특히, 일제강점기 전후로 나온 관제사진엽서를 비롯한 인쇄물 등에는 관련 사진을 찍은 사진가 개인의 이름 소개는 매우 드물었고, 대신 발행인·발행처(가령, 조선총독부)가 소개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극소수에 불과했던 사진가들이 사진엽서를 위한 촬영과 제작에 적극 참여하여, 사진엽서 산업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이란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 인쇄기술·기업의 발달

일본 메이지기(明治期, 1868년~1912)에 접어들면서 인쇄업도 근대산업으로서 활발해졌다. '일본활판술의 시조'라 불리는 모토기·쇼쥬(本木昌造, 1824~1875)

3) <한국사진사> 내용은 <이성만의 렌즈로 본 세상> 블로그 참조.

는 1869년에 나가사키에 개설한 사숙(私塾) 운영비를 얻기 위해 활판인쇄의 공업화를 기획하였다. 그 일환으로 그는 같은 해 상하이 美華書館에서 일하던 미국인 기술자 W.갬블(William Gamble)로부터 활판인쇄를 위한 활자주조 및 조판 기술 강습을 받았고, 그때 미화서관(美華書館)으로부터 다량의 활자, 활자주조기, 인쇄기 등을 구입하였다.

활자 주조에 성공한 그는 1870년에 <新街活版所>를 창설하고, 활판 인쇄를 개시했다. 모토기(本木)의 문하생들 중, 일부는 오사카에 <長崎(나가사키) 新塾 大阪活版所>를 개설했다(1870년). 모토기(本木)의 문하인 히라노(平野)는 <新街 活版所>을 계승하여, 1872년 동경에 <나가사키新塾出張活版製造所>(이후, 築地活版製造所)를 만들고, 1873년에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인쇄기를 제조하였다.

또 스승 모토기(本木)는 요코하마에 문하생 요소노지(陽其二)를 파견하여 활판소를 열게 하여, 일본 최초의 일간신문 <요코하마 마이니치신문> 간행에 온 힘을 쏟게 했다. 그 후 1879년에 <아사히신문>의 간행 등 근대적 신문들이 점차 창간되면서 인쇄업 규모가 확대되었다.

민간에서도 잡지 및 단행본이 출판되고, 정부에서도 B. 리베르스, K. 브룩(Karl Anton Bruck) 등 인쇄기사 및 이탈리아 동판화가 E. 키웃소네(E. Chiossone, 1833~1898)를 초빙하여 지폐 및 우표 인쇄를 실시하였다. 메이지기 일본은 인쇄기계 및 신기술이 서구에서 도입되어, 이 시기 인쇄업이 이미 크게 발전하였다. 오늘날 인쇄업의 3대 기업(大日本印刷・凸版印刷・共同印刷) 중, 大日本印刷과 凸版印刷 그리고 図書印刷 모두 일본 메이지기에 창업한 기업들이다.

다이쇼기(大正期, 1912~1925)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따른 인쇄물의 수요가 증가하여, 주문량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시기도 있었다. 또 이 시기에는 미국에서 효율성이 높은 옵셋인쇄기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1920년 전후로는 전후공포의 상황에 빠져, 쇼와(昭和) 초기까지 인쇄업은 과도한 경쟁에 놓이게

되었다 거기다 다이쇼 말기에 공동인쇄쟁의 등 출판인쇄업계의 노동쟁의도 눈에 띄었다. 인쇄업은 1935년경에 군수(軍需) 분야 중심으로 일시 회복하였지만, 준전시체제부터 전시체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쇄용지의 배급 제한 등 엄격해져서, 제2차 세계대전 발효 후는 용지 제한이 더욱 강화되어, 인쇄업의 활동이 중지된 적도 있었다.

※ 이상 우라카와 논문(浦川:2004) 요약·번역

한편, 한국의 인쇄사정 및 제주도 인쇄사정에 관해서는 IV. 3. <제주도 사진엽서 발행원>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3) 근대우편제도의 확립(일본-한국-제주도)

(1) 일본우편제도 연대표

- 1871년 관영 근대적 우편사업 개시
- 1871년 우편창업 우표 발행
- 1872년 우편규칙시행(우편법)
- 1872년 우편 일본 전국실시
- 1873년 우편요금 전국적으로 균일제도 실시
- 1873년 미일우편교환조약 조인(국제우편 개시)
- 1873년 「우편엽서」 발행
- 1892년 소포우편 취급 개시
- 1894년 군사우편 개설
- 1905년 한일통신 업무 합동
- 1929년 항공우편 개설

(2) 한국의 근대우편 연대표



[도판 2] 옛 우정총국 전경

1876년 12월 부산에 일본우편국 개설.

1884년부터 한일통신기관협정(韓日通信機關協定)

1884년 4월 22일 우정총국 설치. 근대우편제도의 시행. 홍영식(洪英植)을 우정총관(郵征總販)으로 임명.

1884년 11월 18일 한성의 우편총국과 인천우정분국이 업무를 시작. 우표발행(대부분 외국에 발주 혹은 위탁 형태로 제작됨. 문위우표와 태극우표는 각각 일본과 미국에 발주하였고, 독수리 우표의 경우 프랑스에 위탁하여 제작됨).

1884년 갑신정변으로 개화파가 몰락하는 정치적 격변 속에 우정총국은 업무 20일 만에 문을 닫게 됨.

1893년 9월 26일 전신과 우편업무 통합하여 전우총국(電郵總局)을 개설.

1900년 1월 1일 대한제국(1897.10.12-1910.8.29) 국제우편업무 실시.

1900년 만국우편연합(UPU) 가입

1900년 3월 통신국 폐지, 통신원 창설하여 우편사업 확장

1900년 5월 10일 국내용 엽서(1전 엽서)를 발행, 관제엽서 인쇄(프랑스정부 인쇄국제작)

1905년 한일우편통신 업무합동, 우편국소 전국 445개

1912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체신국(遞信局)으로 개칭

1915년 현재 우편소 전국 599개소

(3) 제주도의 우편사정

1902년 제주시 삼도2동에 한국우체사 제주출장소 설치.

그러나 경상비 부족으로 집배인을 사용할 여지가 없어 재제주 일본인은 나가사키나 목포 등지로 도항하는 여행자에게 의뢰. 반송되거나 분실이 빈번(靑柳:1905).

1903년 9월 1일 한국우체사 제주출장소 폐지.

제주도 일본 우편국수취소 설치(이하 약칭: 제주우편수취소).

일본형 범선에 의해 제주-목포 간 월 2회 왕복.

재제주 일본인 대표 3인, 즉 하라·요시마루(原 吉丸, 주사동 거주 신문통신원/일어학당 교사), 마츠카와·미노루(松川 實, 칠성통 거주 어업상), 요시다·다바네(吉田 束, 칠성통 거주 무역상)가 당시 목포우체국장 아마노·후미고로(天野文五郎)에게 제주우편수취소 설치를 청원하였다. ‘일본우편국설치願’이라는 그들의 서신 말미는 다음과 같다.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겪는 실제의 사정으로 이 섬에 사는 1천여 일본인이 항상 입는 불행인 바, 마땅히 이를 살피시어 조속 취급소를 설치해 주시도록 이 섬에 사는 일본인 대표들이 연서하여 이에 출원합니다.”(靑柳:1905) 이후, 아마노 국장이 제주를 시찰하고 본성에 요청하여 제주우편수취소가 설치되었다.



[도판 3] '제주도 일본우편국수취소' 간판(《제주도안내》(1905)에 수록된 사진)

1905년 제주우편수취소를 폐지하고 목포우체국 제주출장소로 명칭 변경. 1905년 대정 임시우체소와 정의 임시우체소 개소. 통상 우편 업무 취급.

1907년 1월 제주우편국으로 인허가 설치.

1911년 7월 제주우편국에서 언문전보 취급.

1912년 3월 모슬포우편소 설치.

1913년 2월 서귀포우편소, 성산포우편소, 추자도우편소 설치.

1922년 5월 14일 제주우편국장 高橋庄造(전임은 佐野直喜)

1923년 8월 29일 우편선 昌平丸-모슬포에서 좌초 우편물 무사.

제주-부산 왕복 조선우선회사 기선

1923년 12월 제주도 구우면 한림우편소 설치. 전신전화업무.

1924년 1월 김녕우편소 설치.

1925년 4월 26일 신좌면 조천우편소 신설, 6월 24일부터 우편취급개시.

1927년 제주도 제주면 삼도리에 제주우편국 청사가 신축.

1927년 10월 표선우편소 설치 .

1931년 2월 26일 동아일보 제주-목포간 정기항공 시험비행 체신국.

1931년 5월 15일 제주-목포간 비행 우편개시 매일왕복.

1932년 6월 22일 고산우편소 전신사무 및 전화 통화 업무 취급개시.

1933년 4월 30일 목포-제주 정기선 鶴丸 좌초.

1934년 10월 전조선우편국 제주우편국장 青木勘太郎 임명.

1939년 3월 제주도 우편소 10개소.

2. 근대화의 아이콘: 그림/사진엽서의 붐

세계 사진엽서의 역사에서, 사진엽서의 발상은 1870년대 독일로 알려져 있다. 보불전쟁(180~1871) 동안, 프러시아 궁정어용서무점 겸 인쇄업자(일설에는 농부)인 A. 슈와르츠가 관제엽서에 전쟁의 양상을 인쇄했던 것이 최초라고 일컬어진다(小森해설:1978, 浦川:2004). 이 무렵부터 유럽의 인쇄 공장들은 전문 사진가를 고용하여 본격적으로 다양한 이미지의 흑백사진엽서를 제작·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에펠 탑 사진이 실린 사진엽서가 기념품으로 주목을 끌기 시작하면서 사진엽서가 세계 곳곳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즉, 발전된 인쇄술이 엽서 제작에 도입되면서 사진엽서가 발행되었다(김국화:2015).

한편, 일본에서는 1873년 12월 1일 일반 관제엽서가 처음으로 발행되었지만, 사진엽서 발행의 본격적인 출발은 1900년 10월 일본 체신성의 <우편법> 제정에 따라 사제엽서의 인쇄·발행이 허가된 이후로 보고 있다(浦川:2004).

1) 사진엽서의 탄생과 붐 - 일본편

(1) 관제사진엽서

동경사진엽서발행소 관제 사진엽서	
1901년 정월용	年賀사진엽서(東京繪はかき發行所)
일본 체신성 발행 관제 사진엽서	
1902년 6월	만국우편연합가맹 25년 주년 기념(6종1조 5전)
1904년 9월	日露戰役記念 제1회 발행(6종1조 12전)
1904년 12월	日露戰役記念사진엽서 제2회 발행
1905년 2월	日露戰役記念사진엽서 제3회 발행
1905년 6월	시정10년 기념 제1회 발행
1905년 10월	시정10년 기념 제2회 발행
1906년 4월	明治37-38년(1904~1905)전역육군개선헌관병 기념
	
1904년 9월 발행 러일전역기념엽서	

일본에서 관제사진엽서는 1902년 6월에 최초 발행되었다.⁴⁾ 1902년 일본은 만국우편연합 가입 25주년 축하 기념엽서를 발행하면서 관제사진엽서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일본은 각종 국가의례나 정치적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기념엽서를 발행했다. 그런데 <小森해설:1978>에서는 일본 제1호 관제사진엽서는 1901

4) 물론 일본에서 사진이 없는 무지(無地) 관제엽서는 이 보다 훨씬 이전인 1870년대부터 사용되고 있었다. 달력을 인쇄하거나 연하장 형식을 취한 관제엽서도 이미 유통되고 있었다. 또 서양(외국)에서 제작한 사제엽서도 별도의 우편요금의 우표를 붙이면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관제사진엽서의 탄생을 19세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生田:2010).

년 東京사진엽서발행소가 정월용으로 제작한 '연하사진엽서'로 보고 있다(浦川:2004).

1904년~1905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 체신성은 그 전쟁 상황의 전개를 <기념사진엽서>로서 발행하였다. 강국 러시아를 이긴 일본군의 활약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승리에 취하고, 기념엽서를 앞 다투어가며 구매했다.

「러일전역기념사진엽서」가 대유행하자 「제2회 러일전역기념사진엽서」의 경우, 약 60만조를 발행하였고 「제3회 러일전역기념사진엽서」의 경우, 약67만조를 발행하였다. 전쟁의 부정적 이미지는 묘사되지 않고 용감한 모습, 현지 주민에게 친절한 모습, 영웅화된 일본군 등이 실렸다. 이런 사진엽서는 군사우편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민은 군사우편을 쓰고 받는 행위로 전쟁에 참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1906년 4월 <明治37-38년(1904~1905)전역육군개선훈장 기념> 엽서의 경우는 인기가 하늘을 찔러, 동경 에도바시에 있던 우편국에서는 새벽부터 엽서를 사려는 사람으로 대혼잡을 이뤄, 이들 군중정리를 위해 경찰이 출동할 정도였고, 소년2명이 군중들 사이에서 질식사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浦川:2004).

(2) 사제엽서

1900년 10월 일본 체신성의 <우편법> 제정에 따라 사제엽서 인쇄·발행이 허가되었다. 당시 인쇄업은 성업을 이루는 시기였다. 사진엽계에서는 '사진관·영업사진사의 시대'로, 사진엽서는 사진관이나 서점 등 소규모업자를 중심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일전쟁 전역기념 관제 사진엽서 붐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인쇄업자 및 사진업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가들이 <사진엽서산업>에 주목했을 것이란 점은 당연해 보인다.

예를 들어, 목판본 그림책(繪草紙) 상점에서 사진엽서업으로 바꾼 尙美堂, 비단직물점에서 서점으로 바꾼 사진엽서를 출판했던 요코하마의 <竹村書店>, 약기 샴시센 도구 취급점을 하다가 서점으로 전향해서 사진엽서를 발행했던

<石村書店>(현, 石村集文堂)처럼 1900년대에 신규 또는 전업의 형태로 사진엽서 산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다(浦川:2004).

(3) 사진엽서의 사회상 : 수집 취미 붐

일본에서 본격적인 엽서의 붐은 1904년부터다(浦川:2004). 1904년부터 1908년 걸쳐 체신성에서 발행한 러일전쟁 전역기념 사진엽서는 시민들에게 확산되어 공전의 엽서 붐이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일본 전국 각지에 사진엽서 전문점들이 문을 열었다.

1904년 10월에 사진엽서 동우회인 <日本繪葉書會>가 창립되었다. 기관지 《はがき(엽서)문학》이 박물관(博文館)에서 간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술작가를 발굴하고 사진엽서 보급에도 공헌하였다. 또 메이지 말년에는 사진엽서 교류회가 전국각지에서 행해졌고, 요코하마에서는 하루 수만 매의 사진엽서가 열광팬들 사이에서 거래되었다(小森해설:1978, 浦川:2004).

이러한 엽서붐 속에서, 사진엽서는 연하장 교환 풍습의 보급, 회사·상점의 광고용 사진엽서로서 활용, 창업, 개교, 승선 증명 기념으로 구입하는 물건, 답례품 등등에 결코 빠지지 않는 물건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주된 미디어는 신문이었으나, 사진엽서는 신문보다 더 가까운데서 접할 수 있는 속보성이 있었다. 일본은 사진엽서의 유행이 국민의 지위 증진의 전조현상으로 보고 있고 사회적 진보의 척도로 보았다. 사진엽서가 취급하는 테마는 다양하다. 명소, 건축물, 그 시대의 풍습, 풍속, 일상, 행사뿐만 아니라 사고, 지진, 재해 상황까지 엽서에 담았다. 현지 민간인이 취재한 역사의 순간을 전달하는 기록사진의 역할도 하였다.

1905년 사진엽서의 효용과 선택, 보관방법을 설명하는 개론서 《繪葉書の葉》(黒柳勲:1905)에는 일본사진엽서 붐의 배경에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 (1) 체신성이 ‘러일전쟁 전역 기념 사진엽서’ 발행
- (2) 러일전쟁 중군 군인, 가족을 위한 ‘군인관련 사진엽서’의 수요확대
- (3) 지진재해 사진엽서(관동대지진의 뉴스 전달성 엽서)
- (4) 천황 사진엽서 발행
- (5) 광고 사진엽서 발행
- (6) 당시 유행한 수채화 붐
- (7) 문예지 판촉용 ‘부록 사진엽서’의 삼입경쟁
- (8) 화가와 미술학도의 혁신적인 그림을 바탕으로 한 ‘미술그림엽서’의 보급

2) 사진엽서의 탄생과 붐 - 조선편

우리나라에서 우편엽서가 발행된 것은 1900년 5월 10일로서 국내용 1전 엽서가 그 최초의 것이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우편엽서가 발행된 1869년 10월 1로부터 30여년 뒤의 일이었다. 이즈음 한반도에서도 우편제도와 교통기반의 정비, 그리고 사진과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종다양한 엽서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한일병합 이후 일본은 ‘조선병합’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그 지배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진엽서에 주목했다. 대량으로 생산된 시정 사진엽서는 일반 대중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했다.

(1) 관제사진엽서

조선에서 관제사진엽서란 한국통감부에 이어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1906년에서 1933년까지 발행한 엽서를 말한다(김국화:2015). 1900년 국내용 1전 엽서를 발행이 시작되면서, 조선정부에서는 관제사진엽서 발행을 모색 중, 1898년 우편 고문으로 조선에 파견된 프랑스인 클레망세에 의해 관제사진엽서 발행 건의가 있었다. 그러나 1905년 일제의 조선통신권 장악으로 좌절되었다. 그 결과 관제엽서의 발행은 일제의 손에 넘어갔다. 따라서 조선 관제기념엽서는

1906년 한국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정부에 의해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최초 관제사진엽서는 초대통감인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 재임 1906~1909) 취임(就任)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⁵⁾ 이어서 이듬해 1907년 한국 황제폐하 즉위 기념 사진엽서가 발행된다.



[도판 4] 1907년 8월 27일 발행 한국황제폐하 즉위 기념 관제사진엽서

[도판4]는 1907년 8월 27일 발행된 한국황제폐하 즉위 기념 관제사진엽서다. 도안의 바탕에 덕수궁 돈덕전의 전경이 채택되었다. 순종은 1907년 8월 27일 이곳 돈덕전에서 황제즉위식을 가졌다. 1910년 한일합방 후 일본은 ‘한국’ 공식 명칭을 ‘조선(朝鮮)’이라 칭하게 된 점과는 대조적으로 1907년 당시만 해도, 한국통감부 산하 일제관제엽서에는 ‘한국(韓國)’ 국명이 쓰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06년에서 1933년까지 한국통감부→조선총독부 발행 관제사진엽서 목록 및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⁶⁾

5) 朝鮮總督府遞信局 編, 조선제신사업연혁사(朝鮮遞信事業沿革史) (京城: 朝鮮總督府 遞信局, 1938), p.9 참조(김국화:2015 2쪽 인용).

6) 《朝鮮總督府發行の記念郵便繪葉書》(1935年). 조선제신협회(朝鮮遞信協會)가 편집한 한국통감

[표 1] 한국통감부→조선총독부 발행 관제사진엽서 목록 및 내용			
번호	발행일	기념사항	발행종류
1	1906.3.28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 초대통감 취임 기념	2매1조 비매품
2	1907.8.27	한국황제폐하 즉위 기념	1매 5전
3	1909.7.10	통감 경질(更迭) 기념	2매1조 10전
4	1910.7.1	일한체신사업합동 5주년 기념	2매1조 15전
5	1910.7.30	테라우치 통감 취임 기념	2매1조 10전
6	1910.10.1	조선총독부 시정기념	2매1조 10전
7	1911.10.1	조선총독부 시정 1주년 기념	2매1조 10전
8	1912.○.1	조선총독부 시정 2주년 기념	2매1조 10전
9	1913.10.1	조선총독부 시정 3주년 기념	3매1조 10전
10	1914.10.1	조선총독부 시정 4주년 기념	3매1조 10전
11	1915.10.1	조선총독부 시정 5주년 기념	3매1조 10전
12	1915.11.10	대정천황 즉위 대례 기념	2매1조 10전
13	1916.10.1	조선총독부 시정 6주년 기념	3매1조 10전
14	1917.10.1	조선총독부 시정 7주년 기념	3매1조 10전
15	1918.10.1	조선총독부 시정 8주년 기념	3매1조 10전
16	1919.7.1	평화기념	2매1조 10전
17	1919.10.1	조선총독부 시정 9주년 기념	3매1조 10전
18	1920.10.1	조선총독부 시정 10주년 기념	2매1조 10전
19	1921.4.20	체신사업창립 50주년 기념	2매1조 10전
20	1925.5.10	대정천황 대혼(大婚) 25주년 기념	2매1조 20전
21	1925.10.1	조선총독부 시정 15주년 기념	3매1조 15전
22	1928.11.10	쇼와 천황 대례 기념	2매1조 15전
23	1929.10.2	제58회 신궁 식년천궁(式年遷宮) 기념	2매1조 10전
24	1930.10.7	사단(師團) 대항 연습 기념	2매1조 비매품
25	1932.5.15	애국조선훈비행 기념	2매1조 10전
26	1933.6.15	경성(京城) 부근 방공(防空) 연습 기념	2매1조 비매품

부→조선총독부 발행 관제사진엽서 목록이다. 세부적으로는 기념사항, 발행일, 매수, 가격, 엽서와 함께 발행되었던 특수 통신일부인의 발행여부 등을 기록해 놓았다. 또한 각각의 관제사진엽서의 도판과 도판내용을 담고 있다.

위의 내용이 기록된 《記念郵便繪葉書》는 1935년에 발행된 것임으로, [표1]은 1935년 이전 시점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 시정 기념 관제사진엽서의 경우는 1910년부터 1920년까지 매년 발행되었다.

관제사진엽서의 가격은 보통 2매 1조 또는 3매 1조 기준 10전~15전이었으며, 비매품은 3건 있었다. 1910년대 통상엽서 가격이 1전 5리, 왕복엽서의 경우 3전이었음을 감안할 때, 당시 관제사진엽서가 고가(高價)였음을 알 수 있다. 1933년 6월 15일에 발행된 「경성(京城) 부근 방공(防空) 연습 기념」 엽서를 끝으로 식민지 조선의 관제엽서 발행 기록이 끊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통감부→조선총독부 발행 조선 관제기념엽서는 최고의 정치권력에 의해 특정한 정치적 사건이나 경축할 만한 날을 기념해 발행되었다. 관제사진엽서인 이상, 국가적 행사나 정책을 선전하는 한편, 조선총독부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은 당연했다.

(2) 사제엽서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사제엽서란 조선총독부와 철도국, 체신청과 같은 공공기관 이외에서 발행된 엽서를 말한다. 거기에는 자연의 풍물이나 도시의 면모, 사람들의 생활상과 풍속 등 일상생활에 널리 있는 것들을 제재로 한 것에서부터, 시사적인 사건, 나아가 국제적인 박람회라든가 지역이벤트에 이르기까지 사진으로 기록되고, 그 중에 엄선된 사진들은 엽서 형태로 발행되어 널리 유포되었다. 특히 러일전쟁 후부터는 대량의 사진엽서가 한국에서 인쇄되어 주로 일본인 상대로 판매되었다. 당시 장·단기적으로 한반도에 체류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한반도의 독자적인 풍경이나 풍속을 담은 사진엽서를 이용하여 일본의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안부를 묻거나 정황을 소개하는 것이 널리 유행하기도 했다.

관제엽서가 식민통치의 정당성 홍보의 수단이었다면, 사제엽서는 돈벌이 위한 제국주의 문화상품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사제엽서는 국내 각지에서는 물론 일부 일본의 서점이나 상점, 사진관 등에서 발행되었다.

전국 각지 명소(名所), 온천, 기생, 민속 등 이국성·상업성을 띤 그림/사진엽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사진엽서가 처음 발행된 후, 수십만 종의 사진엽서가 발행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본고 V. 3. '국내 근대 사진엽서 활용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사제엽서 발행원과 관련해서는 II. 3. '<조선> 주제 사진엽서 발행원'에서 다루기로 한다.

(3) 사진엽서의 사회상 : 관련 신문기사

동아일보에 보도된 사진엽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22년 6월 20일] 평원경찰서 낙성식 사진엽서 발행.

[1922년 4월 18일] 원산수산물 품평회 사진엽서 발행.

[1923년 6월 17일] 조선부업품공진회 내 가족식당 설치. 축산선전 팜플렛과 사진엽서 발행.

[1924년 8월 3일] 동아 각종 행사에 지출품목에 엽서 비용 상정.

[1924년 8월11일] 관세증진 수입 품목 중 사진엽서 포함.

[1927년 11월22일] 동아일보 나체화 단속-각경찰부 명령. 춘화와 양나체가 수입되어 사진엽서상점에 진열되는데 이를 단속. 일본에서 허가한 조각물 사진도 단속대상.

[1930년 1월 15일] 동아일보 사진엽서 대금 만여 원 소송-업자 早川佐喜男가 조선박람회경성협찬회 상대 엽서대금 지불 소송.

[1931년 8월 3일] 제1회 학생브나로드운동 강습회 수상자 사진엽서상품.

[1932년 11월 20일] 열차 내에서 우표 사진엽서 판매-철도국 영업과

[1934년 6월 13일] 동아일보 고원지국 설치 10주년 기념엽서 발행-독자배포. 경상북도를 위시하여 애독자들이 청구가 86명에 이르렀지만 유감스럽지만 관내 애독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보내지 못함.

[1935년 12월 25일] 개성부 세모동정주간 개성빈민구제 의연금 모집에 사진엽서 판매대금 엽서 1만부, 1매 10전에 판매.

[1936년 3월 8일] 경성부확장 축하연 참가에게 신경성(新京城)명소 사진엽서 배포.

[1937년 10월 9일] 천일(天一)사진관 현웅구씨 사진엽서 발행하여 일본인 고객

거의 독점.

[1938년 2월 5일] 사단홍병부 현금 7만8천원 사진엽서 279천여 매.

[1938년 9월 23일] 홍병품 취급개정 육군성발표, 위문대(주머니)로 할 것 - 수건, 비누, 실용엽서, 사진엽서, 수첩, 연필 등.

[1939년 6월 7일] 고소(高所)로 부터의 사진촬영 엄벌. 인천관광객이 날로 증가하여 풍경 사진엽서 등에 고소로 부터 찍은 것이 발견되어 인천헌병분대 경고.

[1940년 4월 24일] 목포관광협회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사진엽서 인쇄 항목 있음.

위의 보도내용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일본(내지)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사진엽서는 각종 행사의 기념품, 상품, 군대위문품, 관관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사회적 필수품이 되었다.

3. <조선> 주제 사진엽서 발행원

조선에서는 자발적 근대우편제도의 시행과 함께 일본인 사진관과 민간 인쇄소에서 근대적 인쇄술을 도입하여 사진엽서를 제작·유통하기 시작했다(김국화:2015). 20세기 초반, 조선엽서는 조선총독부와 철도국을 비롯한, 한반도 각지의 서점이나 상점, 사진관 등에서 발행되었다. 일본 및 한국 국공사립 박물관에 소장된 사진엽서로 확인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엽서 발행원은 100곳에 가깝다(浦川: 2001).

조선엽서 연구가 우라카와 가즈야는 일본 사가현립나고야성박물관(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 소장 1,330점의 조선엽서에 대해 2001년 학술적인 조사·분류·분석·논문집필을 한 바 있다(浦川: 2001). 그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대표적인 조선 사진엽서 발행원으로 이름을 올린 곳은 다음과 같다.

- 히노데상행(京城日之出商行, 경성)
- 대정사진공예소(大正寫眞工芸所, 일본 와카야마)
- 부산오죽당서점(釜山吳竹堂書店)
- 京城協贊會
- 眞鶴洋行(MANAZURU & Co.)
- 良花屋
- K.KUWADA & Co.
- 光州本町 加賀屋(文具店)
- 仁川湍川葉書書店
- 大邱元町南韓寫眞館

- 조선총독부
- 조선총독부 철도국
- 조선총독부 철도국 열차식당

이상, 일부만 발췌.
단, 위 100여 곳 발행원 중에는 제주도 소재 사진엽서 발행원은 없음.

이 중 조선 사진엽서 발행원으로 가장 명성이 있었던 곳으로는 히노데상행(日之出商行)과 대정사진공예소(大正寫眞工芸所)로 꼽힌다. 전자는 경성 본점(지금의 서울 충무로)에서 일본인(椎木宇之助)이 경영하는 곳이고, 후자는 일본 와카야마에 본사(1913년 일본 와카야마에 설립)를 둔 곳이다. 아래 본문에서는 이 두 곳 발행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고 한다.

1) 히노데상행(日之出商行)

이곳은 1900년대 초기에 개업하여 사진엽서 및 문구를 팔았다. 1913년에는 매우 전문적 수준의 <조선풍속 풍경사진첩>을 발행하기도 했다. 히노데상행은 당시 경성(서울)을 거점으로 한국 전역의 명소와 풍속을 담은 사진엽서를 발행했다. 1915년에는 지금의 명동자리에 지점을 개설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켰다.

히노데상행 광고 [도판 5]를 보면, 우선 히노데상행 건물 사진이 눈에 띈다. 건물 상단에 한자로 [朝鮮名所風俗繪葉書發行元(조선명소풍속사진엽서발행원)]이라 쓰인 글자가 간판을 대신하고 있다. 그 아래 히노데상행의 로고가 크게 부착되어 있다. '히노데(日之出: 일출, 해돋이)', 즉 떠오르는 태양 주위로 햇살

이 퍼져나가는 형상이다. 당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옥일승천(旭日昇天: 떠오르는 태양처럼 거침없는 기세) 깃발을 연상케 하는 문양이다.



[도판 5] 히노데상행 광고 <京城繁昌記, 博文館 1915>

[도판 6]은 히노데상행 발행 사진엽서 앞면 우표란에 인쇄된 로고마크를 종합한 것이다. 이 로고마크를 대상으로 발행 시기, 시대상황, 이미지 상징성 등을 분석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는 별도의 지면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表6】「京城日之出商行」発行写真絵葉書のロゴマーク

(A)		(B)		(C)		(D)	
(E)		(F)		(G)		(H)	
(I)		(J)		(K)		(L)	
(M)		(N)		(Z)			

[도판 6] 히노데상행 발행 사진엽서 로고 마크 일람(浦川:2001)

일본 사가현립나고야성박물관 소장 조선사진엽서 1,330점 중 히노테상행 발행 사진엽서가 총 509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F)로고로 179점(35.2%), 다음으로 무인(Z)가 75점(14.7%), (D)로고가 55점(10.8%), (H)로고가 51점(10%), (L) 및 (M)로고가 각 36점(7.1%)으로 이어지고 있다(浦川:2001).

이런 맥락에서 히노테상행 발행 사진엽서 중 제주도 사진엽서를 발굴해서 로고 마크 및 사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사진엽서 발행시기 및 시대상황을 분석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관점에서 부언하면, 다행히 이번 <고성일 컬렉션>에도 히노테상행 발행 사진엽서가 3점 보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고 IV. 3. <제주도 사진엽서 발행원>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2) 대정사진공예소(大正寫真工芸所)

일본 와카야마시(和歌山市) 소재 사진엽서 발행원이다. 당시, 선진화된 인쇄 기술을 도입하여 한때 일본에서 사진엽서 발행의 최대 메이커로 거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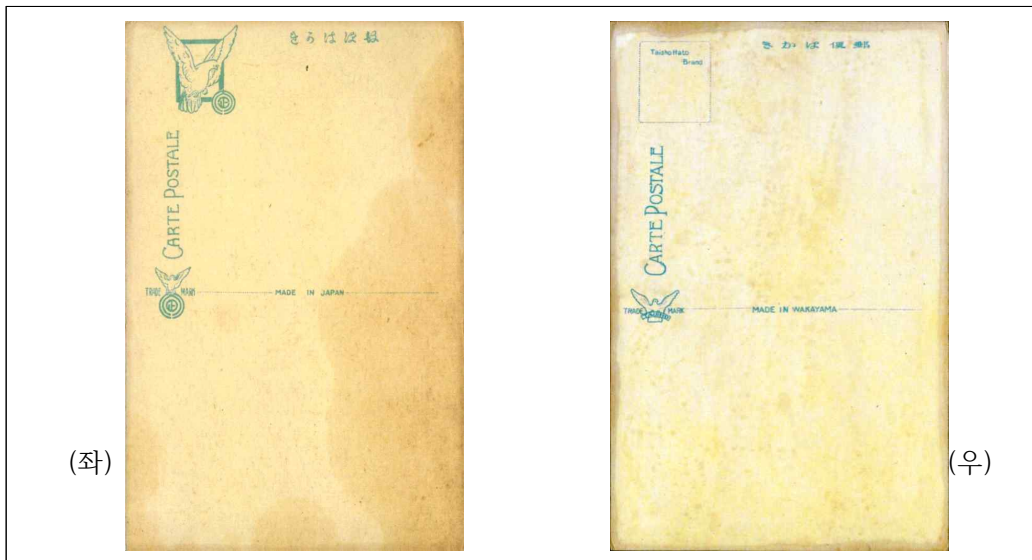
대정사진공예소의 초대 사장은 야마자키·시카노스케(山崎鹿之助)였다. 시카노스케(鹿之助)는 와카야마현 히다카군(日高郡) 출신으로 원래 성은 유미구라(弓倉)였는데, 야마자키(山崎)家の 딸과 결혼함과 동시에 양자가 되면서 야마자키(山崎)라는 성을 썼다. 야마자키家는 와카야마시에서 일용품, 화장품, 장신구, 주머니, 장식띠 등을 파는 상점을 대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명치말기(1910년 전후), 시카노스케(鹿之助)는 와카야마사범학교 부근에 대정예비학교를 개설하였다. 본교는 사진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였다.

1913년~1914년경, 시카노스케(鹿之助)는 와카야마시 小松原通1町目に '대정사진공예소'를 개설하였다. 이곳에는 고등소학교 등 졸업해서 입사하는 사원들이 많았고, 시카노스케(鹿之助)가 히다카군(日高郡) 출신이므로 사원들 역시 그쪽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이곳에서 일하면서 기숙사 또는 하숙생

활을 하였다. 본사(小松原通)은 3층으로 1층에 사장실, 사무실, 사진실, 인쇄공장, 재단실, 포장실, 취사실, 식당이 있었다. 2층에는 제판(製版) 공장과 창고 및 기숙사가 있어 4~50명 살았으며, 3층은 창고였다(太田:2010). 이 정도로 당시 대정사진공예소는 큰 기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곳은 풍경사진을 중심으로 촬영했으며, 졸업앨범 사진 등은 타사에 외주해서 촬영하게 했다. 대정사진공예소의 콜로타입 인쇄기술은 매우 뛰어났다. 이 기술은 이곳에서 일하는 기술자가 고안하였고, 당시 육군성이 이를 주목할 정도였다(太田:2010). 대정사진공예소는 1920년대~1930년대에 급성장하면서 한국, 만주 등의 사진첩도 다량 발행하였다. 또 당시 일본 국내 전국을 통틀어 최고의 사진엽서 발행원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물론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본사는 1945년 와카야마 공습으로 인해 사옥이 불에 타면서 소장 자료가 일거에 재로 변했다.

대정사진공예소 발행 사진엽서의 로고 마크는 비둘기이다. 엽서 앞면에 비둘기 로고 마크가 인쇄되어 있다. 물론 그 외에도 대정사진공예소 발행 엽서임을 암시하는 기호들이 엽서에 표시되어 있다.



[도판 7] 대정사진공예소 발행 사진엽서 앞면 비둘기 로고.

[도판 7] 좌측 엽서의 경우, 우표란과 패선 2곳에 비둘기 마크가 있다. ○가 중심을 향해 여러 겹 작아지고, 그 중앙에 한자 ‘正’을 넣고 있다. 이미지 주변에 Trade Mark라 표시하고 있고, 패선 중앙에는 ‘Made in Japan’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도판 7] 우측 엽서의 경우, 좌측과 약간 다르지만 기본은 일치해 보인다. 좌측의 ○속 ‘正’를 담은 무늬 대신에, 긴 사각에 TAISHO라고 적고 양측에 Trade Mark라 표시하고 있고, 패선 중앙에는 ‘Made in Wakayama’라고 표기되어 있다.

본고의 관점에서 부연하면, <고성일 컬렉션> 중에는 대정사진공예소 발행 사진엽서가 1점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고 IV. 3. <제주도 사진엽서 발행원>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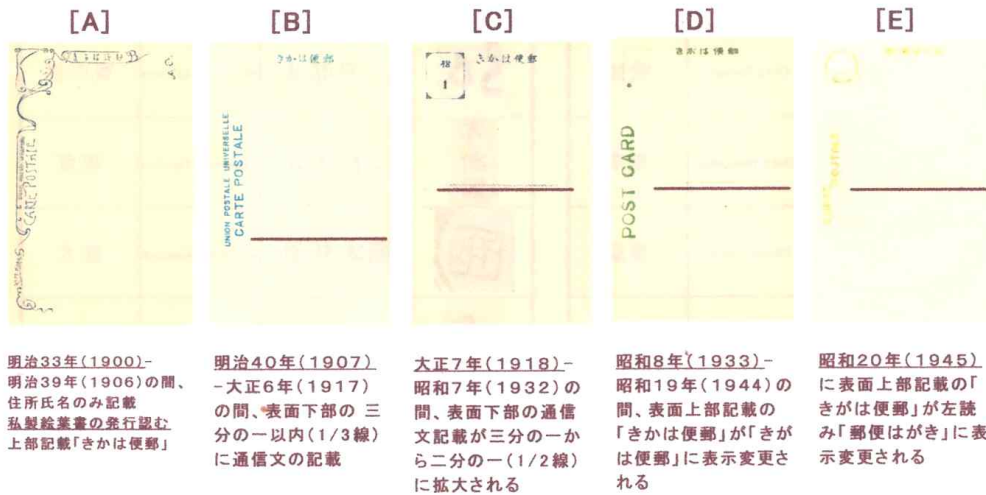
4. 사진엽서 발행 연도 추정 기준

사진엽서는 오랜 세월 파는 성격도 있어 발행 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사용된 것 이외는, 정확한 시대 특징이 곤란하다. 그러므로 사진엽서 나타난 다양한 기호 및 약호에 의존하여 해당 사진엽서 발행 연도를 추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하 5가지 추정 방법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1) 사진엽서 통신란 패선(서식)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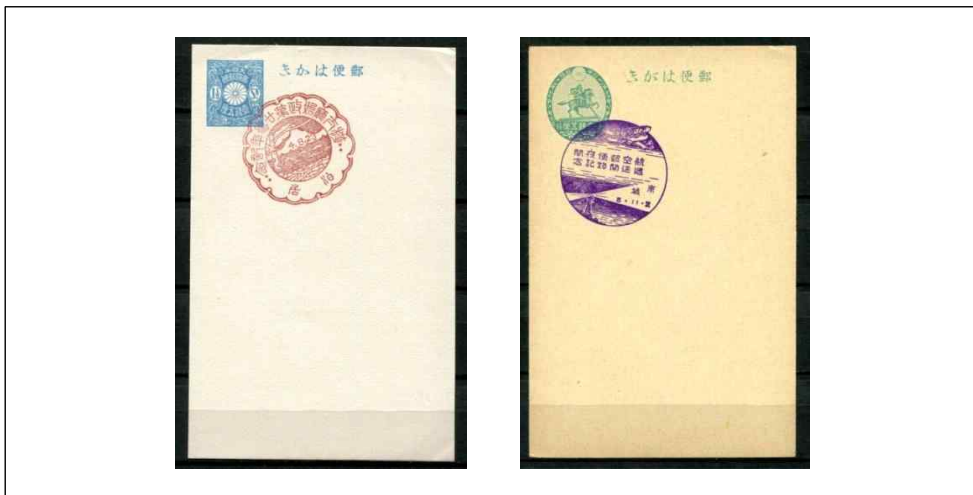
(※ 이하 년대 표기 예: M: 明治 / T: 大正 / S: 昭和)

- ① 통신란 패선이 없는 것 → 1900(M33년)~1906년 (M39년)
- ② 통신란 패선이 $\frac{1}{3}$ → 1907(M40년)~1917년 (T6년)
- ③ 통신란의 패선이 $\frac{1}{2}$ → 1918년(T7년)~1932년(S7년) 사이 $\frac{1}{2}$ 선이 확대되면서 이후 계속 사용되었다.



[도판 8] 사진엽서 통신란 패선의 변천 - 고베(神戸)엽서박물관 자료

2) 郵便はか(が)き 표기순서(우→좌, 좌→우)로 추정



[도판 9] 郵便はか(が)き 표기 순서(우→좌, 좌→우)

1945년 이전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편엽서 「郵便はがき」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 있으면 1945년 이후다.

(1) 「きかは便郵」 1900년~1933년 2월

- (2) 「きがは便郵」 1933년 2월 이후 「はかき」에 탁음점이 있음.
 (3) 「郵便はかき」는 1945년 이후

3) 우표 문양으로 추정

- (1) 국화 우표(菊切手) : 1900년~1908년, 하늘색은 아주 초기에 해당
 (2) 다자와 우표(田澤切手) : 1913년(T2년)~1927년(S12년)
 (3) 노기 우표(乃木切手) : 1937년(S12년) 4월~1946년(S21년)



[도판 10] 일본 우표 종류

*다자와 우표(田澤切手)에는 「朝鮮」·「支那」·「軍事」 등 우표 하단에 인쇄된 것도 있다. *1926 昭和毛紙切手 추정(위조방지 신 인쇄기술 도입)

4) 엽서 요금으로 추정

- 1873년 12월~전국 1전, 시내 반전
- 1899년 4월~1전5리
- 1937년 4월~2전
- 1944년 4월~3전
- 1945년 4월~5전

5) 엽서 발행원의 로고마크로 추정

예를 들어 위 [도판 6] 히노데상행 발행 사진엽서 로고 마크 일람 참조.

6) 흑백/컬러 여부인쇄방법으로 추정

(1) 유리 콜로타입 인쇄(그물망이 없는 흑백) : 1888(M21)년 실용화

※ 1911년 경무국 철도국 인쇄소 콜로타입 인쇄 시작

(2) 동판(아연판) 사진인쇄(흑백 그물망) : 1894(M27)년 → 1910년경까지

(3) 수채색 사진엽서(手彩色繪葉書) : 흑백 사진에 직공이 손으로 색을 직접 칠함.

1890년대→1910년경까지. 1923(T12년) 관동대지진 이후 대량 인쇄가 보급되어 이 제작방법은 없어짐.

(4) 옅셋 인쇄(칼라 그물망) : 1918년 → 1920년대

7) 사진 촬영 연도로 추정

(1) 엽서 발행 추정 가능하면 그보다 항상 이전 것임.

(2) 엽서 외 다른 지면에서 동일 사진이 있을 경우, 그 지면의 발행 연도로 사진 촬영 연도 추정 근접.

Ⅲ. 재일제주인 고성일氏 사진엽서 컬렉션

1. 고성일(高成一)氏 소개

고성일씨(1947년생)는 제주시 옹포리 출신이다. 고씨는 20세에 제주를 떠나 일본 오사카에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곧바로 현지 구두공장에 취직해 근무하던 그는 ‘시너’가 오랜 기간 몸에 축적되면서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서까지 갖은 고생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日本繪葉書會 및 동 關西支部 회원 가족들 생계를 담당하는 한편, 취미로 분재를 시작했고 그러하다 보니 골동품을 접할 일도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오사카의 한 골동품 가게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의 풍속을 담은 엽서집을 발견하게 된다. 왜 한국의 풍속 엽서가 이곳에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도 없이 무작정 그것을 구입했다 한다. 그는 그때부터 엽서 수집을 시작했다. 한국 사람으로서, 제주 사람으로서 일생을 들여서라도 이 엽서들을 다 찾아야겠다는 사명감이 그를 부추겼다. 가족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대부분 엽서 모으는 데 사용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일본에서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발품을 팔아 모은 엽서와 골동품은 어느새 4000여 점이 됐다. 그 중 제주 관련 엽서도 다수 포함된다. 이런 경위로 현재 <고성일 컬렉션>이라 해도 손색없는 방대한 양의 사진 엽서를 소장하고 있다.

2. 고성일(高成一)氏 관련 기사



(일본 民団新聞 2017.1.25.)

(연남뉴스 2017. 2.6)



(2017.2.13. 제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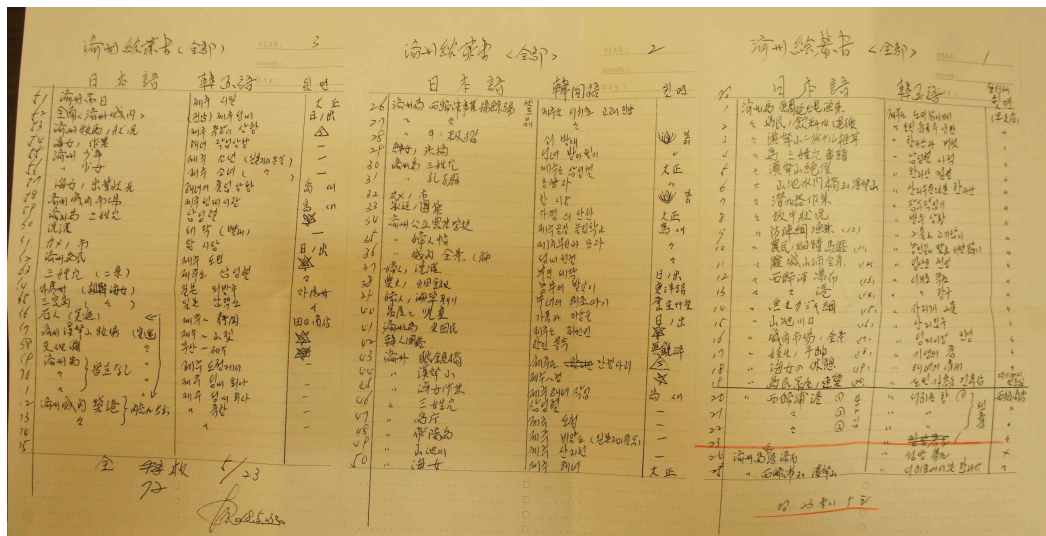
3. <고성일 컬렉션> 중 '근대제주' 사진엽서 내용

1) 주제별 2) 장소별 3) 시기별

- 행정관청
- 사적-삼성혈, 향교, 관덕정 - 교량(건축물)
- 경승지-한라산, 용연, 폭포
- 해녀-도·내외
- 풍속, 무속, 제의
- 근대 항구
- 시장 - 생활(풍속·놀이)
- 산업-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조선업

[illegible]

『일제강점기 사진엽서로 보는 제주도』 (고성일,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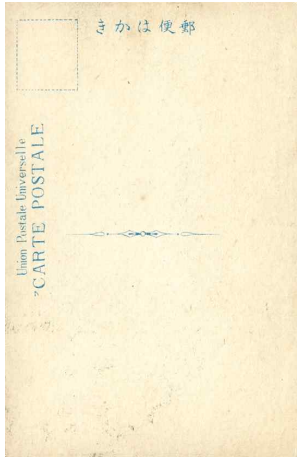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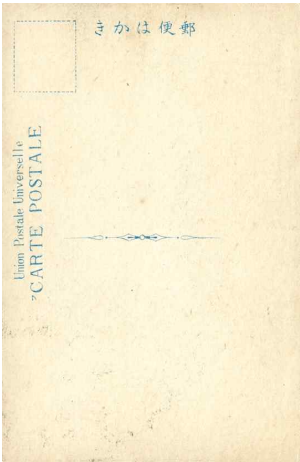
[도판 13] 고성일 작성 사진엽서 컬렉션 중 제주도 사진엽서 목록

5. <고성일 컬렉션> 제주도 사진엽서 서지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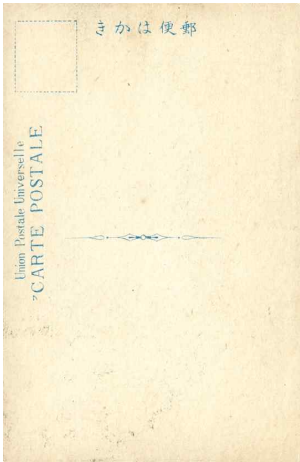
(濟-KSC-001~065 / 6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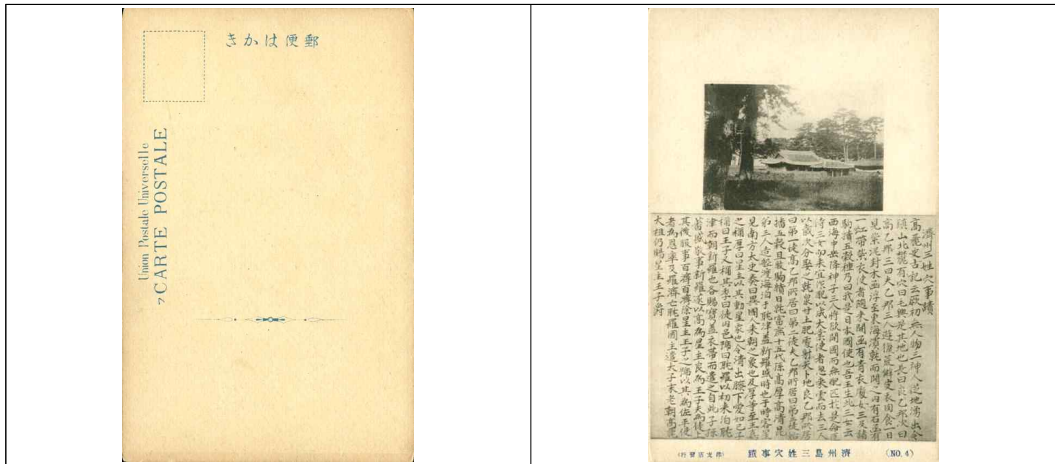
※ 제주불명 사진엽서(濟-KSC-066~073은 부록 참조)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01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鯛延縄漁業ノ景 (1) (제주도의 돛 연승어업 광경)		
촬영지	제주도 해안		
인쇄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사진촬영 1910년대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키워드(관련어)	돛, 연승어업, 범선, 일장기, 제주 전통배, 어부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01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1)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02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さ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民ノ飲料水運搬ノ景 (2) (제주도민의 음료수 운반 광경)
촬영지	제주도
인쇄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사진촬영 1910년대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물허벅, 구덕, 제주여자, 아이들, 돌길, 돌담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02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2) /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일행 촬영 추정.

III. 제일제 주인 고성일氏 사진엽서 컬렉션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03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し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漢拏山ニ於ケル椎茸栽培ノ景 (3) (제주도 한라산 자락 표고버섯 재배 광경)
촬영지	한라산 표고종균장 추정
인쇄	흑백, 콜로타입 collotype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사진촬영 1910년대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한라산, 표고버섯, 표고원목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03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3) *1921년 角健輔 표고재배 허가받음



서지 정보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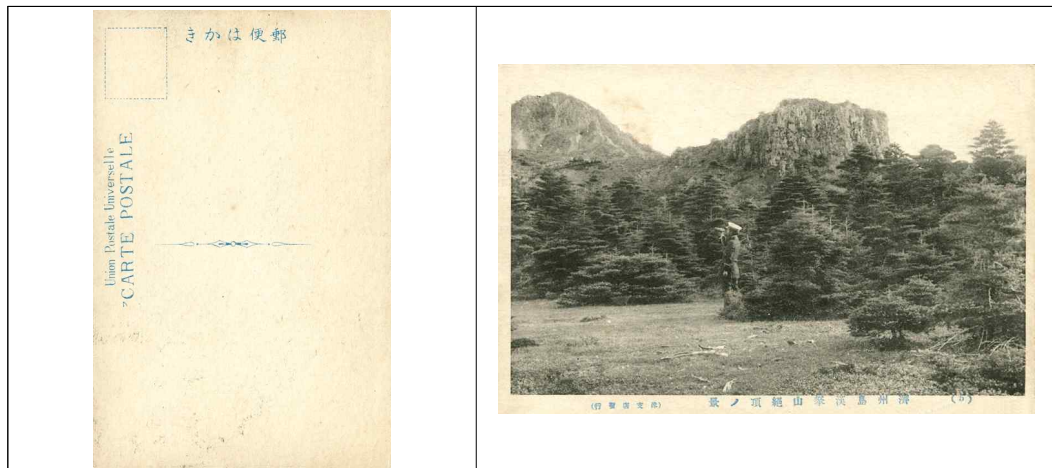
자료번호	濟-KSC-004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1/3 / きかは便郵
우 표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三姓穴事蹟 (No.4) (제주도 삼성혈 사적)
텍스트	高麗史古記云 太初無人物 三神人從地竄出 〈其主山北麓有穴曰毛興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藏木函 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 函內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出現青衣處女三 及諸駒犢五穀種 乃曰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 命臣侍三女而來 宜作配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年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都 高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始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至十五代孫 高厚 高淸昆弟三人 造船渡海至于耽津 蓋新羅盛時也 于時客星見于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遂朝新羅 王嘉之 稱長子曰星主 〈以其動星象也〉 二子曰王子 〈王令淸出胯下愛如己子故名之〉 季子曰都內 邑號曰耽羅 蓋以來時 初泊耽津故也 各賜寶蓋衣帶而遣之 自此子孫蕃盛 敬事國家 以高爲星主 良爲王子 夫爲徒上 後又改良爲梁 又三國遺事載海東安弘記 列九韓 毛羅居四 百濟文周王二年 拜耽羅國使者恩率 東城王二十年 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註云 耽羅即耽牟羅 百濟既滅 新羅文武王元年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來降 太祖二十一年 耽羅國太子末老來朝 賜星主王子爵
촬영지	삼성혈
인쇄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사진촬영 1910년대 전후 엽서발행 연도 1910년대 전후
관련어	삼성혈, 삼성사, 삼성신화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04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No.4)



서지 정보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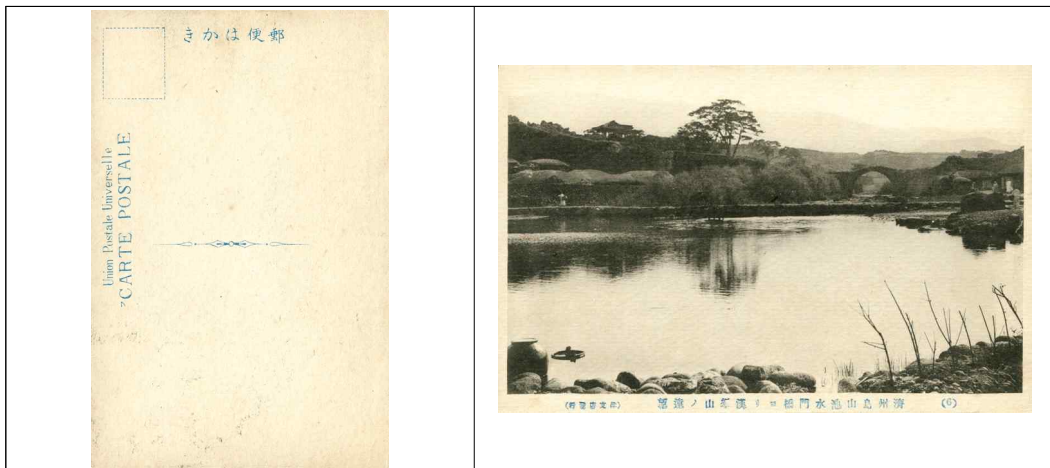
자료번호	濟-KSC-005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漢拏山絶頂ノ景 (5) (제주도 한라산 절정의 광경)
촬영지	한라산 윗세오름
인쇄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사진촬영 1910년대(1914년 토지측량 당시 추정)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한라산, 한라산 정상, 구상나무, 일본인 관리 측정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05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5)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06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7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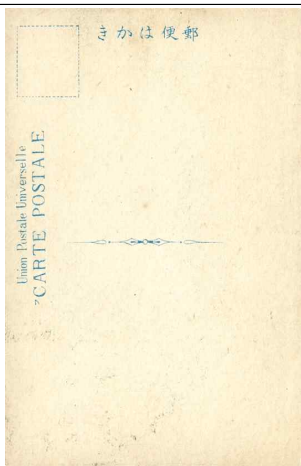
서지 정보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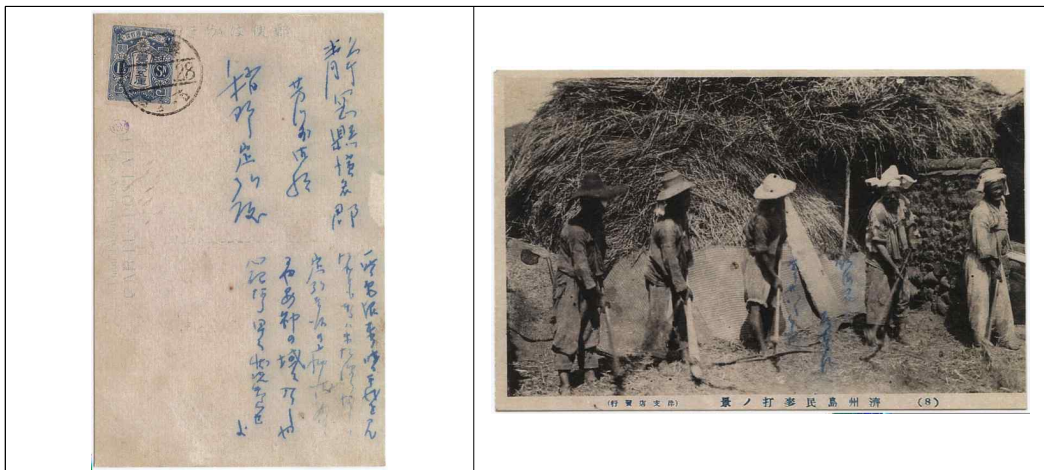
엽서명	濟州島山池水門橋ヨリ漢拏山ノ遠望 (6) (제주도 산지 수문교에서 본 한라산)
촬영지	제주시 북수문 하구
인쇄기술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10년대 전후,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한라산, 산지, 홍예교, 공신정, 북수문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06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6)

Ⅲ. 재일제주인 고성일氏 사진엽서 컬렉션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07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潜水器作業ノ景 (7) (제주도 잠수기 작업 광경)		
촬영지	제주도 해안		
인쇄기술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10년대 전후,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제주전통배, 어부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07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7)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08
사용여부	년도 불명 28일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ㄷ /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1전5리 청색 다자와우표
보내는 사람	稻野
받는 사람	靜岡縣浜名郡芳川村 稻野定弘
통신 내용	신변 걱정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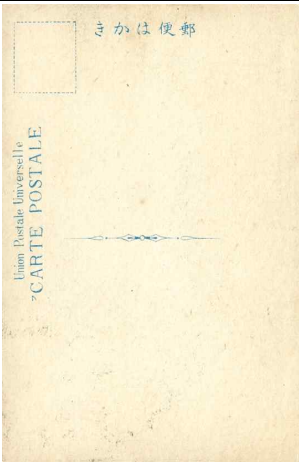
서지 정보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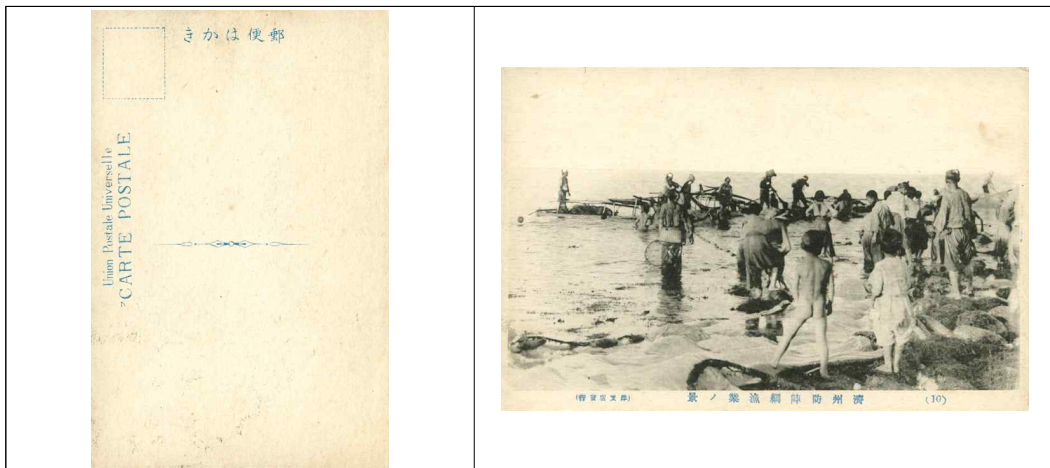
엽서명	濟州島農民麥打ノ景 (8) (제주도 농민 보리타작 광경)
영문명	
촬영지	제주도 민가
인쇄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10년대 전후,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농사, 보리타작, 도리깨, 멍석, 농부, 패랭이, 돌담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08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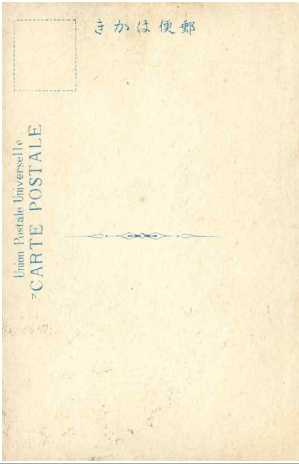
Ⅲ. 재일제주인 고성일氏 사진엽서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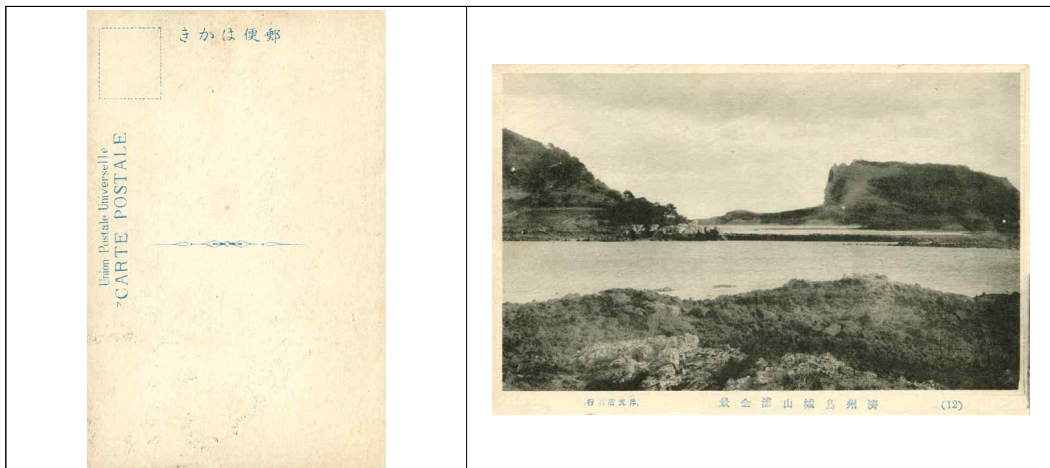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09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放牛狀況 (9) (제주도 소방목 상황)		
촬영지	제주도 목장		
인쇄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10년대 전후,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소방목, 일본인 관리, 바다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09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9)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10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防陣網漁業ノ景(10) (제주도 방진망 어업)
촬영지	제주도 해안
인쇄기술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10년대 전후,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해안, 테우, 사들, 멀치후리기, 마을 주민, 아이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10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10)

Ⅲ. 재일제주인 고성일氏 사진엽서 컬렉션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11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農民ノ畑地踏壓馬壓ノ景 (11) (제주농민의 밭 불리기 광경)
촬영지	제주도
인쇄기술	흑백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10년대 전후,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농사, 말, 농민, 섬피질(선비질)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11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11)



서지 정보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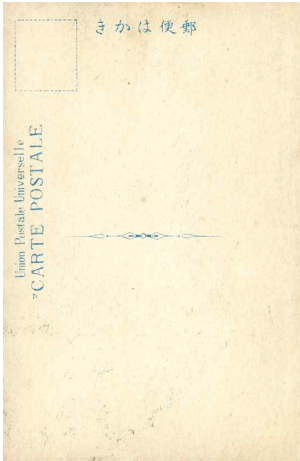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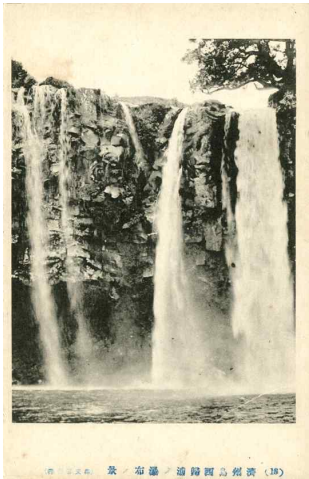
자료번호	濟-KSC-012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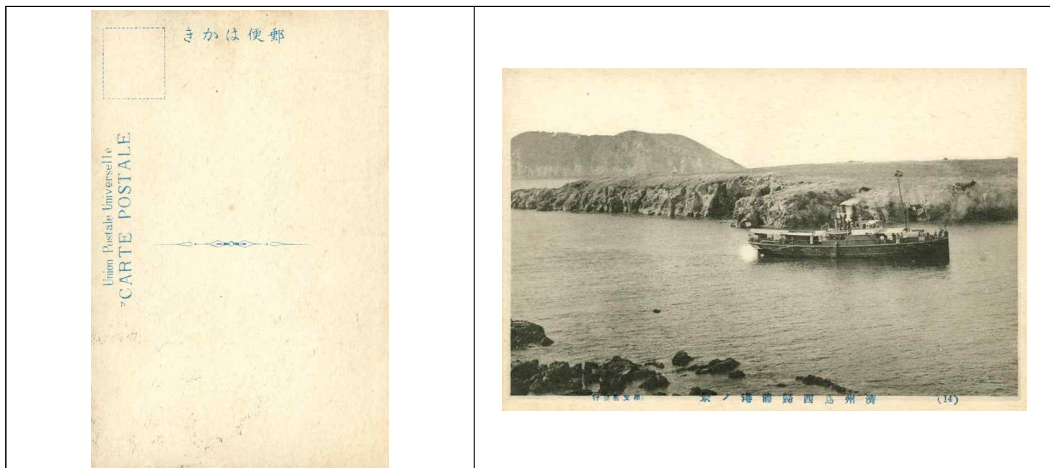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城山浦全景(12) (제주도 성산포 전경)
촬영지	제주도 성산포
인쇄기술	흑백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10년대 전후,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성산포 일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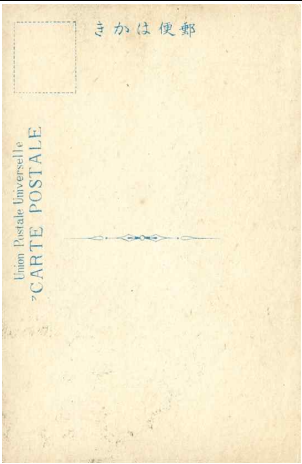
종합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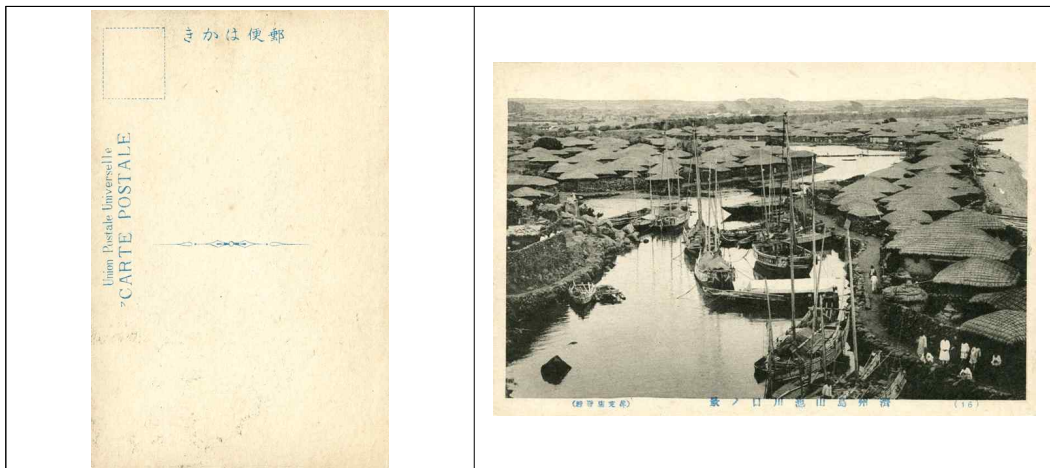
정리번호	濟-KSC-012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12)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13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西歸浦ノ瀑布ノ景(13) (제주도 서귀포 폭포 광경)
촬영지	서귀포 천지연폭포
인쇄기술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10년대 전후,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서귀포, 천지연폭포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13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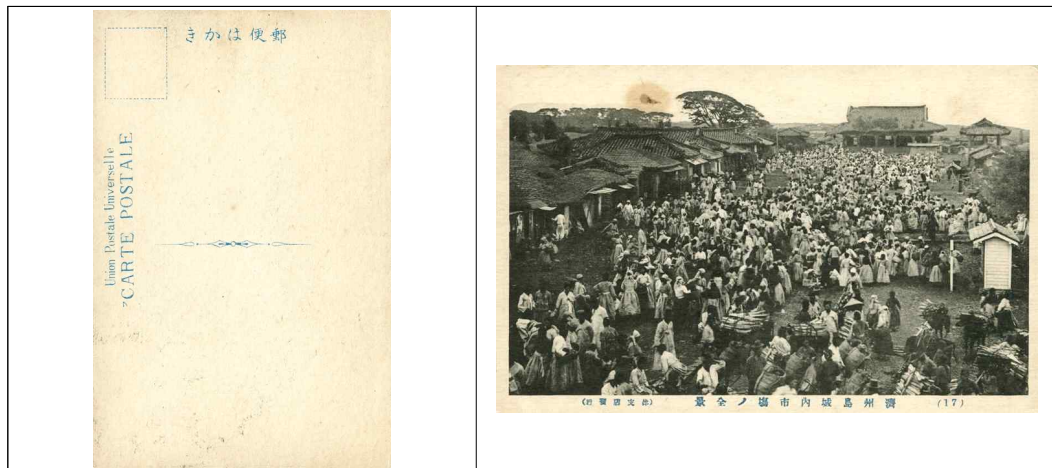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14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西歸浦港ノ景(14) (제주도 서귀포항 풍경)
촬영지	서귀포항
인쇄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10년대 전후,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서귀포 포구, 문섬, 기선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14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14)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15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さ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漁夫カジリ網筏船出漁ノ景(15) (제주어부의 자릿그물 테우 출어 광경)
촬영지	제주도 해안
인쇄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10년대 전후,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테우, 자릿그물, 어부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15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15)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16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山池川口ノ景(16) (제주도 산지천 하구 광경)
촬영지	제주시 산지천 하구
인쇄기술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10년대 전후,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산지천, 어선, 포구, 초가집, 마을주민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16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16)

Ⅲ. 제일제 주인 고성일氏 사진엽서 컬렉션



서지 정보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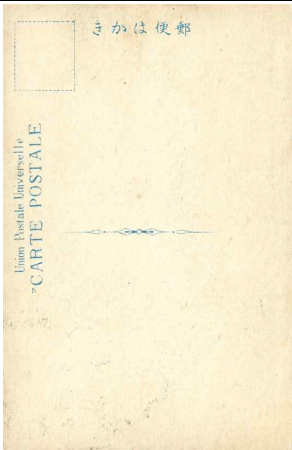
자료번호	濟-KSC-017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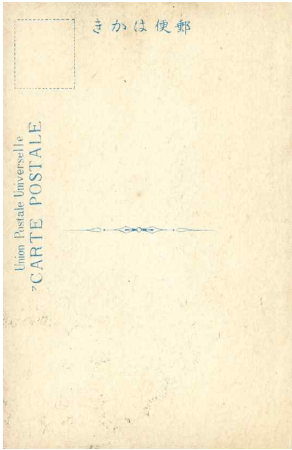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城内市場ノ全景(17) (제주도 성내시장 전경)
영문명	
촬영지	제주시 관덕정 광장
인쇄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10년대,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관덕정, 오일장, 지게, 장작장사, 향교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17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17)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18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妓生ノ手踊(18) (제주도 기생들의 춤)
촬영지	제주시 관덕정 광장
인쇄기술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14년,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관덕정, 기생춤, 입춘굿놀이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18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18) /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일행 촬영.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19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海女休息ノ景(19) (제주도해녀 휴식 풍경)
촬영지	서귀포 추정
인쇄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10년대,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서귀포, 해녀, 불턱, 테왁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19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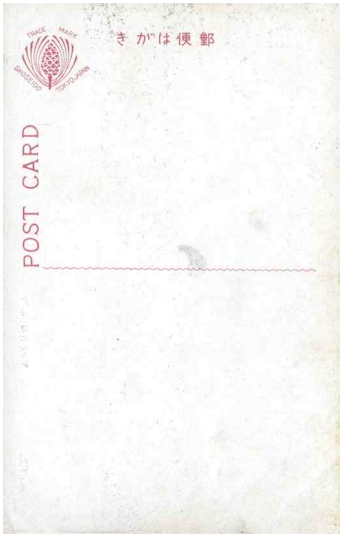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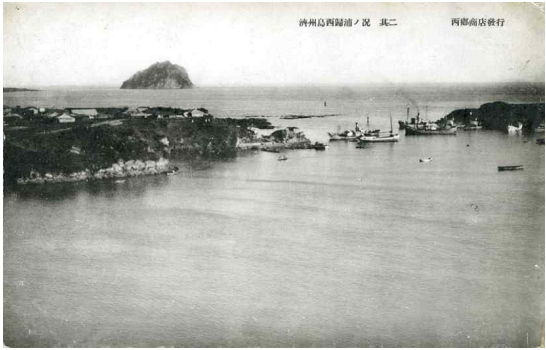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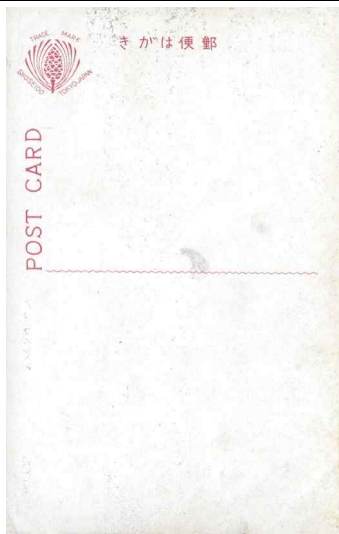
서지 정보(앞)	
자료번호	濟-KSC-020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뒤)	
엽서명	濟州島民家ノ建築(20) (제주도 민가의 건축)
촬영지	제주도 민가
인쇄기술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10년대,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초가집, 돌담집, 지붕일기, 제주남자, 곰방대, 모자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20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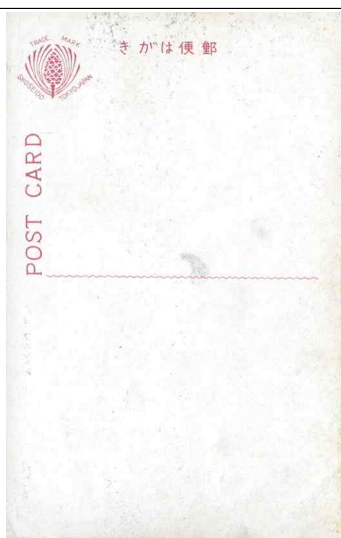
서지 정보	
자료번호	濟-KSC-021
자료명	(記) 濟州島繪はがき 伴支店發行(제주도 사진엽서 반지점 발행) 엽서 겉봉
실측크기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10년대, 엽서발행 연도 1910년대~1920년대
관련어	제주시, 반지점, 반상점, 角健輔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21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엽서커버 앞뒤) *伴支店 1911년 이전 엽서 발행 여부 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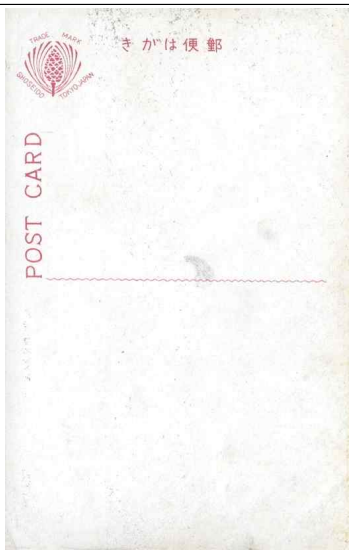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22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きかは便郵 POST CARD 빨간색 잉크 SHOSEIDO TOKYO JAPAN (우표자리에 발행처 東京松聲堂의 솔방울 마크)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西歸浦ノ況 其一 (제주도 서귀포 현황 1)
촬영지	서귀포 해안
인쇄기술	흑백
발행처	西郷商店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20년대 후반, 엽서발행 연도 1933년 이후
관련어	서귀포 포구, 서귀포 취락, 어선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22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귀포 사이고상점 엽서시리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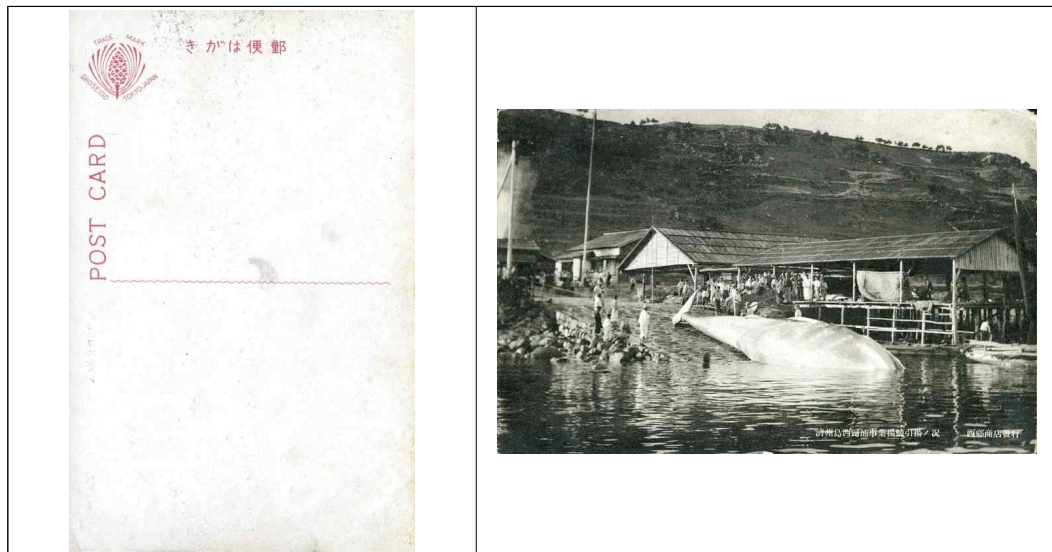
III. 재일제주인 고성일氏 사진엽서 컬렉션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23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きかは便郵
	POST CARD 빨간 잉크 SHOSEIDO TOKYO JAPAN (우표자리에 발행처 東京松聲堂의 솔방울 마크)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西歸浦ノ況 其二 (제주도 서귀포 현황 2)
촬영지	서귀포 해안
인쇄기술	흑백
발행처	西郷商店發行
발행연도	1933년 2월 이후("きかは便郵" 표기 기준)
관련어	도쿄 쇼세이도(東京松聲堂), 서귀포 포구, 문섬, 어선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23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귀포 사이고상점 엽서시리즈(2)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24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き が は 便 郵		
	POST CARD 빨간 잉크 SHOSEIDO TOKYO JAPAN (우표자리에 발행처 東京松聲堂의 솔방울 마크)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西歸浦ノ況 其三 (제주도 서귀포 현황 3)		
촬영지	서귀포 해안		
인쇄기술	흑백		
발행처	西郷商店發行		
발행연도	1933년 2월 이후("き が は 便 郵" 표기 기준)		
관련어	도쿄 쇼세이도(東京松聲堂), 서귀포, 문섬, 고래공장, 송산동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24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귀포 사이고상점 엽서시리즈(3)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25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き が は 便 郵 POST CARD 빨간 잉크 SHOSEIDO TOKYO JAPAN (우표자리에 발행처 東京松聲堂의 솔방울 마크)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西歸浦 正房瀑布 (제주도 서귀포 정방폭포)		
촬영지	서귀포 정방폭포		
인쇄기술	흑백		
발행처	西郷商店發行		
발행연도	1933년 2월 이후(“き が は 便 郵” 표기 기준)		
관련어	도쿄 쇼세이도(東京松聲堂), 서귀포, 정방폭포, 기암절벽, 해안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25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귀포 사이고상점 엽서시리즈(4)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26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き が は 便 郵 POST CARD 빨간 잉크 SHOSEIDO TOKYO JAPAN (우표자리에 발행처 東京松聲堂의 솔방울 마크)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朝鮮八景)濟州島山西歸浦ヨリ望ム漢拏山 (조선팔경)(제주도 서귀포에서 본 한라산)		
촬영지	서귀포 해안		
인쇄기술	흑백		
발행처	西郷商店發行		
발행연도	1933년 2월 이후(“き が は 便 郵” 표기 기준)		
관련어	도쿄 쇼세이도(東京松聲堂), 서귀포, 한라산, 놀, 어선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26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귀포 사이고상점 엽서시리즈(5)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27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きがは便郵 POST CARD 빨간 잉크 SHOSEIDO TOKYO JAPAN (우표자리에 발행처 東京松聲堂의 솔방울 마크)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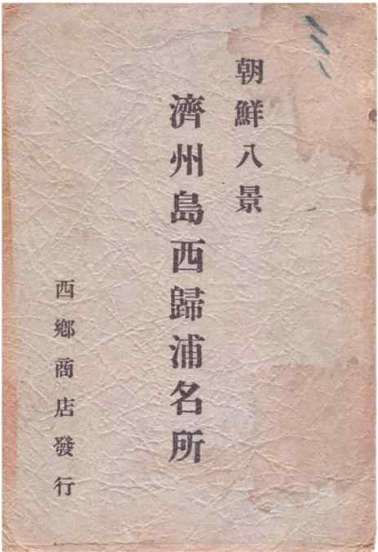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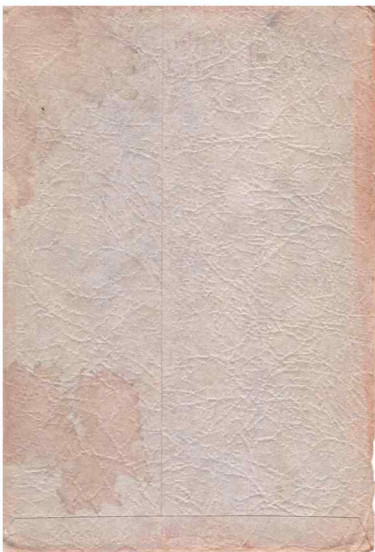
서지 정보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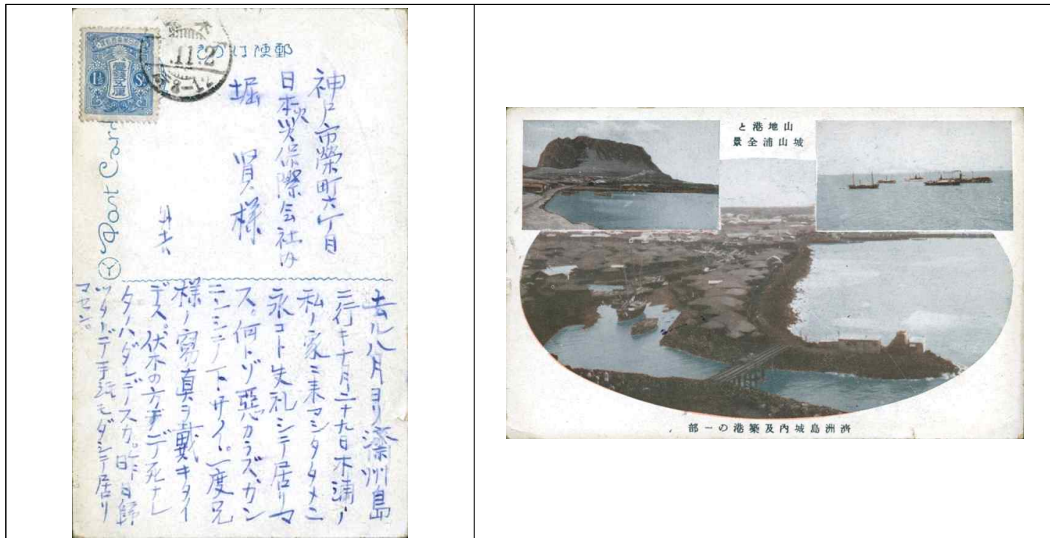
엽서명	濟州島西歸浦事業場鯨引揚ノ況 (제주도 서귀포 사업장 고래 인양 장면)
촬영지	서귀포항
인쇄기술	흑백
발행처	西郷商店發行
발행연도	1933년 2월 이후(“きがは便郵” 표기 기준)
관련어	도쿄 쇼세이도(東京松聲堂), 서귀포, 고래공장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27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귀포 사이고상점 엽서시리즈(6)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28
사용여부	
엽서표기	きがは便郵 POST CARD 빨간 잉크 SHOSEIDO TOKYO JAPAN (우표자리에 발행처 東京松聲堂의 솔방울 마크)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西歸浦事業場鯨解剖ノ況 (제주도 서귀포 사업장 고래 해부 장면)
촬영지	서귀포항
인쇄기술	흑백
발행처	西郷商店發行
발행연도	1933년 2월 이후("きがは便郵" 표기 기준)
관련어	서귀포, 고래, 일본인 관리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28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귀포 사이고상점 엽서시리즈(다른 버전) *복사본

 	
서지 정보	
자료번호	濟-KSC-029
자료명	(記) 朝鮮八景 濟州島 西歸浦 名所 西郷商店發行 (조선팔경 제주도 서귀포 명소) 엽서 겉봉
실측크기	
발행처	西郷商店 제작 도쿄 쇼세이도(東京松聲堂),
발행연도	1933년 2월 이후(“きがは便郵” 표기 기준)
관련어	도쿄 쇼세이도(東京松聲堂), 조선팔경, 서귀포 명소, 西郷武十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29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귀포 사이고상점 엽서시리즈(7)



서지 정보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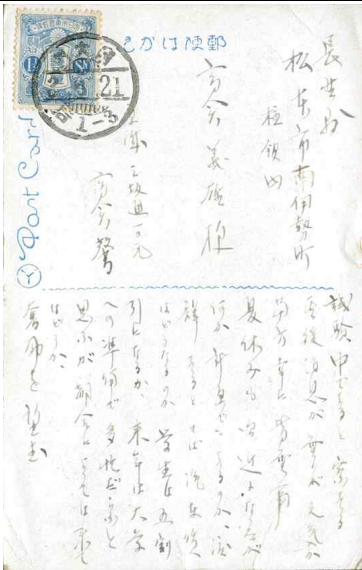
자료번호	濟-KSC-030
사용여부	연도 불명 11월 2일자 목포 소인
엽서표기	きかは便郵
	Post Card ㉠
우 표	다자와 우표 1전5리
보내는 사람	外吉
받는 사람	神戸市栄町 6 丁目 日本火災保険會社内 堀賢
통신 내용	지난 8월에 제주에 왔다가 10월에 목포로 돌아왔다.

서지 정보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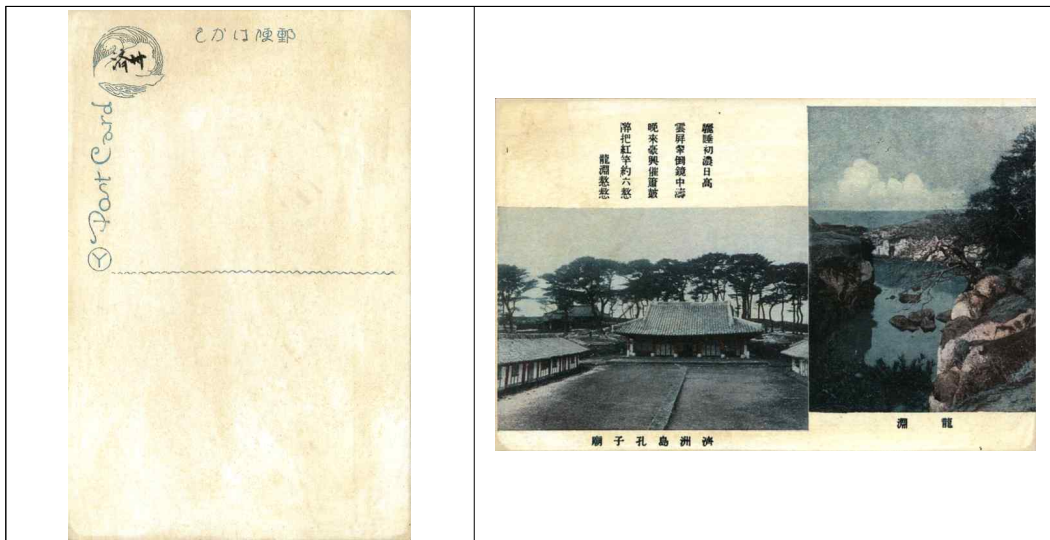
엽서명	濟州島城内及築港の一部+山地港と城山浦全景 (제주도 성내 및 축항의 일부, 산지항과 성산포 전경)
영문명	
촬영지	산지포, 성산포
인쇄기술	채색, 옴셋칼라인쇄
발행처	濟州島廳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29년 이전(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1929년 동 일사진), 발행연도 1918년~1928년
관련어	제주시 축항, 제주성내 취락, 산지포, 기선, 성산포, 일출봉, 신양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30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31		
사용여부	1928년 년 3월 21일자 소인		
엽서표기	きかは便郵		
	Post Card (Y)		
우 표	다자와 우표 1전5리		
보내는 사람	高○		
받는 사람	長野縣松本市南伊勢町 高○義雄		
통신 내용	내년 대학 준비로 다망할 것으로 안다.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城内及築港の一部+山地港と城山浦全景 (제주도 성내 및 축항의 일부, 산지항과 성산포 전경)		
촬영지	산지포, 성산포		
인쇄기술	채색, 옴셋칼라인쇄		
발행처	濟州島廳發行		
발행연도	1918년~1928년		
관련어	제주 성내 취락, 축항, 산지포구, 성산포, 일출봉, 신양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31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碁 杵 茸 椎 , (島洲濟) 俗風及業作女海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32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きかは便郵
	Post Card ㉠ 백조(스완) 마크 청색 잉크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海女作業(濟州島)及風俗 + 椎茸楯場 3컷 해녀작업(제주도) 및 풍속, 표고버섯 종균장
촬영지	제주도 해안 + 한라산
인쇄	채색, 옴셋칼라인쇄
발행처	濟州島廳發行
발행연도	1918년~1928년
관련어	제주해녀, 망사리, 테왁, 족쇄눈, 빗창, 소종이 버섯, 버섯원목, 버섯종균장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32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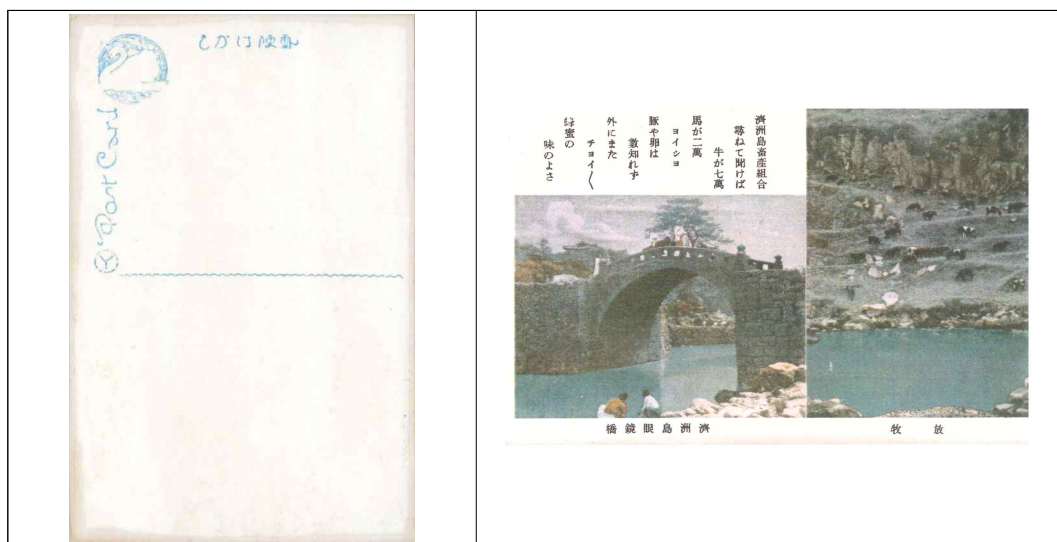
자료번호	濟-KSC-033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きかは便郵 Post Card ㉠ 백조(스완) 마크 청색잉크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孔子廟 + 龍淵 제주도 향교 + 용연
텍스트 내용	驪睡初濃日高□雲屏翠倒鏡中濤 晚來豪興催簫鼓 醉把紅竿約六愁. <龍淵愁愁> 용연 취병담에서 풍악에 취해 낚시를 드리우고 큰 거북을 낚는다.
촬영지	제주향교 + 용연
인쇄	채색, 옅은칼라인쇄
발행처	濟州島廳發行
발행연도	1918년~1928년
관련어	제주향교, 용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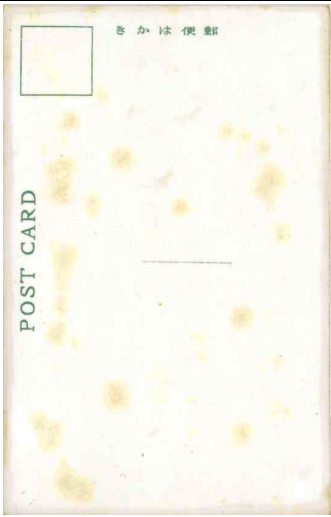
종합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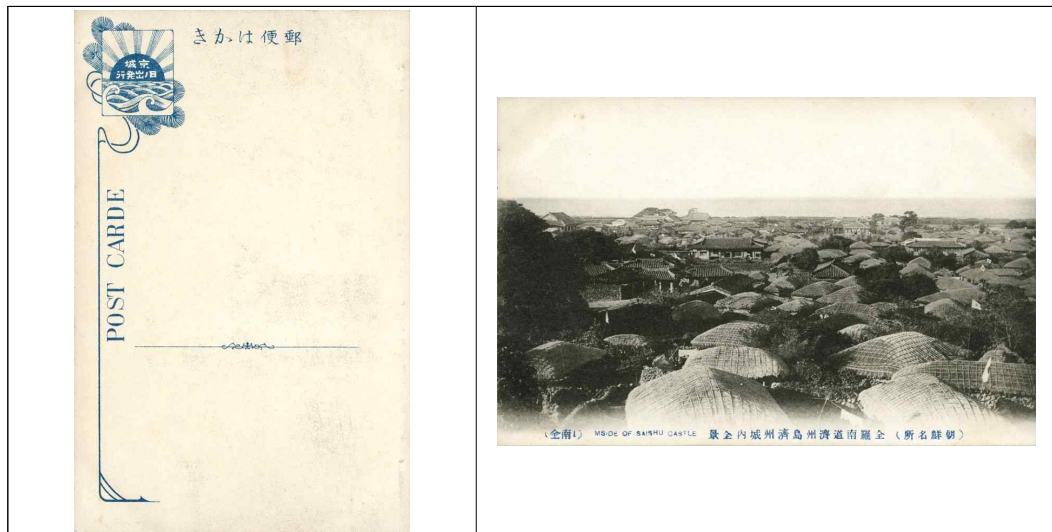
정리번호	濟-KSC-033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34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きかは便郵
	Post Card ㉠ 백조(스완) 마크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眼境橋+放牧 제주도 안경교 + 방목
텍스트	제주축산조합에 물어보니 소가 7만, 말이 2만 영차 영차 돼지와 닭은 셀 수가 없네 얼시구 그 외 꿀도 맛이 좋아
촬영지	제주시 산지천 + 한라산 기슭
인쇄기술	채색, 옴셋칼라인쇄
발행처	濟州島廳發行
발행연도	1918년~1928년
관련어	홍예교, 공신정, 빨래, 소, 한라산, 방목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34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35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きかは便郵
	Post Card ㉠ 백조(스완) 마크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城内市場 + 漢拏山遠望 (제주도 성내시장 + 한라산 원경)
촬영지	제주시 관덕정 광장 + 제주마을
인쇄	채색, 옴셋칼라인쇄
발행처	濟州島廳發行
발행연도	1918년~1928년
관련어	제주 성내, 시장, 한라산, 배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35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36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란: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POST CARD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무제(내용: 비양도를 배경으로 한 협재 성창)
촬영지	한림읍 협재리
인쇄	흑백
발행처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협재, 비양도, 선박, 범선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36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37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절취선 1/3 / さかは便郵
	POST CARDE
우 표	우표란: 京城日ノ出發行 마크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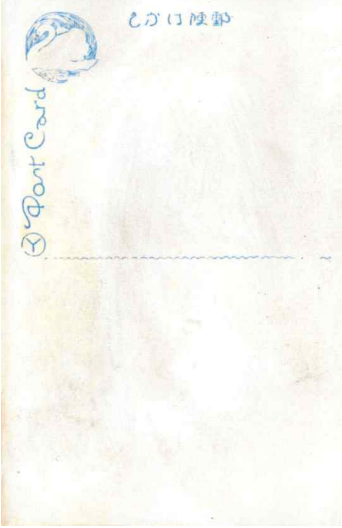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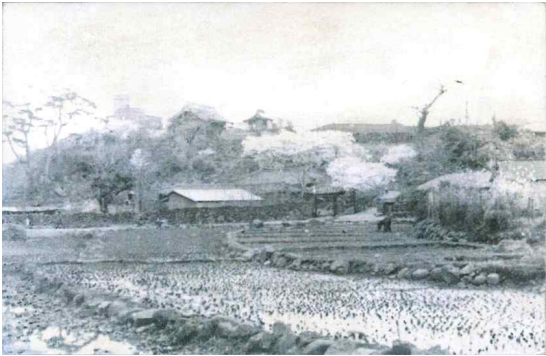
엽서명	(朝鮮名所)全羅南道濟州島濟州城內全景(全南1) (조선명소)전라남도제주도제주성내전경(전남1)
촬영지	제주성내
인쇄	
발행처	京城日ノ出發行
발행연도	사진촬영 연도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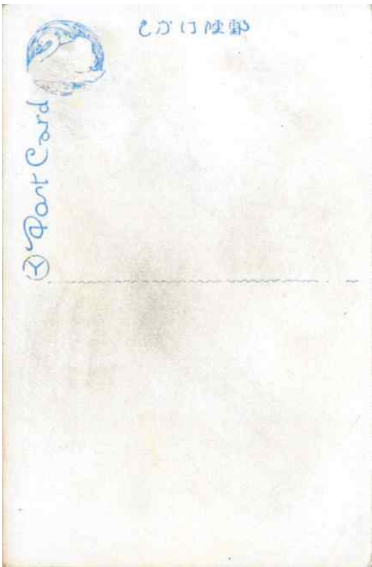
종합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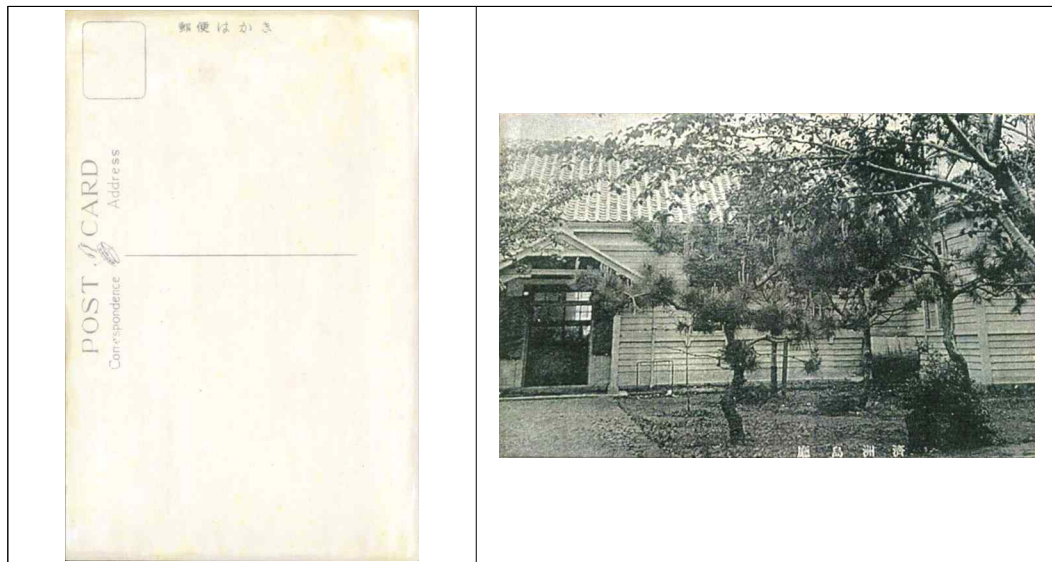
정리번호	濟-KSC-037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38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CARTE POSTALE
	절취선 1/3 / 郵便はがき
우 표	우표마크-無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무제(내용: 산지천 하류 집락)
촬영지	제주시 산지천 하구
인쇄	
발행처	
발행연도	사진촬영 연도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산지천, 집락, 일본인, 소주공장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38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39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Post Card ㉠ 미사용 우표란 : 오리 앞은 마크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무제(내용: 제주축후소 남쪽 경작지)
촬영지	제주시 동초등학교 인근
인쇄	
발행처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제주농고 실습장, 축후소, 제주동교,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39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40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Post Card ㉠ 미사용 우표란 : 오리 앞은 마크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무제(내용: 제주공립농업학교 정문 여아)		
촬영지			
인쇄			
발행처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40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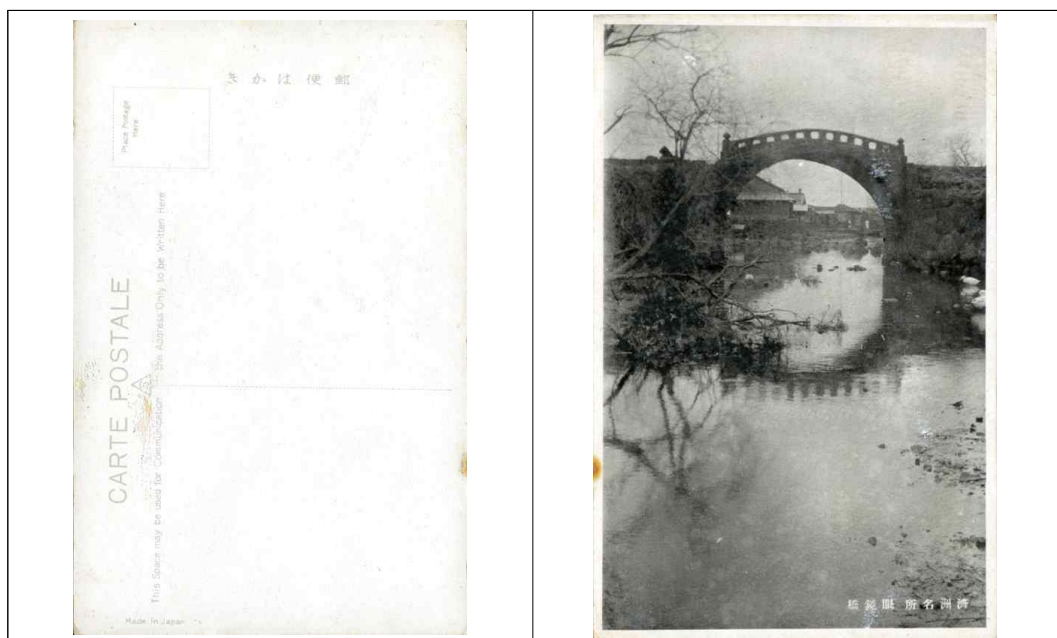
자료번호	濟-KSC-041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POST CARD CORRESPONDENCE / ADDRESS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우 표	無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廳 (제주도청)
촬영지	제주목관아
인쇄	
발행처	
발행연도	사진촬영 연도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제주도청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41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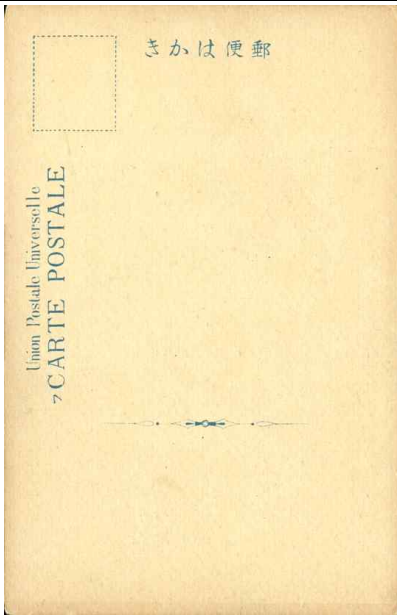
자료번호	濟-KSC-042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CARTE POSTALE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우 표	無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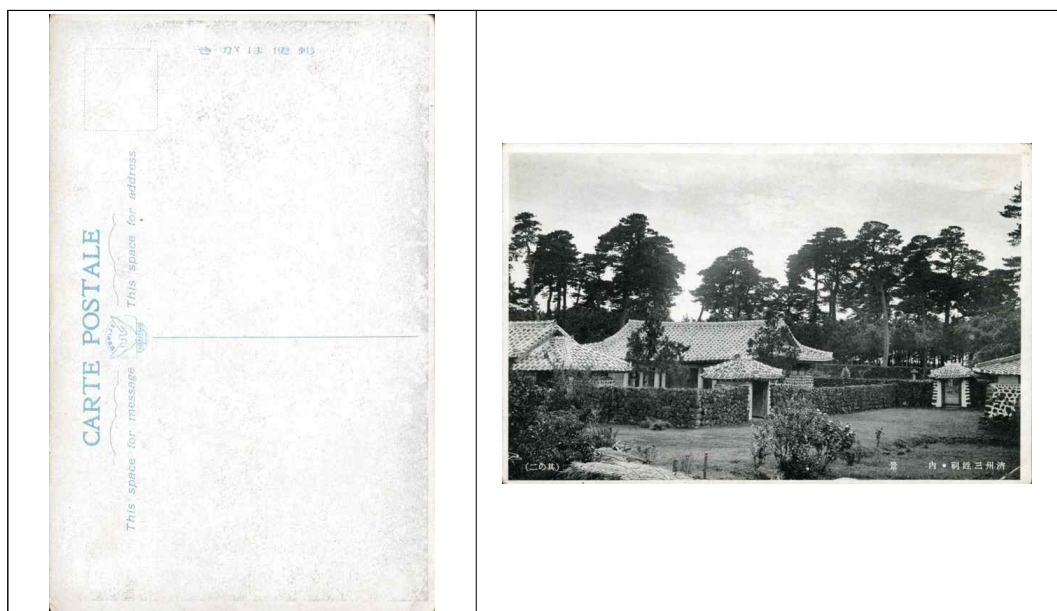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名所 眼境橋 (제주명소 안경교)
촬영지	제주시 산지천
인쇄	
발행처	산지천 안경교, 메가네바시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종합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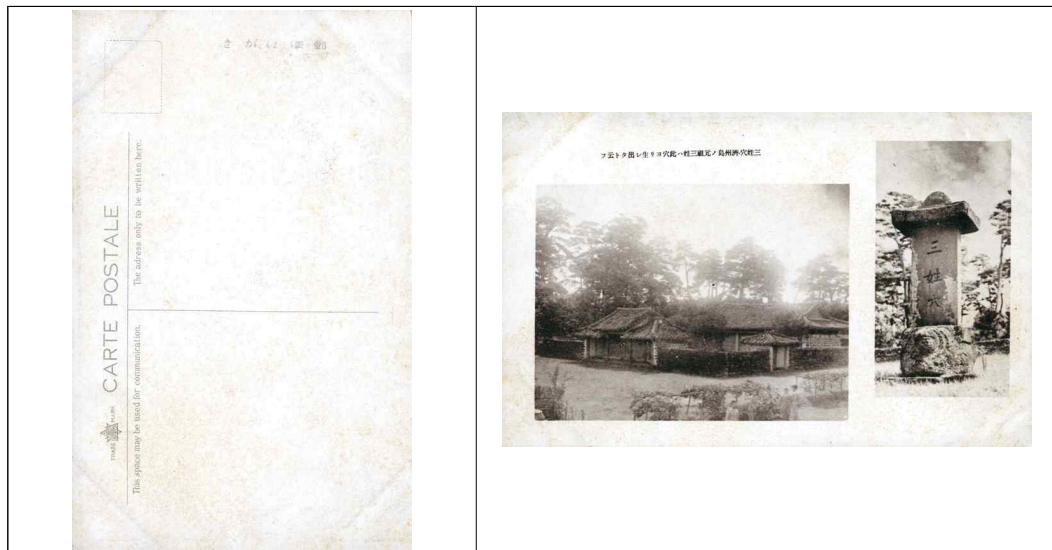
정리번호	濟-KSC-042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Made in Japan 표기됨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43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절취선 1/3 / きかは便郵
	Union Postale Universelle CARTE POSTALE
우 표	無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三姓穴事蹟 (NO.4) / 제주도 삼성혈 사적 (NO.4)
촬영지	제주시 삼성혈
인쇄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43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濟-KSC-004와 동일하지만 다른 버전.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44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CARTE POSTALE 비둘기 마크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우 표	無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三姓祠 · 內景 (其二) 제주도 삼성사 · 내부광경(其二)
촬영지	제주시 삼성혈
인쇄	
발행처	およし茶屋 OYOSHI-CHAYA 비둘기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삼성혈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44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Ⅲ. 재일제주인 고성일氏 사진엽서 컬렉션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45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CARTE POSTALE
	절취선 ½ / きがは便郵
우 표	無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三姓穴濟州島ノ元祖三姓ハ此穴ヨリ生レ出タト云フ (삼성혈 제주도의 시조 삼성은 이곳 혈에서 나왔다고 전한다) 2장면
촬영지	제주시 삼성혈
인쇄	
발행처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삼성혈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45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왕관 마크(濟-KSC-046과 발행원 동일)



서지 정보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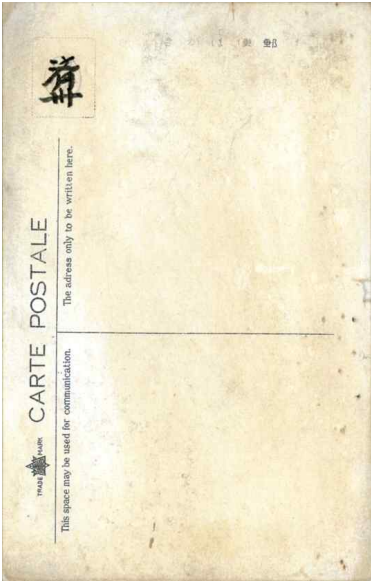
자료번호	濟-KSC-046
사용여부	1940년 9월 2일자 濟州 소인
엽서표기	절취선 ½ / きがは便郵
	CARTE POSTALE
우 표	2전
보내는 사람	朝鮮濟州島濟州邑 石松旅館 鶴田昌郎
받는 사람	山梨縣에 보냄.
통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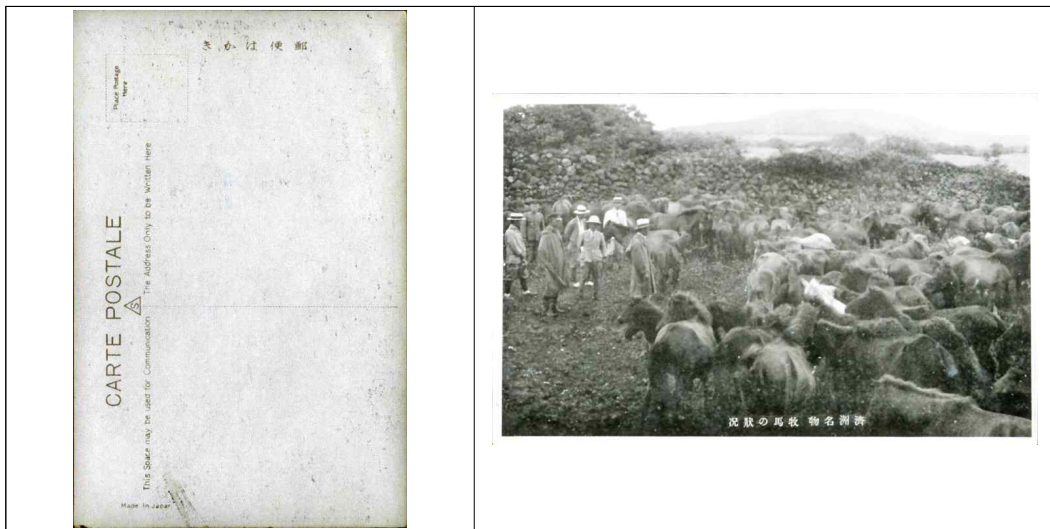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漢拏山麓牧場 (제주도 한라산록 목장)
촬영지	한라산 방목지
인쇄	
발행처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한라산, 한라산록, 목장, 목축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46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왕관 마크(濟-KSC-045와 발행원 동일)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47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왕관 마크 / 절취선 ½ / きがは便郵
	CARTE POSTALE
우 표	無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民ノ風俗 (제주도민의 풍속) 2장면
촬영지	제주도
인쇄	
발행처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제주도민, 목축, 풍속, 농민, 마을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47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왕관 마크



서지 정보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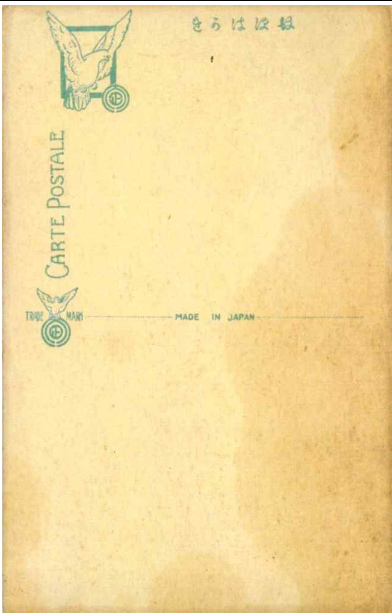
자료번호	濟-KSC-048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S 마크 / 절취선 ½ / きがは便郵
	CARTE POSTALE
우 표	無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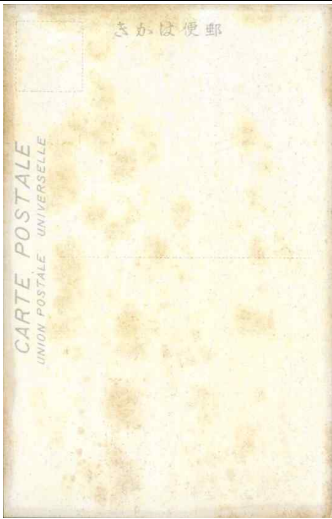
서지 정보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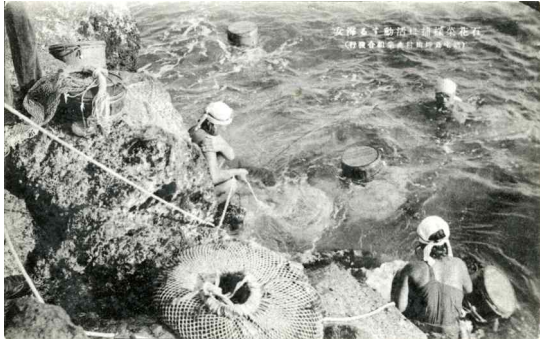
엽서명	濟州名物放馬ノ狀況(제주명물 말 방목 상황)
촬영지	제주도
인쇄	
발행처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제주목축, 제주방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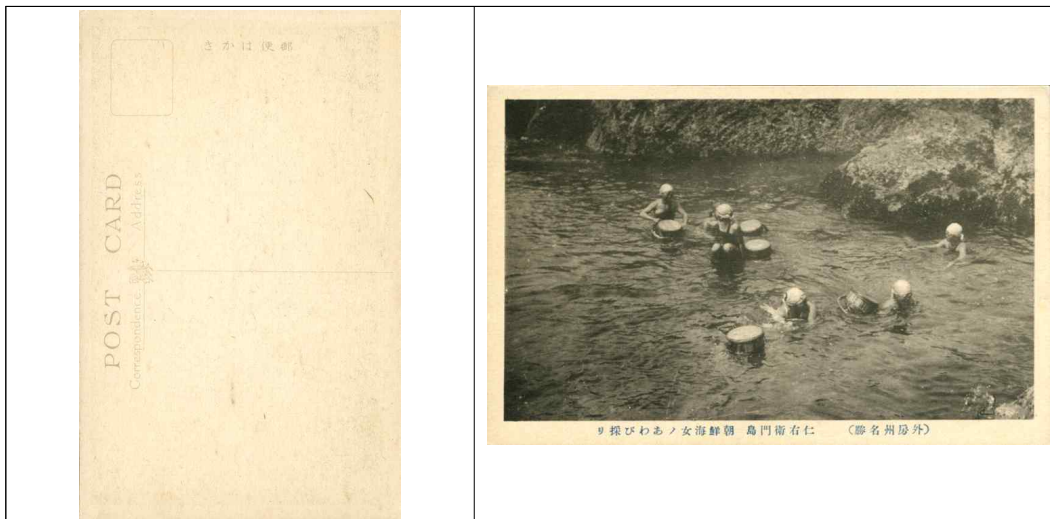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48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49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MADE IN JAPAN으로 엽서면 ½ 절취/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비둘기 마크		
우 표	비둘기 마크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무제(내용: 강인한 제주해녀)		
촬영지	제주도 해안		
인쇄	흑백 사진에 칼라 채색		
발행처	대정사진공예소(大正寫真工芸所)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제주해녀, 소종이, 눈(수경), 테왁, 망사리, 빗창, 물질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49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50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Union Postale Universelle CARTE POSTALE
우 표	無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海女の出業状況(해녀의 출업상황)
촬영지	제주도 해안
인쇄	
발행처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제주해녀, 잠수, 출업, 물질, 숨비소리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50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51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Union Postale Universelle CARTE POSTALE
우 표	無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石花菜 採捕に活動する海女(우뭇가사리 채취하는 해녀)
촬영지	일본 미야케시마(三宅島)
인쇄	
발행처	미야케시마(三宅島) 坪田村産業組合 發行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石花菜, 우뭇가사리, 제주해녀, 미야케시마(三宅島)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51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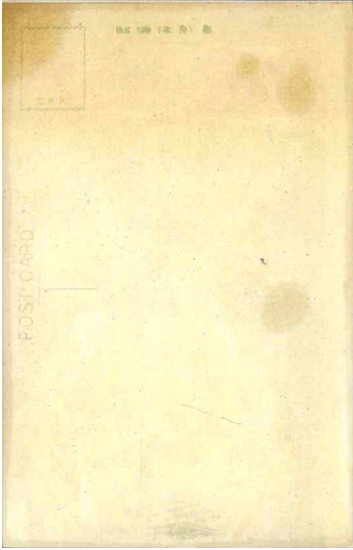
자료번호	濟-KSC-052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OST CARD
우 표	無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外房州名勝) 仁右衛門島 朝鮮海女ノあわび採リ (외방주명승) 니에몬지마 조선해녀의 전복 채취
촬영지	니에몬지마(仁右衛門島)-일본 치바현 보소반도 남부.
인쇄	
발행처	니에몬지마(仁右衛門島), 제주해녀, 조선해녀, 전복, 물질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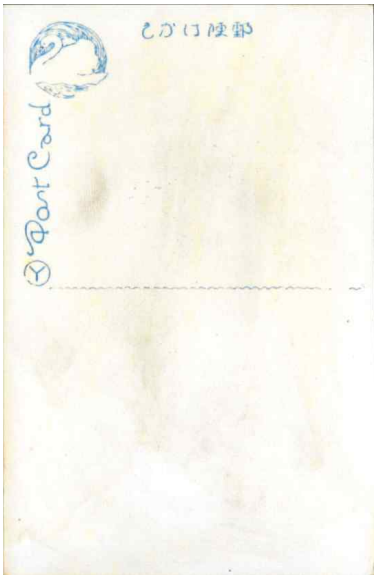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52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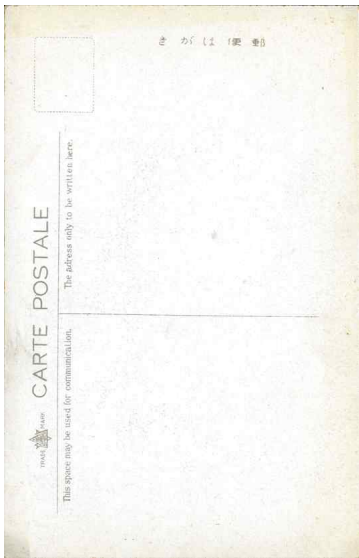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53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절취선 ½ / 郵便はかき
	POST CARD
우 표	無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무제(내용: 해녀10여명 입수 장면)
촬영지	제주도 해안
인쇄	
발행처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제주해녀, 입수, 물질, 물소중이, 공동체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53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きがは便郵  山 琴 漢 島 州 濟・松 八 郵 韓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54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½ 절취/ きがは便郵
	朝鮮八景繪葉書 글자로 엽서면 ½로 나눔
우 표	별(★)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朝鮮八景・濟州島漢琴山 (조선팔경・제주도 한라산)
촬영지	제주시 해안
인쇄	
발행처	京城 東洋オフセット印刷株式會社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조선팔경, 제주도, 명승, 한라산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54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55
사용여부	1937년 5월1일자 제주 소인
엽서표기	절취선 ½ / きがは便郵 / 왕관마크
	CARTE POSTALE
우 표	2錢 우표 후지산
보내는 사람	제주
받는 사람	부산 부민정으로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天池淵ノ瀧(落美七十二尺) 제주도 천지연폭포(落美72척)
촬영지	서귀포 천지연폭포
인쇄	
발행처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제주도, 천지연폭포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55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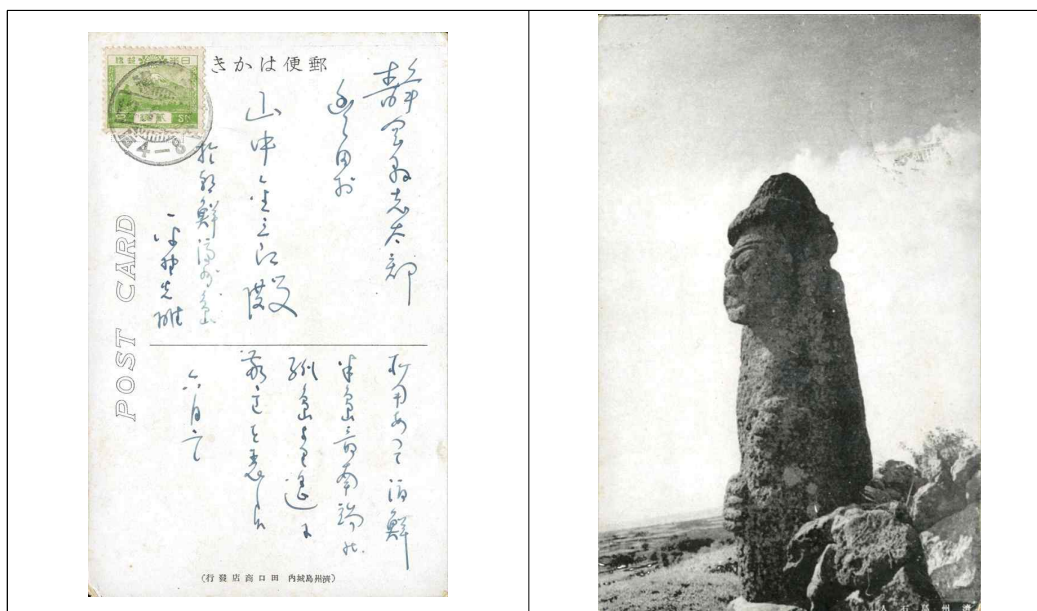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56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Post Card ㉸
우 표	오리 앞은 마크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무제(내용: 대패랭이 쓴 제주여성)
촬영지	제주도
인쇄	
발행처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제주여성, 대패랭이, 노동복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56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III. 재일제주인 고성일氏 사진엽서 컬렉션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57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란 無 / 절취선 ½ / きがは便郵		
	CARTE POSTA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風俗 火田民(제주도 풍속 화전민)		
촬영지	제주도		
인쇄			
발행처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제주화전민, 갓웃(동물 모피), 지팡이, 곰방대, 벥거지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57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왕관 마크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58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절취선 ½ / きがは便郵
	CARTE POSTALE
우 표	Made in Japan 표기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무제(내용: 머리 땀아 내린 소년)
촬영지	제주도
인쇄	
발행처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제주남아, 옷차림, 땀기머리, 땀은 머리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58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59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란: Made in Japan / 절취선 ½ / きがは便郵		
	CARTE POSTA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무제 (내용: 머리 땀아 내린 소녀)		
촬영지	제주도		
인쇄			
발행처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제주여아, 옷차림, 땀기머리, 땀은 머리, 제주민가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59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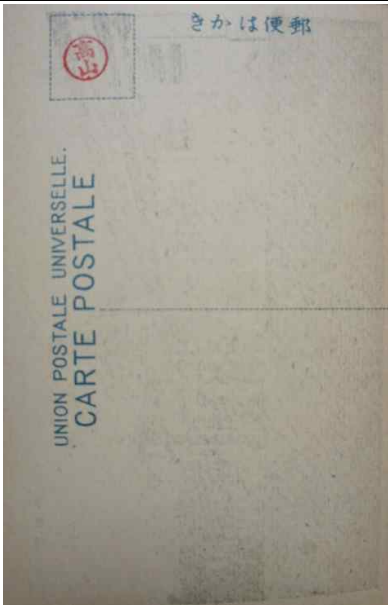
자료번호	濟-KSC-060
사용여부	1937년 ○월 ○일자
엽서표기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POST CARD
우 표	2錢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静岡縣으로
통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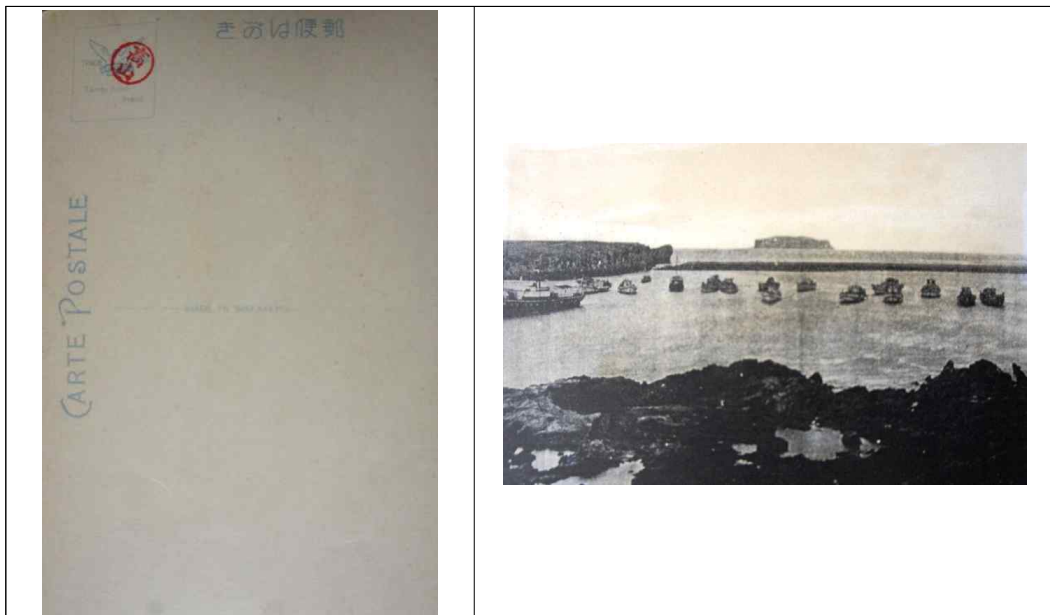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石人(제주도 돌하르방)
촬영지	제주도
인쇄	
발행처	濟州島城內 田口商店發行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석인, 돌하르방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60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61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Union Postale Universelle CARTE POSTA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무제 (내용: 수건 쓰고 앉은 제주여성)		
촬영지	제주도		
인쇄			
발행처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제주여성, 구덕,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61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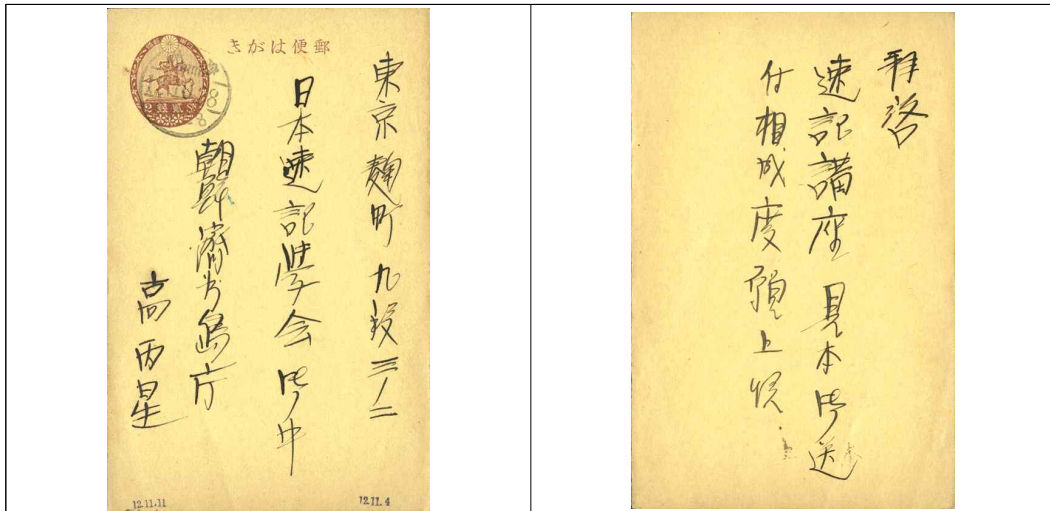
자료번호	濟-KSC-062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MADE IN WAKAYAMA로 엽서면 ½ 절취/ 우표란 : 비둘기 마크+ Taisho Hato Brand /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무제
촬영지	서귀포항
인쇄	
발행처	대정사진공예소(大正寫真工芸所)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서귀포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62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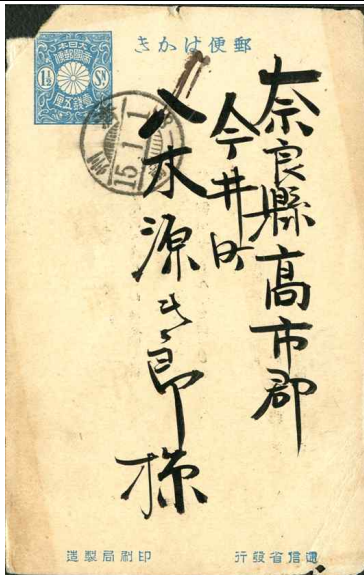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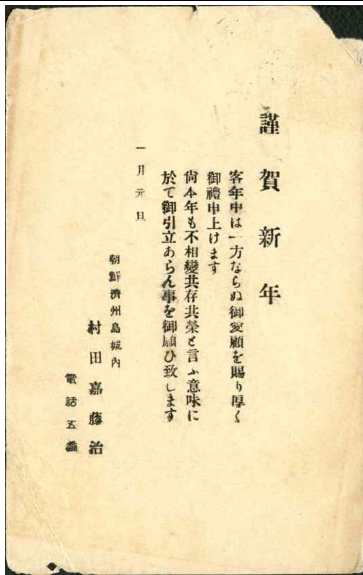
자료번호	濟-KSC-063
사용여부	1937년10월28일자 濟州 소인
엽서표기	절취선 無 / きがは便郵 ※ 엽서 하단 인쇄된 숫자(12.11.11 / 12.11.4)→즉 12는 쇼와12년=1937년. 따라서 1937년11월11일/1937년11월4일
우 표	2錢 말을 탄 장군 스탬프
보내는 사람	濟州
받는 사람	日本東京
통신 내용	속기강좌견보 송부 부탁

서지 정보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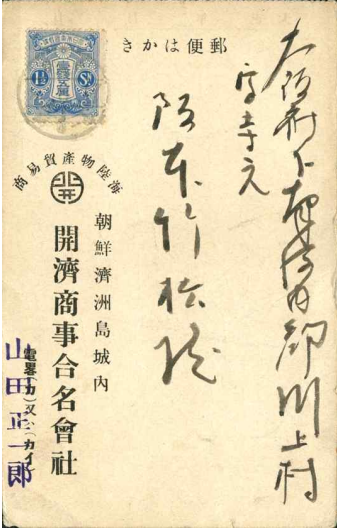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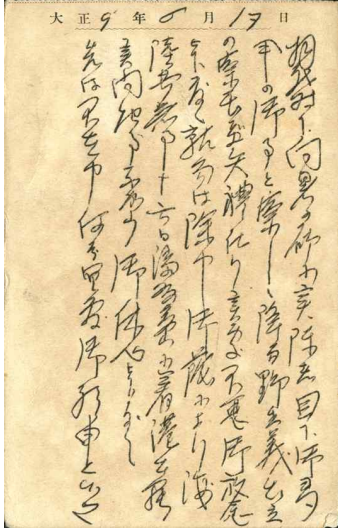
엽서명	무지 관제엽서
촬영지	
인쇄	
발행처	체신성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무지 관제엽서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63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64		
사용여부	T15(1926)년1월1일자 濟州 소인		
엽서표기	절취선 無 / きかは便郵		
우 표	1 錢 5 厘 國畫우표		
보내는 사람	제주성내 村田 송부		
받는 사람	日本奈良縣		
통신 내용	연하장:근하신년		
서지 정보 (뒤)			
엽서명	무지 관제엽서		
촬영지			
인쇄			
발행처	印刷局製造 遞信省發行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키워드(관련어)	무지 관제엽서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64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Ⅲ. 재일제주인 고성일氏 사진엽서 컬렉션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65		
사용여부	大正9(1920)年○월○일자 濟州 소인 / 1920년6월17일 쓴 서신		
엽서표기	절취선 無 / きかは便郵		
우 표	1 錢5厘 다자와 우표		
보내는 사람	제주성내 開濟商事合名會社 山田正一郎 송부		
받는 사람	日本 大阪府		
통신 내용			
서지 정보 (뒤)			
엽서명	무지 관제엽서		
촬영지			
인쇄			
발행처	체신성		
발행연도	사진촬영	엽서발행 연도 1920년 이전	
키워드(관련어)	무지 관제엽서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65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 濟-KSC-066~濟-KSC-073 사진엽서 세부 내용은
보고서 [부록] 고성일氏 제주도 사진엽서 컬렉션 목록 참조할 것.

IV. '근대제주' 이미지 기록의 서막

1. '근대제주'의 구성원들

조선시대 유배의 섬이자, 200여 년간 출륙금지령(1629년~1834년)으로 고립을 면치 못했던 근대제주에는 과연 어떻게 태동되었을까? 역사학자 박찬식은 '근대제주' 사회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20세기가 도래했을 때, 제주도 또한 근대사회로 넘어가기 위하여 꿈틀거리고 있었다. 1876년 개항 이후 제주도는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본인 어부들이 제주도 어장으로 진출하며 제주도 연안 마을에 모습을 나타냈고, 천주교 선교사들이 섬에 들어와 서구의 종교와 문화를 전파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제주도민은 중앙에 바치던 밭, 굴, 전복 등 진상에서 해방되었고, 근대식 행정 체계 및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새로운 행정관리가 등장하고 신학문이 대두하였다.”(박찬식:2013)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이지만, 러일전쟁(1904년)의 시기부터 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인이 공적 업무 또는 상업으로, 또는 관광으로 조선 땅을 밟기 시작했다. 조선주재 일본인은 러일전쟁이 끝난 1905년에 4만 명이었던 것이, 1910년에는 17만 명으로 급증하고, 1944년에는 71만 명에 달했었다. 이 숫자에는 군인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1940년대 전쟁기간 동안에는 군인을 포함하여 백만 명 정도의 일본인이 한반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水野:2010). 물론 이 숫자는 제주에 있는 일본인도 포함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주사회 역시 19세기 후반 이래 전대미문의 격동기를 맞게 된다. 일본인 나잡업자들의 제주 연안 침투, 일본인 상공인들의 진출, 각 분야 일본인 전문연구자들의 방문, 구도심 내 일본인 거주구역의 형성, 제주성을 가로지르는 신작로의 개설, 일본인·중국인들에 의한 상설점포 운영 등으로 섬은 그 제도에서부터 구성원, 직업, 경관 등의 변화를 겪으며 자의

반 타의반 '근대제주' 풍경을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1905년에 펴낸 《조선의 보고: 제주도 안내》에 따르면 1905년 당시 제주성내 일본인 재류자는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1905년경 제주성내 일본인 수

제주성내 일본인	호수	남자	여자
계	7	23	9
1905년경 제주성내 일본인 수 총 32명			

[표 3] 1905년경 제주성내 일본인 직업인 수

영업별	관리	잡화상	해산물 증매	과자상	우편 수취소	여인숙	약국	뱃사람	목수
인원	2	2	2	1	1	1	2	4	1
1905년경 제주성내 일본인 직업인 수 총 16명									

이와 연동하여 1912년 오노 마사오(大野仁夫)가 펴낸 《남선보굴 제주도》에는 제주도내 전역에 걸친 일본인 재류자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표 4] 제주도내 일본인 재류자수(1909~1911)

유형/년도	1909년	1910년	1911년
호수	79	129	145
남자	157	301	370
여자	102	152	179
계	259	453	549

7) 제주도내 일본인 상설점포 업종, 개설시기, 관련 사항 대해서는 《제주도 生活狀態調査》(1929), 《濟州島便覽》(1930), 고영자(2018)<칠성통문화>(《일도1동역사문화지》(2018년 근간) 참조.

그리고 당시 그들의 직업은 관리, 교원, 의사, 기업가(상업, 공업, 어업)가 다수였고, 이 외에 요리업(3명), 작부(6명), 기생(1명), 여관(3명), 이발업(3명)으로까지 생활영역이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구이동과 직업수요야말로 옛 제주의 전통경관이 서서히 근대적 문화경관으로 탈바꿈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음을 여기서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겠다

1937년 제주도청이 발간한 《제주도세요람》에 따르면 한일합방 이후 본도에 거주하는 국적별 인구 수 추이를 비롯하여 1936년 말 당시 제주 시가지 및 주요 지역의 국적별 인구수, 제주지역 직업별 세대수는 다음과 같다.

[표 5] 식민지기 제주도내 인구 추이 / 《제주도세요람》(1937년)

년도별	1916년	1920년	1925년	1935년
일본인	840	724	1,105	1,425
조선인	202,072	200,584	204,314	197,543
외국인	14	28	59	95
계	202,926	201,336	205,478	199,063

[표 6] 1936년 말 제주도내 시가지 및 주요 지역 인구 / 《제주도세요람》(1937년)

인구(수)	제주읍	서귀포	성산포	모슬포	한림리
일본인	718	218	56	28	68
조선인	9,897	1,976	1,070	2,435	2,431
만주인 및 중국인	20	23	18	4	6
기타 외국인	2(남)	-	-	-	-
계	10,637	2,217	1,144	2,467	2,505

[표 7] 1936년 말 제주지역 직업별 세대수 / 《제주도세요람》(1937년)

직업	농림 및 목축업	어업 및 제염업	공업	상업 및 교통업	공무 및 자유업	기타 직업인	무직 및 직업 미신고자	계
세대수	42,305	1,074	375	1,542	901	909	994	48,100

한편, 1929년 발간된 《제주도 생활상태조사》에서는 국적 및 직업별 호수와 인구수(1925년 기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표 8] 1925년 기준 제주도내 직업별 호구표 / 《제주도 생활상태조사》(1929년)

직업/ 인구	농림 및 목축업	어업 및 제염업	공업	상업 및 교통업	공무 및 자유업	기타 직업인	무직 및 직업 미신고자	계
일본인	8	204	68	323	348	154	-	1,105
조선인	185,896	5,413	1,429	4,511	1,822	5,020	223	204,314
중국인	-	-	7	52	-	-	-	59

이상, 근대제주의 탄생 배경과 이를 구성하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들은 근대제주 문화형성의 주도세력이었음과 동시에, 아래에서 논의할 제주도 사진엽서 발행 및 유통의 생산과 소비의 직·간접적 주체일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2. 일본인 시찰 및 조사단

본 장에서는 일본인 시찰 및 조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이들의 특징은 제주방문 당시 많건 적건 제주도 기록사진을 남겼다는 점과, 그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사진들은 동시대 제주도 사진엽서에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화 시기 일제에 의해 식민지 침탈을 당했던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를 기록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에 반해 당시 일본은 자국 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기록사진을 남겼다. 물론 카메라를 소지할 수 있었던 이들은 특정 계층에 속한 인물들이다. 일본인 시찰 및 조사단이 '근대제주'를 담은 대부분의 사진들은 사진 자체의 예술성보다는 제주도 현장 시찰과 보고를 최우선시한 기록성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카메라를 둘러메고 제주 땅을 밟은 일본인들은 어떤 이들이었으며, 그들의 시선에 제주는 어떻게 비쳤던 것일까?

사진 이미지와 함께 제주를 본격적으로 다룬 서책으로는 앞서 언급한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銅太郎)의 《조선의 보고: 제주도 안내》(1905년)와 오노 마사오(大野仁夫)의 《남선보굴 제주도》(1912년)가 이다.

《조선의 보고: 제주도 안내》의 경우, 제주의 역사, 지리, 교통, 풍토, 농림 수산업 관련 안내와 함께 홍종우 제주목사와 제주도 부인의 복장, 제주 역사 유적지 등 제주에 관한 8매의 머릿그림을 수록하고 있다. 저자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아오야나기(靑柳)는 1901년 서울에서 반년 머물고, 때마침 제주도 민란(이재수의 난) 소식이 있어 벗과 함께 목선에 탑승하여 제주에 왔었다. 그가 이곳에 왔을 때는 민란이 평정되어 있었다 한다. 그는 또한 제주에 십수일 머물면서 민정(民情) 및 풍속 등을 유래를 고찰하고 그 정황을 약간 조사·기록해 두었고, 이후 체신청의 말단관리가 되었다는 점과 1905년 봄 공무로 다시 제주를 찾아 지난날의 기록을 보완, 편집하여 책자로 내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남선보굴 제주도》는 저자 오노(大野)가 본도를 1년 남짓 실사하고 그 견문을 탐구하고 기록한 책이다. 제주도 지세와 역혁, 풍속, 인정, 명승, 고적에서부터 각종 생산품과 그 생산액 등, 적어도 본도에 관한 기본 정보와 당시 현황을 담은 제주도 안내책자다.

이후, 일본인들 사이에 제주의 소개가 본격화 되면서 조사차 제주를 방문하고 사진자료도 함께 남긴 일본인 조사·시찰단들이 증가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①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870~1953, 인류학자)

1914년 5월 제주도 현지조사 차 내도해서 당시 제주도 인물·토속·유적 등을 촬영하였다. 도리이 류조에 대해서는 본 장 <4. 제주도 사진엽서 유통과

역할>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② 후지시마 카이지로(藤島亥治郎, 1899~2002, 고건축학자)

이와테현 출신의 후지시마는 전후 자타가 공인하는 일본 최고의 고건축학자다. 1922년 경성고등공업학교(서울공대 전신)에 건축학과가 개설되면서 조교수로 부임한 그는 조선총독부 기사(技師·일종의 건축사)를 겸했고, 도쿄(東京) 제국대학 공학부 건축학과 스승인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지도 아래 조선건축사를 본격적으로 배웠다. 제주에는 1925년 4월2일~11일까지 10일 정도 머물렀고, 귀경 후 《조선과 건축》(일본어)이라는 잡지에 <제주도의 건축>이라는 타이틀로 4회 연재(1925년6월호~9월호)를 했다. 당시 제주도 민가의 도면과 제주성내 사진도 함께 실려 있다. ☞ 후지시마: 제주성내 사진 촬영.

③ 첸쇼 에이스케(善生永助, 조선총독부 촉탁)

첸쇼 에이스케는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조선의 생활상태조사(취락, 의식주, 관혼상제, 사회조직, 문화, 경제기구 등)를 수행했고, 제주도 역시 그 조사 대상이 되었다. 1929년 12월에 간행된 《生活狀態調査》(2) 제주도편 총설에서 첸쇼 에이스케는 수록된 내용과 사진들이 대체로 1927년~1929년에 걸쳐 총독부 직원의 출장조사 및 제주도청의 보고에 의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현재로서는 첸쇼 에이스케가 당시 직접 내도했었는지, 내도했다면 언제,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 첸쇼 에이스케: 제도도 주요 시가지 사진 외 다수.

④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1891~1968, 조선총독부 촉탁)

니이가타현에서 출생한 무라야마 지준은 동경제국대학 철학부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졸업(1919년)과 동시에 조선으로 건너와 1941년까지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근무하면서 10여 권의 책을 출간했다. 조선 체재 당시 주요 저작으로 《조선의 습속》(1929년), 《조선의 귀신》(1929년), 《선의 귀신》(1929년), 《조선의 풍수》(1931년), 《조선의 巫覡》(1932년), 《部落祭》(1937년) 등이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촉탁(囑託)으로 활약했던 무라야마 지준은 1931년 10월에 제주도를 방문하여 조사·촬영을 하였다. ☞ 무라야마 지준: 제주의 점속(占俗), 굿, 해녀, 목축 등 다양한 풍속 사진.

⑤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1915~1970, 민속학자)

동경에서 출생한 이즈미 세이치는 당시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부친을 따라 일찍이 조선 경성으로 건너와 학업을 이어갔다. 그는 생애 문화인류학과 민속학 관련 저서와 갖가지 현장 조사(필드 워크) 기록을 남겼다. 이즈미 세이치가 제주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35년 여름이었다. 수 주간 제주도민들의 생활과 자연을 조사하던 차에, 지금까지 겨울에 눈 덮인 한라산을 오른 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동년 12월에 한라산 적설기 등반차 경성제대 산악부팀 선발대장으로서 제주에 다시 오고, 1936년 1월 1일 한라산 정상에 등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후 1965년 30년 만에 제주를 재방문했고, 그것을 토대로 《濟州島》(1966년, 동경대학출판부)라는 방대한 연구서를 사진 자료와 함께 출간했다. ≡ 이즈미 세이치: 제주도 삼다(三多) 및 우도, 대흘리 마을 사진 외 다수.

⑥ 마스다 이치지(梶田一二, 1895~1974, 지리학자)

마스다 이치지는 일본 도쿠시마(徳島)출신으로 지리학자이며, 릿쇼(立正)대학 문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1930년대에 제주를 수차례 오가며 조사하여 제주의 인구, 지리, 취락, 해녀, 용천수 등을 상세히 연구하며, 다수의 논문을 남긴 인물이다. 제주 관련 논문으로는 당시 사진 자료와 더불어 <제주도 해녀의 지지학적 연구>(1934년), <제주도에 있어서 축산의 지지학적 연구>(1934년), <제주도 취락의 지지학적 연구>(1939년) 등이 있다. 나중에 이들 논문은 《梶田一二 지리학 논문집》(1976년, 東京: 弘詢社)에 재수록 되었다. ≡ 마스다 이치지: 산지향 입출항 광경 및 취락, 해녀, 용천수 사진 외 다수.

⑦ 다카하시 노보루(高橋 昇, 1892~1946, 조선총독부 근무) : 1919년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수원지장 근무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말까지 조선에서 근무했다. 그는 당시 한반도 전 지역에 걸친 작부방식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37년에서 1943년까지 한반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조선의 작부방식에 대해 조사 및 촬영을 하였다. 제주에는 1939년 5월에 와서 제주시가 및 한림부근 옹포리, 명월리, 그리고 서귀포 일대를 조사·촬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기구 스케치, 400여장의 농촌 풍경사진 및 방대한 필드 노트를 남겼다. ≡ 다

카하시 노보루: 제주시가지, 농업현장, 농기구, 서귀포 해녀 등 다수.

3. 제주도 사진엽서 발행원

일제강점기 제주도내 사진엽서 발행원은 현재 전해지는 사진엽서를 근거로 확인·추정이 가능하다. <고성일 컬렉션>에서는 ① 츠노·다케야츠(角健輔) 경영 반지점(伴支店), ② 사이고·다케도(西郷武十) 경영 사이고상점(西郷商店), ③ 문방구 취급으로 알려진 다구치상점(田口商店), ④ 제주도청, 이상 4곳이 당시 제주도 사진엽서 발행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외 히노데 상행(日之出商行)과 대정사진공예소(大正寫真工芸所)를 들 수 있는데, 이 2곳은 제주도 밖에서 제주도 사진엽서를 발행했던 엽서 발행원들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주 반지점 (伴支店, 제주시 칠성통)
- 2) 서귀포 사이고상점 (西郷商店, 서귀포)
- 3) 제주 다구치상점 (田口商店, 제주시 칠성통)
- 4) 제주도청 (현, 제주목관아 내)
- 5) 히노데상행(日之出商行, 京城)
- 6) 대정사진공예소(大正寫真工芸所, 일본 와카야마)

다만, 제주도내 사진엽서 발행원인 1)~4)점포가 엽서기획, 사진촬영, 엽서제작, 인쇄, 판매라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엽서발행에 관여했는지는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들 상호가 인쇄된 사진엽서가 당시 도내·외에 판매·유통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 주의하면서 위 제주도 사진엽서 발행원에 대해 아래에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1) 제주 반지점(伴支店, 현 제주시 칠성통)

☞ 제주 반지점(伴支店) 발행 제주도 사진엽서 내용은 본고 II. <고성일 컬렉션> 제주도 사진엽서 서지정보 중 자료번호 濟-KSC-001~濟-KSC-021 참조.

제주도 반지점(伴支店) 발행 사진엽서는 당시 제주도 사진엽서를 대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매 1조'로 2종류 발행되었다. <고성일 컬렉션> 72점 중 처음 20장은 반지점(伴支店) 발행 사진엽서에 해당한다. 1910년 전후 제주도의 농업, 어업, 목축, 농기구, 무속, 시가, 시장, 급수사정 등 다방면에 걸친 제주풍속이 20장의 엽서에 각각 소개되고 있다. 세부내용은 앞으로 연구할 가치가 높다. 다만, <고성일 컬렉션>에는 없지만, 반지점(伴支店) 발행 또 다른 제주도 풍속을 담은 '20매 1조' 사진엽서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 조사·발굴 대상 1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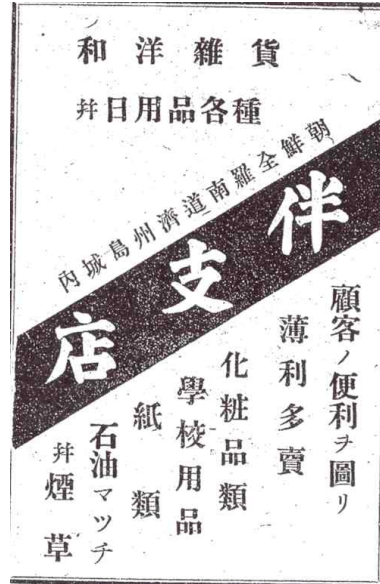
반지점(伴支店) 사진엽서에 대해 일본 간사이(關西) 엽서회 회장 히라카와 씨(2018년 5월26일 면담 중)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이들 엽서들은 일본에서 인쇄되었을 것이다. 콜로타입 collotype 인쇄기술이 그 증거다. 콜로타입 인쇄는 사진 미술 인쇄에 적합한 원판을 중시한다. 당시 제주에 평판인쇄기 도입 여부도 관건이다.

반지점(伴支店)은 일본인 츠노·다케야츠(角健輔)가 운영한 상점이다. 그는 1910년 11월 28일 학부편찬 교과용 도서 발매인으로 허가를 받았다. 주소는 제주군 중면 일도리로 되어있다. 이를 계기로 <伴支店發行>엽서 시리즈도 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츠노·다케야츠는 1882년경에 태어났다. 조선총독부 관보(1904년)에는 오사카부 평민 출신으로 소개되고 있다. 1909년부터 장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1920년대~해방 전까지는 제주에서 일본인·조선인 사업가들과 네트워크를 넓히며 운수업, 목재업, 금융업, 잡화상 등 모든 경영에 참여했다.

[도판 14]는 《南鮮寶窟 濟州嶋》(1912년)에 나오는 반지점(伴支店)광고다. 잡화양화 겸 일용품 각종을 비롯하여 화장품, 학교용품, 종이류, 석유 성냥 및

연초까지 취급한다고 나와 있다. 이 중 '학교용품'이 학부편찬 교과용 도서 발매와 관련 있어 보인다. 그 연장선에서 제주도 사진엽서도 발매했을 것이다.



[도판 14] 제주 반지점(伴支店) 광고 《南鮮寶窟 濟州嶋》(1912)

한편, 1930년대 광고에서는 반지점(伴支店)은 사라지고, 합자회사 형태의 도매상인 반상점(伴商店)이 등장한다. 광고에는 츠노·다케야츠(角健輔) 이름이 대표사원으로 소개되고 있다.



[도판 15] 1930년대 제주 반상점(伴商店) 광고 《제주도세요람》(1939)
(우측)일제강점기 반상점(伴商店) 모습. 해방 후 한양상회가 입점했다.

미곡·주류·석탄·문구류 등을 판매하였다. 위 광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츠노·다케야츠는 해운업과 목재상도 겸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포는 해방 후 '한양상회'가 됐다.

2) 서귀포 사이고상점(西郷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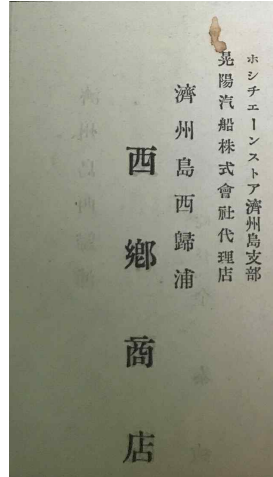
☞ 서귀포 사이고상점(西郷商店) 발행 제주도 사진엽서 내용은 본고 II. <고성일 컬렉션> 제주도 사진엽서 서지정보 중 자료번호: 濟-KSC-022~濟-KSC-029 참조.

사이고상점(西郷商店) 대표 사이고·다케도(西郷武十, 1873~)는 일제강점기 서귀읍 666-4번지에 주소를 두면서 목재, 금융 모든 사업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그는 초창기 제주도 표고버섯 재배자로 알려졌다. 그는 일본 오이타현(大分縣)에서 태어나 18세 때부터 버섯재배에 발을 디뎠으며, 1900년 한반도의 여러 곳을 시찰하여 최적지로 제주도를 발견했다.

조선 정부에 표고버섯 영업권을 출원한 결과 1905년부터 15년 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원재료의 불하(拂下)를 얻었다. 일본 향리의 숙력공 250여 명과 또 많은 한국인을 고용하여 대대적인 기업 경영에 착수하였다. 특히 1906년 11월에 기술자 다나카(田中長嶺)을 본국에서 초청, 조선정부로부터 표고 자체를 불하받아 대대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우수한 제품을 중국·일본 등지로 수출, 제주 표고버섯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다.

생산물 처리를 위해 그로서는 서귀포 축항 시설이 급선무였다. 그는 서귀포 항기성회 회장이 되어 서귀포 주민과 함께 도 지방비 보조금을, 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얻어내어 1926년 서귀항을 준공, 또 상수도 공사를 시공하여 이를 성공시켰다. 1927년 버섯재배업 경영을 그만두고 수입 매약상(賣藥商)을 개업, 재력은 더욱 늘어났다. 이로써 제주도일본인회 평의원, 제주학교조합 평의원, 서귀포금융조합 감사, 서귀면협의회 의원 등에 선출되었다.

1926년에는 서귀포항에 고래공장도 설립되었다. 당시에는 포경선이 있어 연간 50~60마리 고래를 잡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은 1909년 동양포경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미 울산, 장전, 대흑산도, 거제도, 대청도 등에 점차 사업장을 확대·운영하고 있던 차였다.



[도판 16] 서귀포 사이고상점(西郷商店) 광고 《제주도세요람》(1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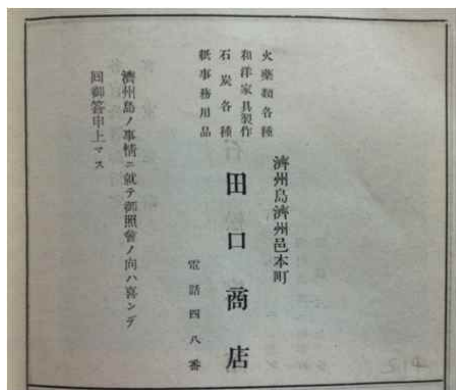
[도판 16]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고상점은 서귀포항을 무대로 기선(汽船)회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서귀포항에는 고래공장도 이미 설립 완료된 상태였다. 이런 시대적 맥락에서 사이고상점은 당시 서귀포항 발전 상황을 사진엽서에 담아 널리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엽서 앞면에 “きがは便郵”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1933년 2월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서귀포 고래공장 터는 해저 관광유람선 대합실 및 선착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근에 1933년에 세운 <포경선조난추도비>가 있다.

3) 제주 다구치상점 (田口商店, 제주시 칠성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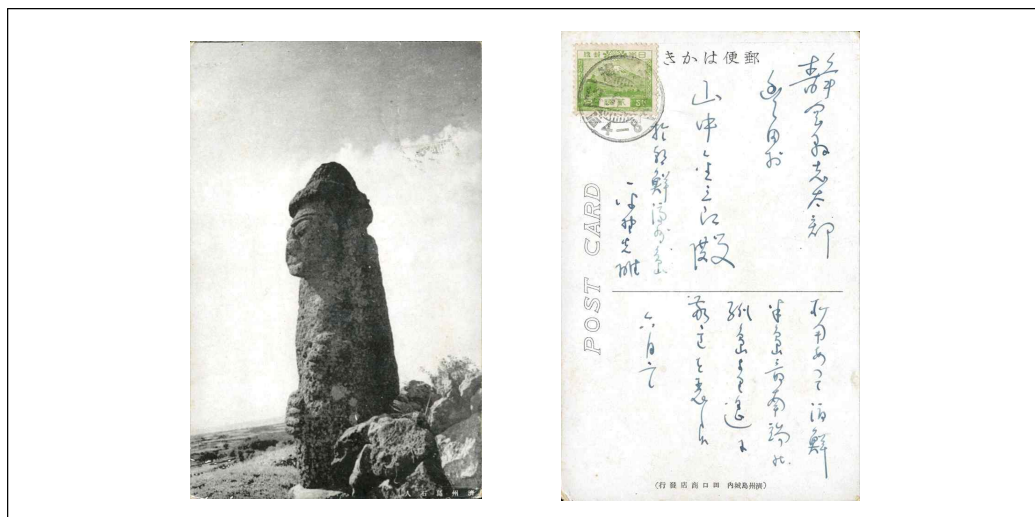
다구치상점(田口商店)은 지금의 칠성통 자리(훗날 아리랑백화점 자리/1973년 개점)에 잡화상이자 사진집 발행소를 겸했던 상점이다. 예를 들어, 1929년 제주도삼림조합 발행 《제주사진첩》의 발행소가 田口商店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책자의 인쇄는 오사카에 있는 久納 인쇄공장, 인쇄자는 우에니시(上西竹造)였다. 다구치(田口)상점은 《제주도편람》(1930년)에는 문방구 파는 곳으로 소개되고 있다.



[도판 17] 제주 다구치상점(田口商店) 광고 《제주도세요람》(1939)

《제주도세요람》(1937년) 광고에도 소개된다. 이에 따르면 석탄, 가구류, 和洋紙, 사무용품을 취급했다. 同紙 1939년 광고에도 나오는데, 화약류 각종, 和洋가구 제작, 석탄각종, 사무용품 취급점으로 소개되고 있다.



[도판 18] 제주 다구치상점(田口商店) 발행 사진엽서 (자료번호: 濟-KSC-060)

[도판 18]은 다구치(田口)상점 발행 사진엽서다. 엽서 뒷면에 사진 제목으로 '濟州石人', 앞면에는 '제주도 성내 田口商店 발행'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이 엽서는 1937년6월○일 소인에 2전 우표가 붙여져 일본 시즈오카현(靜岡縣)으로 발송된 것이다. 본 사진엽서 또한 발행연도 추정 기준에 근거해 보면 그 당시에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田口商店' 발행 사진엽서는 이 한 장이 유일하다. 당시, 이 한 장만 발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향후 조사·발굴이 요망된다.

4) 제주도청(濟州島廳: 일제강점기 제주목관아 내)

☞ 제주도청 발행 제주도 사진엽서 내용은 본고 II. <고성일 컬렉션> 제주도 사진엽서 서지정보 중 자료번호: 濟-KSC-030~濟-KSC-035 참조.

<고성일 컬렉션> 중 제주도청 발행 제주도 사진엽서는 6매 있다. 이들 또한 연구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칼라 채색된 점, 제주도내 명소 2~3곳이 한 면에 동시에 소개되고 있는 점, 제주를 소개하는 문구도 포함된 점, 읍셋칼라로 인쇄된 점 등, 이번 수집된 다른 엽서들과는 내용면·형식면·기술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도판 19]에서 보는 것처럼 원래는 7매 1조로 엽서 겉봉도 따로 있었다. <고성일 컬렉션>에는 엽서 1장 및 엽서 겉봉이 누락되어 있다. 만일 발행원 표시가 된 엽서 겉봉이 없었더라면, 이들 사진엽서의 경우는 발행원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도판 19] 濟州島廳 발행 사진엽서 7매 1조(일본 인터넷 자료)

발행 연도와 관련해서, 엽서에 소개된 사진들 중에는 1929년 발행 《生活狀態調査》에도 나온다. 또 <고성일 컬렉션> 자료번호: 濟-KSC-031은 사용된 엽서로, 1928년 3월 21일자 소인이 찍혀 있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본 제주도청 사진엽서 시리즈 7매는 1928년 3월 이전에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表

裏



[도판 20] 제주도청 발행 사진엽서
(일본국제문화연구원 · 山本俊介 소장자료: 日文研3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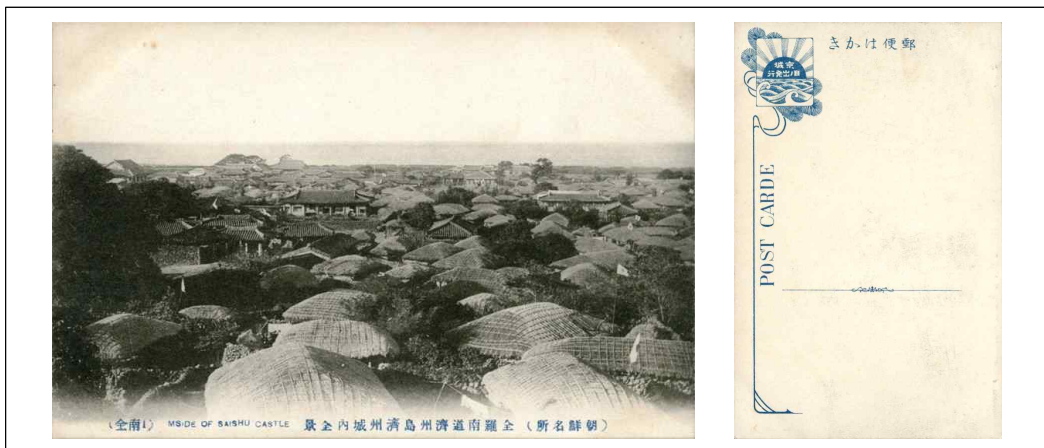
[도판 20]은 <고성일 컬렉션>에서 누락된 제주도청 발행 사진엽서 1장이다. 이것은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연구원 야마모토 순스케(山本俊介) 소장 사진엽서다. 여기에는 제주도 성내전경, 삼성혈, 은어의 명소 외도천 3곳 사진이 실려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島廳 發行 제주도 사진엽서의 경우는 1918년~1928년 사이 ○○도사(島司) 집권 시, 어떤 정책, 어떤 규모로 이러한 엽서를 발행했는지를 추적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5) 히노데상행(日之出商行)

히노데상행(日之出商行)은 조선 사진엽서 발행원으로 가장 명성이 있었다는 점은 본고 II. 3. <조선> 주제 사진엽서 발행원에서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고성일 컬렉션>에 있는 히노데상행 발행 사진엽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총 3점이 발견된다. 3점 중 1점은 '조선명소' 시리즈 중 '전라남도 제주도 제주성내 전경'(자료번호: 濟-KSC-037)이고, 나머지 2점(자료번호: 濟-KSC-068 및 濟-KSC-069)은 '조선풍속' 시리즈로 나온 것이다. '전라남도 제주도 제주성내 전경' 사진엽서는 [도판 6]에서 (I)로고 마크가 찍혀 있으며, '조선풍속' 시리즈 2점은 [도판 6]에서 (H)로고 마크가 찍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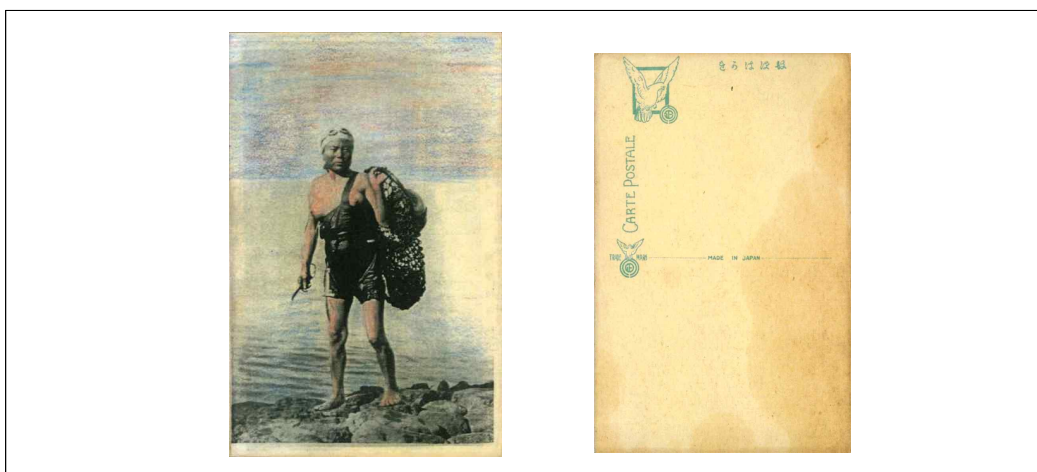
[도판 21] (조선명소) 전라남도 제주도 제주성내 전경 (고성일 컬렉션 / 濟-KSC-037)



[도판 22] (조선풍속) 부인들의 빨래 (고성일 컬렉션 / 濟-KSC-069)

6) 대정사진공예소(大正寫眞工芸所)

대정사진공예소에 관련해서도 본고 II. 3. <조선> 주제 사진엽서 발행원에서 소개하였다. 여기서는 <고성일 컬렉션> 중, 대정사진공예소 발행 제주도 사진엽서 1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도판 22] 제주해녀 사진엽서(고성일 컬렉션 / 濟-KSC-049)

본 사진엽서에 등장한 제주해녀는 원래 흑백사진의 주인공으로 1930년 이전에 촬영된 것이다. 이 사진은 당시 제주도 해녀를 알리는 출판물, 즉 신문, 잡지, 서적, 홍보물 등에 널리 실렸다.

1930년 발행 《日本地理風俗大系》 '제주도편'에 위 해녀 사진이 페이지 가득 큰 사이즈로 사진설명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그 내용을 우선 옮겨보자.

“강인한(逞しい) 해녀여 날씨가 참 좋구려 해녀여 오늘도 또 물속의 진미를 캐오시게. 제주도의 연안은 해저지형과 해류 조건이 좋아서 해산물이 풍부하다. 여기는 해녀의 활동무대다. 튼실한 육체를 소중이로 감싸고, 머리도 수건으로 질끈 동여매고, 눈(수경)도 다 준비되었다. 어서 물속으로 들어가시게. 집에서 기다리는 서방님과 아이들을 위하여”(仲摩:1930:69쪽)

제주해녀는 이전 시기부터 일본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이처럼 포토 포엠(사진+글) 형식의 생생한 묘사는 매우 드문 예라 할 수 있다.

아무튼 이 해녀사진이 대정사진공예소가 발행 사진엽서에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다만, 당사 발행 사진엽서에서는 원판 흑백 사진에다가 칼라 채색을 하여 수채화 같은 느낌을 주고 있으며, 원래 사진보다 훨씬 따뜻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사진엽서 한 장으로도 일본 와카야마에 본사가 있는 대정사진공예소의 취향과 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풍경사진 풍의 이미지 선호와 선진화된 인쇄기술(석판인쇄→콜로타입 인쇄→오프셋 칼라인쇄로 진화)로 기존 사진엽서와는 시각적으로 다른 볼거리를 추구하려했던 흔적이 읽혀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품의 가치도 높아진다.

물론 이 한 장으로 '대정사진공예소 발행 제주도 사진엽서'가 이러하다 저러하다는 평가하는 것은 설부르다. 다만, 이 한 장의 사진엽서를 계기로 앞으로 당사 발행 사진엽서가 발굴된다면 제주도 사진엽서를 분석하는 시각이 훨씬 다양하고 깊어질 것임엔 분명하다.

4. 제주도 사진엽서 유통과 역할

1) 일제의 식민지 현지조사와 사진기 도입

메이지유신(1868년)을 계기로 일본은 구미(歐美)와 어깨를 겨룰 일환으로, 다른 모든 아시아 나라보다 앞장서서 서구의 제도와 문화를 도입하였다. 특히 새로운 서양학문의 도입으로, 일본사회의 시선은 점차 세계를 향하게 되었다. 거기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본은 대만, 요동반도, 조선반도, 만주(중국 동북부), 가라후토(樺太), 쿠릴(千島)열도, 남양제도로 까지 영토 확장을 꿈꾸게 된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그때까지 일본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었다.

이러한 사회정세 속에서 일본인은 자신과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서양학문, 즉 인류학 및 고고학, 민족학 및 민속학, 언어학을 배운 일본인 학자들은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나라 및 지역으로 가서 그들이 원하는 학문이론 정립과 유포에 공을 들였다. 이들 분야 초창기 일부 학자들은 군사력까지 동원하며 현지 조사를 감행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탈맥락적인 연출·분장도 기꺼이 감행하며 해당 민족의 문화 및 신체 표본을 촬영하였다. 그 중에는 제주도 현지조사도 포함되었다.

당시, 일본인 인류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870~1953) 일행의 동아시아권 현지조사는 해당 식민지 지(知)를 확립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도리이 류조는 쓰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⁸⁾ 교수 주재 동경제국대학 인류학 교실의 표본정리계(標本整理係)에 취직한 후(1893년), 일본 최초로 인류학의 현지 조사를 해외에서 실행한 제1세대 인류학자로 정평이 나있다. 그는 1895년 요동반도 현지 조사를 시작으로, 1896년에는 대만⁹⁾ 선주민 조사, 이후 쿠릴열도, 중국 서남부, 몽고, 한반도, 시베리아, 나아가 중남미까지 폭넓게 현지

8) 쓰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 1863~1913): 일본 명치시대(1868~1911) 인물로 일본 인류학의 선구자. 민속학, 고고학을 아우른 영국식 인류학을 제창한 인류학자. 동경제국대학 인류학 교실을 창설하여 주재(主宰)하였다.

9) 청일전쟁 직후 얻은 일본의 새 영토, 즉 식민지 차원에서 대만 조사.

조사를 벌이게 된다.

도리이 류조에 의한 한반도 현지조사는 1911년~1915년까지 6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한일병합 후, 조선총독부는 교과서 편수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던 차, 도리이 류조를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선발, 그에게 체질인류학·민속학·고고학 등 여러 방면에 걸친 한반도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때 도리이는 인류학뿐만 아니라 석기 및 고분 유적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때, 일본인 고고학자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1868~1935)¹⁰⁾가 세운 가설(예, 대동강 유역 고분 관련)과 다른 입장을 취해 서로 대립하기도 한다.

도리이 류조는 1896년 대만 선주민 조사 때부터 사진기를 지참, 현지조사에 처음으로 사진촬영 수법을 도입하였다. 당시 인류학자의 손에 쥐어진 사진기는 '관찰중시' 나아가 '입증중시' 태도의 실증적 연구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중요한 도구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반도 전국 각지 풍속, 생활, 유적, 의례 등을 담은 사진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1911년 봄 한반도 1차 조사 때, 도리이는 사진촬영자 이노우에 다쓰조우(井上達三)와 조수 역에 신슈(信州) 출신의 역사가 구로이와 에이지(黒岩英次)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¹¹⁾

한반도 제4차 조사에 해당하는 1914년 5월, 도리이 류조는 남해안 일대와 제주도 현지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때는 사진촬영자와 조수 이름이 명시되지 않고 있지만, 도리이 일행은 타 지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현지조사 성과를 사진과 함께 남기고 있다.

가령, 제주도 발행 사진집 《제주 100년》(1996)에 소개된 사진들 중, <조천

10)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1868~1935): 특히 건축전문가로서 1902년 조선의 고건축물 조사를 시작으로, 1909년~1911년까지 고적조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를 그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참조: 성균관대학교 박물관(2012), 《유리원판에 비친 한국의 문화유산: 식민지 조선의 고적 조사》.

11) 鳥居龍藏(개정증보판: 2006), 《ある老學徒の手記》 p. 154.

리 체격 측정 남자 10명>([도판 23]), <오조리 여자 10명>([도판 24]), <제주 해녀 10명> 제목의 사진들은 도리이 류조 일행이 1914년 내도하여 촬영한 것 들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 사진의 촬영배경, 촬영시기, 촬영 이유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연구, 언급된 바가 없었다.



[도판 23] 조천리 체격 측정 남자 10명



[도판 24] 오조리 여자 10명

이들 사진이 1914년 도리이 류조 일행이 찍은 사진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단서는 도리이 류조의 필드 노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리이 류조는 1910년 한반도 제1차 조사(함경도) 때부터 방문지역의 토착민 신체 촬영을 중시, 지층 분석으로부터 인골측량 등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시키는 학문적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함경도 각지에서 인류학적 생체측정을 하였다. 이것은 그 지방의 순수한 토착 남녀 10인으로 정하고, 연령은 20세~30세까지로 한정하였다. 신체 측정 뿐만 아니라, 신체 모든 부분 즉, 피부색, 머리, 얼굴, 머리카락, 눈, 귀, 코, 털 등도 관찰하였다. 이 작업은 향후 조선 모든 지방 조사에서 행할 생각이다. 즉, 조선 전도에 걸쳐 이러한 연구를 펼침으로써 조선인이라는 결론에 적합한 인류학적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¹²⁾

도리이 류조 자신 메이지의 인류학은 이과계에 기초한 서구 인류학이며, 인

12) 鳥居龍藏(개정증보판: 2006), 《ある老學徒の手記》 p. 157.

류학자는 자연과학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초창기 현지조사에서 첫 번째로 연구해야만 하는 항목으로 인종의 형성, 그 최초의 형성 지역 및 분포로부터 인종상의 유전 등을 보고 그 다음은 인종의 신체상 차이, 더 나아가 신체의 각 부분 연구를 들고 있다. 그 다음으로 심적 상태(Mental characters)인데, 그것은 “인종의 언어, 신화, 유적, 전설, 역사, 토속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았다(전성근:2007, 434쪽 참조). 이와 같이 현지인 생체측정에서 토속문화에 까지 도리이 류조의 관찰·조사범위는 매우 폭넓었다.

이 연장선에서 도리이 류조가 제주도 토속제약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도판 25]는 앞서 언급한 제주도 발행 사진집 《제주 100년》(1996)에 소개된 사진으로, 이는 다름 아닌 1914년 도리이 류조가 제주도 현지조사 때 촬영한 것이다. 하지만 사진집 《제주 100년》엔 이들 사진의 핵심 내용인 촬영배경, 촬영시기, 촬영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 설명 없이 단편적인 장면 해설에 그쳤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이 사진은 1999년 문무병 박사에 의한 제주도 전통축제 <탐라국입춘굿놀이>의 복원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도판 25] 관덕정 마당에서의 한 판 입춘굿 놀이

도리이 류조는 1914년 제주도 현지조사를 통하여 제주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필드 노트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남해안 다른 지방과 다른 독특한 풍습이 있다. 예를 들어, 배를 물에 띄우는데 표단(瓢簞, 표주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 옛 기록에 나오는 표공(瓢公)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제주도에는 감귤류도 식생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다. 또 남녀가 가면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제의를 행하는 풍습 또한 매우 흥미롭다. 이 제의는 나를 위해 개최하여 보여주기도 했다. 제주도 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 등, 이 모든 것에 옛 탐라왕국의 그림자(面影)가 드리워진 듯했다.”¹³⁾(밑줄은 필자)

위 노트에 따르면, [도판 25]는 도리이 류조의 제주도 현지조사 때 도리이 류조의 연구와 촬영을 위하여 일부러 개최했던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위 사진은 ‘새 철 드는 날’인 입춘 때 이루어진 진짜 제의가 아니라, 입춘 날과 관계없는 1914년 6월 초 전후 도리이 류조를 위해 제주도 남녀가 무단이 관덕정 마당에 동원되어 시연된 특별 행사였던 것이다.

사실, 도리이는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하나라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주창하며 일본에 의한 조선 합병을 당연한 것¹⁴⁾으로 여겼던 인물이다. 그런 배경에서 도리이의 식민지 현지조사는 외형적으로는 엄밀한 관찰과 객관적인 지식의 확립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제국주의의 영토 확장 및 식민지 정당화와 연동한 조사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 일본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도리이의 현지조사는 “순수한 학문적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라 해도, 침략에 편승한 측면은 부정할 수 없을 것”(西川:1970/전성곤:2007)이라 지적하고 있다. 거기다 그는 현지 상류층 권력자의 도움과 행정관 그리고 군인들의 힘을 빌려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서의 촬영도 예외는 아니었던 듯, [도판 25] 행사 날 촬영된 다른 사진에는 검은 복장을 한 군경들이 군중들 사이에 보이기도 한다.

13) 鳥居龍藏(개정증보판: 2006), 《ある老學徒の手記》 p. 167.

14) 《鳥居龍藏全集》12卷、p.538.

어쨌든 도리이 류조 등이 한반도 현지조사에서 찍어 놓은 민속·인물·유적 사진자료들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들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와 제주도 사진엽서

본고 제2장에서 소개했듯이, 일제강점기 제주도 사진엽서들은 다양한 주제, 목적, 배경에서 발행되고 유통되었다. 그 중 본장에서는 도리이 류조와 관련한 제주도 사진엽서 3장에 대해서 소개함으로써 당시의 사진엽서의 유통과 역할의 단면을 엿보기로 한다. 20매 1조로 구성된 제주도 반지점(伴支店) 발행 사진엽서 중, 도리이 류조 일행이 촬영한 것으로 확실시 되는 2장의 사진엽서가 있다. (<고성일 컬렉션> 濟-KSC-002와 濟-KSC-018에 해당).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02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民ノ飲料水運搬ノ景 (2) (제주도민의 음료수 운반 광경)		
촬영지	제주도		
인쇄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사진촬영 1910년대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물허벅, 구덕, 제주여자, 아이들, 돌길, 돌담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02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2) /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일행 촬영 추정.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KSC-018
사용여부	미사용
엽서표기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島妓生ノ手踊(18) (제주도 기생들의 춤)
촬영지	관덕정 앞
인쇄기술	흑백, 콜로타입
발행처	伴支店發行
발행연도	촬영연도 1914년, 엽서발행 연도 1920년대 전후
관련어	관덕정, 기생춤, 입춘굿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KSC-018
소장처	<고성일 컬렉션>
비 고	伴支店發行(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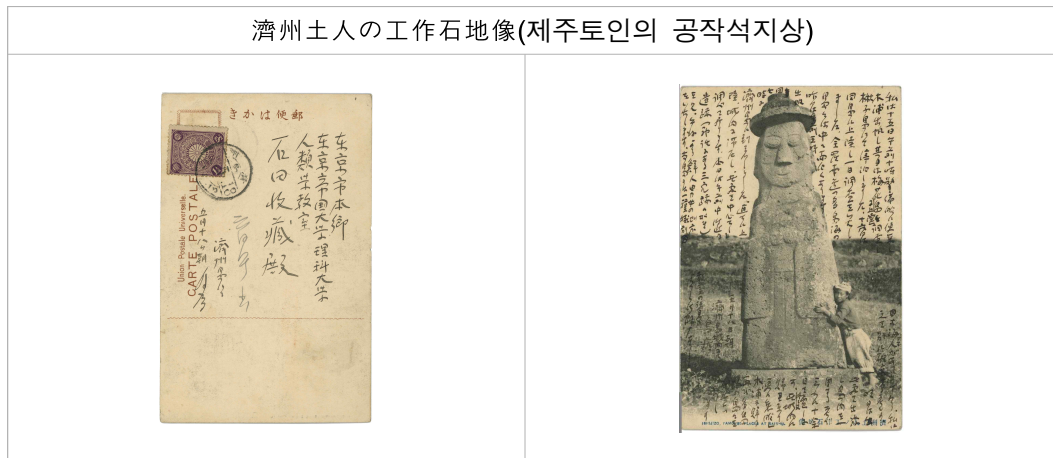
제주도 반지점 발행(2)에 해당하는 ‘제주도민의 음료수 운반 광경’이라는 제목의 사진엽서(위) 속 사진은 1914년 5월 도리이류조의 현지조사 차 내도했을 때 제주도 토속조사와 신체측정 차원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반지점 발행(18)에 해당하는 ‘제주도 기생들의 춤’이라는 제목의 사진엽서(아래)의 경우는 [도판 25]에서 보았듯이, 같은 날 도리이 류조를 위해서 개최해서 보여준 탐라국 전래 ‘입춘굿 놀이’ 중 기생들의 춤 장면이다.

이 2장의 사진이 도리이 류조 일행이 촬영한 것임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① 촬영 주체(도리이 류조)와 촬영 연대(1914년)가 명확해졌다. ② 조선총독부 지휘 아래 연출된 사진이다. ③ 제주도 토속문화의 연출된 이미지가 탄생했다. ④ 사진엽서로도 발행되어 유통되었다. ⑤ 해방 후, 자국 내 전통문화 복원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도리이 류조가 1914년 5월에 제주도 내도했다는 단서의 사진엽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 엽서는 <東京이타바시구 향토자료관> 소장 자료로, 도리이가 제주도에서 동경대학 인류학교실 동료 이시다 슈조(石田收藏, 1879~1940)에게 보낸 자필 사진엽서다. 당시 도리이 류조가 어떤 경로로 언제 제주도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濟-HGC-001
소인날짜	1914년 5월 18일 아침 제주우편국 소인
엽서표기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ön Postal Universal
우 표	대일본제국 우표 국화우표1錢 5厘(자색) 1906.5.15.발행
보내는 사람	鳥居龍藏 (도리이 류조, 조선총독부 촉탁 고적답사 사료조사 위원)
받는 사람	東京本郷東京大學理科大學 人類學教室 石田收藏
통신 내용	나는 15일 오전 10시 경비정에 탑승해서 목포를 출항하여

	그날 매화도(전남 신안군)에 상륙해서 조사하고 추자도 정박하였습니다. 16일 이 섬에 상륙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다도해 섬들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제 오전 5시에 출발하여 7시에 제주도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로 상륙하여 성내에 체재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근처의 유적(삼성혈)을 보고 오후에 조선남녀 신체측정을 할 것입니다. 이 섬에는 특별한 해녀가 있는데 나는 이것을 별도로 연구할 생각입니다. 내일은 이곳을 출발하여 섬을 일주할 생각입니다. 심여일을 보내고 성내로 돌아와서 목포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다시 다도해 섬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5월 18일 제주도에서 鳥居.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濟州土人の工作石地像(제주토인의 공작석지상)
영문명	ISIJIZO FAMOUSE PLACES AT SAISHU
촬영지	제주시 건입동 소재 복신미륵(동자복, 제주도지정 민속자료 1-1호)
인쇄기술	콜로타입 collotype 그물망 없는 것
특이사항	돌문화에 관심이 지대한 인류학자이자로서 관련 엽서를 구입, 그 이미지 위에 빼곡하게 자신의 행적을 대학 연구소에 알리는 내용.
종합 정보	
정리번호	濟-HGC-001 (제주기록문화연구소 수집자료)
소장처	원본: 東京이타바시구 향토자료관 소장
비 고	현재 HAGAN 근대제주 수집 엽서 중 2번째로 오래된 것.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도리이 류조는 1914년 5월 17일에 도착해서, 다음 날 사진엽서를 동경제국대학으로 보내게 된다. 거기다 ‘濟州土人の工作石地像(제주토인의 공작석지상)’라는 제목의 그가 사용한 사진엽서 또한 매우 흥미롭다. 도리이 류조가 제주시 건입동 소재 복신미륵(동자복)이 담긴 사진엽서를 1914년에 사용한 것으로 봐서, 이 사진의 촬영 연대나 사진엽서 발행 연도는 1914년 이전 것으로 판명된다.

이로 미뤄보았을 때, 제주도 중요 사진엽서는 ‘제주도 반지점’ 발행엽서 이전에도 앞서 소개한 ‘히노데상행’을 포함한 여러 발행원을 통해 발행·유통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외부세계를 향해 제주도 이미지 생산과 유통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사진자료 발굴과 더불어 더 면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도리이 류조는 제주도에 5월 17일에 와서 20일간 머문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해외조사지에서 위와 같은 사진엽서나 아래에 인용한 루트를 통하여 자신의 행적을 일일이 남기고 있다. 그의 이러한 통신문은 당시 사진 및 사진엽서 자료 연구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제주도에 20일간 체재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흥미 있는 곳으로 나는 매일 매일 새로운 눈으로 취재에 임하였습니다. 체질조사는 섬 내 8개소의 남녀를 조사, 해녀와는 구별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신화, 전설 등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또 토속도 육지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¹⁵⁾

15) 鳥居龍藏(1914), <鳥居龍藏氏よりの通信>(6월 12일 목포발) 『人類學雜誌』 29卷 7号, p. 291. 東京: 東京人類學會.

V. 근대 사진엽서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

1. 근대 사진엽서의 가치

1) 사진엽서의 역할

- (1) 정보전달의 새로운 수단: 화상정보와 전달속도 검비
- (2) 정치도구로서의 미디어: 식민 통치의 정당성 및 관광정책 홍보 수단
- (3) 문화상품: 관광 홍보 사진엽서, 행사의 기념품, 답례품, 상점의 광고 등으로 향유.

2) 사진엽서의 현대적 가치

- (1) 전통건축물 복원 자료
- (2) 근대원형 복원의 통로 (김수현 · 정창현(2011))

3) 사진엽서를 대상으로 하는 접근 분야

- (1) 사진 자료 가치에 주목하는 건축사, 미술사, 인쇄 기술사 분야
- (2) 정치 미디어 분야
- (3) 정보자료학(우편제도, 향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야
- (4) 향토 역사자료로서의 지역 연구 분야
- (5) 미디어 콘텐츠

2. 제주도의 근대 사진 활용

1) 제주도의 근대 사진 자료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제주편》(1929년)
조선총독부 《제주도세요람》(1937년/1939년)
그 외 일본인 연구자에 의한 사진들.

2) 제주도 근대 사진 활용 현황

제주도(1996년) 《(도승격 50주년 기념 사진집) 제주100년》
제주역사편찬위원회 편(2009)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1900~2006》
제주시(2000) 《사진으로 엮는 20세기 제주시》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1)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제주특별자치도(2008) 《사진으로 보는 제주 옛모습》

3) 제주근대 사진 디지털 제공

(1) 제주 100년 사진 이야기(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문화역사 > 제주역사)
사진집 《제주100년》(1996년)에 나온 사진들 및 해방 이후 사진 포함하여
60장 탑재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르지 못함.

○ 《제주100년》 편집자 서문

“《제주100년》의 사진에 설명을 붙이면서 한 장 한 장 찬찬히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대단히 엄청났었다는 것도 실감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찍은 어떤 사진에서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는 것도 확인했다. 239매의 사진은 어느 것이나 모두 역사성을 내포한 것이기는 하나 그 중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일제식민지시대에 일본 관리들에 의해 목적을 가지고 찍은 일련의 사진들을 찾아내 실게 된 것은 가장 큰 수확

이라 할 것이다. 이 사진들이 더구나 제주의 모든 토지를 세부 측량하던 1914년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들의 식민지화 작업의 주도면밀함을 느끼게 했으며 게다가 그들은 추자도까지도 가서 그곳의 어부와 해녀들, 원시적 어로수단인 테우까지도 찍고 있었으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 당시 음모야 어쨌건 그들의 치밀한 기록성으로 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건지게 되었으니 아이러니컬하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들은 또 그 시대에 삼림보호소에서부터 전매서 출장소까지도 건물을 사진 찍어 놓아 자료를 건질 수 있었다.”(오성찬)

3. 국내 근대 사진엽서 활용 사례

1) 역사관 및 근대문화 거리조성

- (1) 인천개항박물관, 화도진도서관
「인천개항자료전시관」(엽서에 나타난 근대 인천)
- (2)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 (3) 부산근대역사관
- (4)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5) 근대산업유산벨트화 사업

2) 사진집 발행 및 전시회

- (1) 인천향토사연구회
<개화기 인천 사진엽서전>(1997년 4월). 인천향토사학회가 수집한 사진엽서 46점 전시. 사진엽서를 활용한 최초의 전시회
<개화기 사진엽서로 보는 인천의 건축물전>(2006년 10월 17~22일)
- (2) 부산근대역사관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특별전(2003년) 및 책자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2009년) 발간. 다음과 같이 8장으로 구성됨.

- 제1장 관제엽서(官製葉書)
- 제2장 근대 도시의 풍경
- 제3장 조선, 조선인(1) 풍속
- 제4장 조선, 조선인(2) 생업
- 제5장 조선, 조선인(3) 남성 그리고 가족
- 제6장 조선, 조선인(4) 여성과 아이들
- 제7장 기생
- 제8장 근대 시각문화와 사진엽서

(3) 천안독립기념관

<엽서로 보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한국인의 삶> 사진자료집 발간 및 특별전(2012), <한 장의 추억 - 근대에서 온 엽서> 특별기획전(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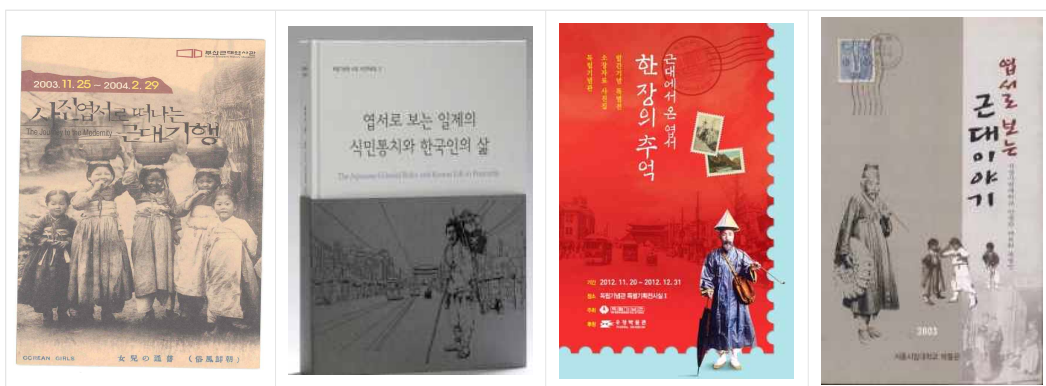
(4) 서울시립대박물관 <엽서로 보는 근대이야기>전시회 및 도록발행(2003)

(5) 대구향토역사관 <근대 엽서로 보는 대구 이야기>전시회(2005)

(6) 인천개항박물관 <엽서로 보는 인천의 근대 문물전>기획전시(2017)

(7) 우라카와 가즈야(浦川和也)(2017)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조선》 민속원.
일본 사가현 현립 나고야성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엽서 2651점 게재.

- 1. 기념엽서
- 2. 명소엽서 경성(1)
- 3. 명소엽서 경성(2), 경기 충청 강원 지역
- 4. 명소엽서 평안 황해 평안 함경도 지역,
- 5. 명소엽서 부산 경상 전라도 지역
- 6. 풍속엽서 7. 수학여행 기타엽서



3)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화 사례

(1) 서울역사박물관

①서울아카이브 경성유람버스 ②서울아카이브 근대서울사진

<http://www.museum.seoul.kr/archive/archiveList.do?type=D&arcvGroupNo=2844>

(2)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닷컴

① 문화원형 라이브러리> 겨레의 노래 아리랑 > 일제강점기의 아리랑타령
엽서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_id=CP_THE008&cp_code=cp0435&index_id=cp04350222&content_id=cp043502220001&search_left_menu=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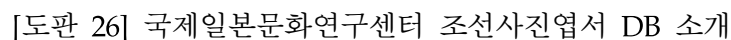
● 일제강점기 아리랑타령엽서

● 해설-일제강점기 아리랑타령엽서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_id=CP_THE010&cp_code=cp0434&index_id=cp04340124&content_id=cp043401240001&search_left_menu=5

(1)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 138 -

- <분류> 1. 풍경 엽서, 2. 풍속엽서, 3. 관제 기념엽서, 4. 사용(entire)엽서, 5. 사진 스테레오 사진, 6. 관광안내, 7. 기증엽서
- 6500 건중 사용엽서 1,804건 , 인천 104건, 부산 405건, 妓生 837건

朝鮮写真絵はがきデータベース [データベース一覧](#) [日文研トップページ](#)

検索 検索ワード: バインダー番号: 使用:

形態: 緯位置: 剛色:

ジャンル: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全件表示

6,500件 [うち絵はがき 6189枚] (1 - 300)

 1-1 (朝鮮名所) 絵葉書	 1-1-1 (朝鮮名所) 京城昌徳宮敦化門 (李王廟下宮廟正門) (京2)	 1-1-2 (朝鮮名所) 京城昌徳宮水門及雷台塔 (京5)	 1-1-3 (朝鮮名所) 京城昌徳宮御苑池 (京6)	 1-1-4 (朝鮮名所) 京城昌徳宮仁政殿 (李王廟下宮殿) (京8)	 1-1-5 (朝鮮名所) 京城昌徳宮御苑特設園遊池 水亭 (京17)	 1-1-6 (朝鮮名所) 京城昌徳宮御苑内瑞物本廬 (京19)
 1-1-7 (朝鮮名所) 京城景福宮光化門 (京24)	 1-1-8 (朝鮮名所) 京城景福宮勤政殿 (京28)	 1-1-9 (朝鮮名所) 京城景福宮香遠亭 (京37)	 1-1-10 (朝鮮名所) 京城景福宮慶會樓 (京39)	 1-1-11 (朝鮮名所) 京城德壽宮 (李王廟下宮殿) (京49)	 1-1-12 (朝鮮名所) 京城桂立門 (京58)	 1-1-13 (朝鮮名所) 京城巴達公園広場・六角堂 (京71)
 1-1-14 (朝鮮名所) 京城北漢山先刻亭 (京80)	 1-1-15 (朝鮮名所) 京城朝鮮銀行 (京208)	 1-1-16 (朝鮮名所) 京城朝鮮鉄道小待所 (京223)	 1-1-17 (朝鮮名所) 龍山停車場 (龍10)	 1-1-18 (朝鮮名所) 龍山平釜線漢江渡橋 (龍40)	 1-1-19 (朝鮮名所) 龍山日誌登官邸 (龍46)	 1-1-20 (朝鮮名所) 水源華虹門 (水7)
 1-1-21 (朝鮮名所) 水源華山正宗大王像 (水28)	 1-1-22 (朝鮮名所) 開城善竹橋 (開7)	 1-1-23 (朝鮮名所) 京畿道驛驛館(文禮)/松小翠川/陸原別家ラザダセシ	 1-1-24 (朝鮮名所) 仁川港月尾島江月影内及市街展望台 (仁3)	 1-1-25 (朝鮮名所) 忠清南道郡津都定山道津都寺内外部菩薩の火石像	 1-1-26 (朝鮮名所) 富陽羅庫樓 (富44)	 1-1-27 (朝鮮名所) 慶尚南道釜山道小西行旅・驛驛館 (慶南6)

ページの先頭へ

[도판 27]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조선사진엽서 DB 일람

■ 제주엽서 8장

濟州島山池水門橋ヨリ漢拏山ノ遠望 제주도 산지수문교에서 보는 한라산
濟州島城内市場 제주도 성내 시장
漢拏山遠望 한라산 원망
濟州島眼鏡橋／放牧 제주도 안경다리과 목장
朝鮮八景・濟州島漢拏山 조선팔경 제주도 한라산
漢拏山上ノ奇巖(五百將軍) 한라산 위의 기암(오백장군)
濟州城内の景(其一) 제주성안 풍경
濟州島城内の全景／三姓祠と鮎の名所外都川 제주도 성내 전경과 삼성혈 은
어 명소 외도천

4. 일본의 사진엽서 정보자료화 사례

1) 도서관 및 박물관의 향토자료과의 디지털화 사례

*향토사진엽서(郷土繪葉書): 지역의 근대 역사자료, 향토자료로 가치가 있는 사진엽서

*대부분의 공립도서관 및 역사관, 박물관에서 소장(기관당 5천장에서 2만장 소장)

(1) 사가 현립도서관(佐賀縣立図書館) 향토자료과

<http://www.sagalibdb.jp/index.html> 사진엽서 사진 데이터베이스

향토 자료의 디지털화 사업

<http://www.tosyo-saga.jp/kentosyo/kyoudo/top.html>

(2) 가나자와시 도서관 향토자료과

1980-1945년까지의 가나자와 사진엽서(金澤繪葉書) 디지털화 화면의 예

<https://www2.lib.kanazawa.ishikawa.jp/reference/kanazawaehagaki.htm>

(3) 후쿠오카 현립도서관(福岡縣立図書館) 향토자료과

<http://www.lib.pref.fukuoka.jp/hp/gallery/kyoudoindex.html>

후쿠오카 현립 도서관>향토 자료실>디지털 라이브러리>향토자료의 소개
『繪葉書でみる福岡百景』 (사진엽서로 보는 후쿠오카 백경)

- (4) 니이가타 현립역사박물관(新潟縣立歴史博物館)
 수장자료 > 사사가와(笹川勇吉)씨(향토사학자) 사진엽서 컬렉션 2만장
<http://nbz.or.jp/rekibun/siryu/ehagaki.html>

엽서 내용	분류
사원, 신사, 교회, 불상, 초혼사(招魂社), 묘지 등	철학, 종교
사적 명승, 지도, 온천(광천), 산악, 공원, 호수, 황족 관계 등	역사, 지리
초상, 인물	인물, 비석
회사안내	회사
보육원, 학교, 학교활동, 학교 내외 설비	교육, 보육, 학교
야유회, 공연, 제사, 불꽃놀이, 연날리기, 전설 등	풍습, 습관, 민속
식물원, 고산식물, 의원 등	자연, 의학
수해, 화재, 태풍, 지진, 폭설 등	사건, 사고, 재해
시가지, 거리, 상점가	도시풍경
공공공사, 상수도, 발전소, 요리 등	기술
공공시설, 기업사옥, 개인주택, 건축물 등	시설, 건축물
하천, 폭포, 계곡, 다리 등	하천, 다리
바다, 해안, 항구, 해상교통, 선박, 등대 등	바다, 항구
육상교통, 도로, 철도, 역, 차량 등	교통
석유, 상업, 직물, 농업, 박람회 등	산업
서화, 족자, 조각, 문화재, 민요, 춤, 도자기 등	예술,예능,문화재
스키, 수영, 해수욕, 무술, 체육대회 등	스포츠

2)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사례

- (1) 히로시마현 문서관(広島縣文書館) 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hiroshima.lg.jp/site/monjokan/postcard01.html>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자료 디지털 화상-사진엽서 디지털

히로시마 시내 1818건

히로시마 현내 360건

현외 373건, 국외 100건, 기타 419건

http://www.archives-hiroshima70.jp/infolib/meta_pub/G0000002picture

- 원자폭탄 투하 전후의 시내 전경 재현에 주요 자료로 사용



1945년 이전



1945년 이후

(2) 요코하마 도시발전 기념관

<http://www.tohatsu.city.yokohama.jp/index.html>

- 공간전시실(오프라인)

상설전시실 > 도시 형성 존 > 요코하마 건축탐방> 요코하마 어제와 오늘



1910(明治43)年頃の横浜駅付近
横浜開港資料館所蔵絵巻

1910년의 요코하마역 부근



현재 요코하마역 부근

■ 디지털전시실(온라인)사진엽서 데이터베이스

	제목: 요코하마 방코쿠바시(横浜万国橋) 시대: 1900-1925년 사이 분류명: 야마시타 공원 해안 거리 분류 번호: 004-01 비고: 반코쿠교는 신항 부두와 간 나이를 잇는 다리로 1904년에 준공했다. 다리의 중앙의 철탑의 첨단에는 피뢰침과 전등이 부설된. 왼손은 동양 기선 회사 요코하마 지점. 1940년 콘크리트 아치교로 전환하였다.
---	--

3) 학술자료로 활용의 사례

- (1) 교토대학 문학부 지리학 교실 소장 사진엽서 컬렉션 Web 어플리케이션
(京都大學文學部地理學教室所藏の繪葉書コレクション)

<https://www.bun.kyoto-u.ac.jp/geography/postcard/>

- (2) 일본토목학회 홈페이지 라이브러리 중, 1945년 이전 토목엽서 라이브러리
http://library.jsce.or.jp/Image_DB/card/index.html

토목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토목 관련 1870-1950년대까지 사진엽서 3,600점 수록.

<분류>

1. 교량 (지역별), 2. 도로, 3. 철도, 터널, 4. 철도청,
5. 강, 6. 발전소, 7. 댐, 8. 항만, 9. 수도, 10. 풍수해

5. 사진엽서와 지역학

개항이 되면서 조선의 도시와 거리, 항구 등은 급속히 변화되기 시작했다. 관공서들이 새롭게 건설되었고, 서구풍의 학교·병원·교회 건물이 들어섰다. 일제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조선총독부 건물을 비롯해 일본의 신사(神社) 등 각

중 식민통치에 필요한 공공건물들이 새로 건립됐다. 도시에서는 초가집과 기와집으로 대표되는 전통가옥들이 점차 줄어들고 일본식 가옥들이 늘어났다. 일본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사진엽서에 담긴 전통 풍속, 건축물 등은 근대 조선인의 생활모습을 복원하는 기초자료임에 틀림없다.

사진엽서는 한 분야에서만 필요한 자료가 아니다. 엽서에 실린 사진들은 사라진 풍속, 새로 생긴 풍속부터 시작해 복식, 민속, 건축, 도시, 역사유물, 명승지 등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한제국 시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조선 인민'들의 삶과 표정이 살아 있다. 그것이 비록 사진관에서 연출된 장면이든 일상의 자연스런 모습이든 그 자체로 연구의 대상이다.

식민통치의 불순한 목적에서 찍은 사진이라도 그 시선과 목적을 벗어내고 들여다보면 근대문화의 전파 속에서 저항하거나 순응해 나가는 당대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 지금은 없어졌거나 후대에 개축을 해서 원형을 찾기 어려운 역사유물, 근대화에 따라 변화해 간 도시와 건축물들이 사진엽서 속에 과거의 흔적처럼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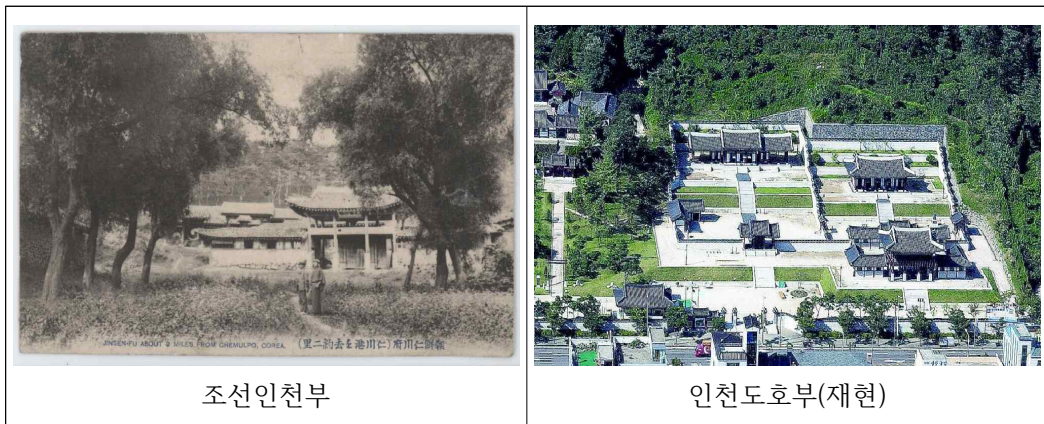
근대 삶의 모습들과 역사 유물 등이 훼손되거나 변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시각자료로서 사진은 매우 중요하다.

사진엽서에 담긴 사진자료도 마찬가지다. 사진엽서에 쓰인 내용이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기도 한다. 시기별로 같은 대상을 담아 대상물의 변화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1) 전통건축물 복원 자료

사례) 1920년대 인천엽서 읽기 - 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 청사 복원 문체

2017년 6월 인천 화도진도서관은 1920년대 추정 인천도호부청사 엽서 발굴 현재 복원된 문학동 인천도호부청사 건물과는 그 배치·형태·크기·위치 등 아주 다름



2001년

인천도호부 청사 복원 완료

2017년 6월

1920년대 촬영 추정 사진엽서 발견
(화도진도서관)
짜통복원 문제 야기



2017년 8월

원형 복원 공론화
원형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 건의 (남구청)



2017년 8월

학술토론회 주최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인천도호부 관아 터 재조명'



인천도호부청사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용역 착수계획 (인천광역시)



복원 아닌 재현으로 해석 마무리

2) 지역의 역사 및 생활문화자료

(1) 사례 : 1913년 근대제주 엽서 읽기

아래 소개하는 사진엽서는 국제일본문화연구소 조선사진엽서 데이터 베이스 중 야마모토 슌스케 소장 엽서이다(자료번호: 日文研 28-100)



서지 정보 (앞)	
자료번호	日文研 28-100
소인날짜	大正 2년(1913), 월일 불명 / 작성일은 1913년 중앙절
엽서표기	きかは便郵
	CARTE POSTALE Union Postal Universal
우 표	국화우표1錢 5厘(자색) 1906.5.15.발행
보내는 사람	濟州島 梅林(우메바야시)
받는 사람	播磨龍野門ノ外 黒田敬之 (현 兵庫縣たつの市龍野町門ノ外)
통신 내용	近々京城に歸還可致候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로 귀환한다)
서지 정보 (뒤)	
엽서명	漢拏山上ノ奇巖 (五百將軍) 한라산 위의 기암(오백장군)
영문명	ROCK OF THE MT. KANRA
	天壤無窮(하늘과 땅처럼 무궁하다) 『일본서기』의 천왕의 지위는 무궁하다는 ‘天壤無窮神則’을 말하는 것임. 大正2年(1913년) 菊花節(중앙절)
인쇄기술	콜로타입 collotype 그물망 없는 것
특이사항	이미지 위에 기이한 한자쓰기와 낙관
종합 정보	
정리번호	日文研 28-100 (야마모토 슌스케 소장)
소장처	日文研 조선사진엽서 데이터 베이스 28-100
비 고	현재 HAGAN 근대제주 수집 엽서 중 가장 오래된 것.

(1) 시대 추정

- ▶ 통신란 패선이 3분의 1인 것→1910년(M40년)4월~1918년(T7년) 3월까지 사용
- ▶ 국화 우표(菊切手) : 1900년~1908년, 다자와(田澤) 우표: 1913년(T2년)~1927년.
- ▶ 「きかは便郵」 1900년~1933년 2월
- ▶ 엽서 우편 요금 1899년(M32년) 1월 부터 1 錢 5 厘 1937년(S12년) 4월 까지
- ▶ 조선의 엽서요금 : 1910년 1전5리
- ▶ 촬영 연도 추정 조선 1910-1919년 사이 관제엽서, 시정엽서 발행
- ▶ 엽서가 발행 연도 추정 1918년 이전, 시리즈 영문으로 연대 추정
- ▶ 사용 연도 : 1913년(소인과 통신란)

(2) 인적사항 추정

- ▶ 받는 사람 - 일본주소와 이름, 播磨番(하리마번)의 호족
- ▶ 우체국 추정-제주우편국(소인확인 불가, 제주엽서 목포우편국 소인 다수)
1915년 전국적으로 우편국 599개소
1913년 제주 우편국, 모슬포, 서귀포, 성산포, 추자도 우편소 설치
- ▶ 구입처추정-1910년도 이후 교과서 판매 대리점(각건보상점)이 있었음
- ▶ 보내는 사람- 梅林綠江 또는 梅林虎次郎(우메바야시 도라지로)-조경업자

【조선총독부 관보】에 따르면

1921-1929년까지 제주한라산 국유림 채벌허가를 받았던 일본인

주소 濟州面 一徒里

1921년부터 1929년까지 매년 林産物賣却許可 :國有林野處分事項
彙報-調査及報告-産業-林業-國有林野處分事項

제주 한라산 남측 제주사업구제15소반 리반 채벌용도: 분재

비자나무 眞栢(분재용 나무) 분재 및 정원수용으로 해마다 한라산의 비자나무와
신기한 나무 등을 발굴해서 일본으로 가져가 팔았던 것으로 추정.

이 사람은 채벌 용도가 전부 비자나무와 분재용 나무, 정원수.

1912년부터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국유림 임산물 매각 허가 시작

(3) 미디어로서 사진엽서의 이중구조

미디어로서 엽서의 이중 구조				
 취 재 제 재			 → 발행 → 판매	
제작자			 → 발신 → 수신	
한라산 조선총독부 판 매 자			우메바야시 구로타	
제재선정 조선명소-한라산 제작자 의도 식민지 관광사업 당위성			제주 현장감 전달, 신상보고 한라산 기암절벽 사진 위에 ‘天壤無窮’을 쓴 동기와 의도가 궁금함.	

VI. 결론(시사점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고성일 컬렉션>을 중심으로 구한말을 거쳐 일제강점기 동안 발행·유통된 제주도 사진엽서(繪葉書)에 주목, 근대제주 이미지 기록의 역사를 추적하였다. 근대제주를 주제로 한 사진엽서의 경우는 도내·외 산재해 있으나, 지금까지 이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기초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일제강점기, 제주도를 포함 한반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발행된 사진엽서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내용적으로는 ①제국주의 선전도구로서 사진엽서 및 ②지역의 역사 및 생활문화자료로서 사진엽서가 등장하였고, 문화적으로는 ③관광·문화상품으로서 사진엽서 및 ④개개인의 미적 취향(색채, 디자인, 구도, 상징)에 부응한 사진엽서가 발행되었으며, 한편으로는 ⑤통신매체(정보전달)로서 사진엽서가 등장하였다. 즉 교통수단, 전화, 신문, 라디오, TV 등과 같은 매체로서의 사진엽서의 경우, 이는 어떤 경로로 탄생하여 발전, 소멸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의 형태를 부여하여 문화상징 또는 문화담론을 만들었으며, 나아가 이들 존재는 내·외부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방대한 연구임에 틀림없다.

한 장의 사진엽서는 ①~⑤ 역할을 모두 충족한 것도 있고, ①~⑤ 중 부분적으로만 충족한 것들, 또는 한 항목에만 치우친 것들이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사진엽서에의 접근은 우선 그 기능과 활용 차원에서 보더라도, 애초에 사진 그 자체와는 접근방법이 다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제주 사진엽서’를 주제로 한 본 연구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수행하였다. 특히 지역의 역사 및 생활문화자료 및 관광·문화상품으로서의 사진엽서가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 너머 본격적인 분석과 논의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었음을 밝힌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일제강점기 사진엽서에 주목하여 다각적인 분석과 더

불어 다양한 활용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추적하고, 그 중 미래 제주사회에 활용 모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하며 일부 소개하였다. 이들 움직임에 주목하여 제주사회 또한 '근대제주' 이미지 기록의 수집·관리·보존 및 연구 방법론 및 유물로서 이들 자료의 문화자원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자는 제안에서이다.

궁극적으로 '근대제주 사진엽서'가 주는 시사점과 활용방안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근대제주'의 학술연구자료로서 연구서 발간
- 지역의 역사 및 생활문화자료로서 사진엽서 전시회 및 자료집 제작
- '근대제주' 이미지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아카이브관 설립
- '근대제주' 이미지 자료의 문화자원화(전시, 출판, 영화, 창작, 디자인 등)
- 제주도 시각자료 전문 사이트 구축(키워드 등을 통한 종합적 검색(이미지, 장소, 시간, 인물 등)).

부 록

고성일氏 제주도 사진엽서 컬렉션 목록 (濟-KSC-○○)

부 록

고성일氏 제주도 사진엽서 컬렉션 목록 (濟-KSC-○○)

■ 정리번호 분류 예시

(제출자료) 濟-KSC-001~073(고성일 컬렉션)

(참고자료1) 日文研 ○○-○○(山本俊介 컬렉션) ※日文研: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약칭

(참고자료2) 濟-HGC-○○(제주기록문화연구소 연구자료)

정리번호	엽서명	영문명	색 채	발행원	발행 시기	사용 여부	비 고
1) 濟-KSC-○○(고성일 컬렉션) - 총 7*장							
伴支店發行 (반지점발행) 엽서							
濟-KSC-001	濟州島鯛延繩漁業ノ景 (1) (제주도의 돛 연승어업 광경)		흑백	伴支店發行		×	鯛: 돛, 延繩: 주낙
	Union Postale Universelle CARTE POSTALE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濟-KSC-002	濟州島民ノ飲料水運搬ノ景 (2) (제주도민의 음료수 운반 광경)		흑백	”		×	
濟-KSC-003	濟州島漢拏山二於ケル椎茸栽培ノ景 (3) (제주도 한라산 자락 표고버섯 재배 광경)		흑백	”		×	

濟-KSC-004	濟州島三姓穴事蹟 (No.4) (제주도 삼성혈 사적)		후백	"		×	<고려사 古記>의 삼성신화 소개문
	Union Postale Universelle CARTE POSTALE 우표마크 無 / 절취선 1/3 / きかは便郵						
濟-KSC-005	濟州島漢拏山絶頂ノ景 (5) (제주도 한라산 절절의 광경)		후백	"		×	
濟-KSC-006	濟州島山池水門橋ヨリ漢拏山ノ遠望 (6) (제주도 산지 수문교에서 본 한라산)		후백	"		×	
濟-KSC-007	濟州島潛水器作業ノ景 (7) (제주도 잠수기 작업 광경)		후백	"		×	
濟-KSC-008	濟州島農民麥打ノ景 (8) (제주도 농민 보리타작 광경)		후백	"		○	(HGC 자료 해녀휴식 엽서 발신인과 동일)
	靜岡縣浜名郡芳川村 稻野○○ 様						
濟-KSC-009	濟州島放牛狀況 (9) (제주도 방우 상황)		후백	"		×	
濟-KSC-010	濟州島防陣網漁業ノ景(10) (제주도 방진망 어업)		후백	"		×	
濟-KSC-011	濟州農民ノ畑地踏壓馬壓ノ景 (11) (제주농민의 밭 불리기 광경)		후백	"		×	
濟-KSC-012	濟州島城山浦全景(12) (제주도 성산포 전경)		후백	"		×	
濟-KSC-013	濟州島西歸浦ノ瀑布ノ景(13) (제주도 서귀포 폭포 광경)		후백	"		×	
濟-KSC-014	濟州島西歸浦港ノ景(14) (제주도 서귀포항 광경)		후백	"		×	
濟-KSC-015	濟州漁夫カジキリ網○○出漁ノ景(15) (제주어부의 자릿그물로 출어 광경)		후백	"		×	
濟-KSC-016	濟州島山池川ノ景(16) (제주도 산지천 광경)		후백	"		×	

濟-KSC-017	濟州島城内市場ノ全景(17) (제주도 성내시장 전경)		흑백	〃		×	
濟-KSC-018	濟州島妓生ノ手踊(18) (제주도 기생들의 춤)		흑백	〃		×	
濟-KSC-019	濟州島海女休息ノ景(19) (제주도해녀 휴식 풍경)		흑백	〃		×	
濟-KSC-020	濟州島民家ノ建築(20) (제주도 민가의 건축)		흑백	〃		×	
濟-KSC-021	(記) 濟州島繪はがき 伴支店發行 (제주도 사진엽서 반지점 발행)			〃		—	엽서 겉봉(앞) (뒤)
	(無記)						
西郷商店(사이고 상점) 발행 엽서							
濟-KSC-022	濟州島西歸浦ノ況 其一 (제주도 서귀포 현황 1)		흑백	西郷商店發行		×	우표란 SHOSEIDO TOKYO JAPAN 벼이삭? 마크
	POST CARD 우표란: SHOSEIDO TOKYO JAPAN / 절취선 ㄷ / きがは便郵						
濟-KSC-023	濟州島西歸浦ノ況 其二 (제주도 서귀포 현황 2)		흑백	〃			
濟-KSC-024	濟州島西歸浦ノ況 其三 (제주도 서귀포 현황 3)		흑백	〃			
濟-KSC-025	濟州島西歸浦 正房瀑布 (제주도 서귀포 정방폭포)		흑백	〃			
濟-KSC-026	(朝鮮八景)濟州島山西歸浦ヨリ望ム漢拏山 (조선팔경)(제주도 서귀포에서 본 한라산)		흑백	〃			
濟-KSC-027	濟州島西歸浦事業場鯨引揚ノ況 (제주도 서귀포 사업장 고래 인양 장면)		흑백	〃			
濟-KSC-028	濟州島西歸浦事業場鯨解剖ノ況 (제주도 서귀포 사업장 고래 해부 장면)		흑백	〃			

濟-KSC-029	(記) 朝鮮八景 濟州島 西歸浦 名所 西郷商店發行 (조선팔경 제주도 서귀포 명소)	〃			엽서 겉봉(앞)(뒤)
	(無記)				
濟州島廳發行(제주도청 발행)・濟州島名所繪はがき(제주도 명소 엽서)					
濟-KSC-030	濟州島城内及築港の一部+山地港と城山浦全景 (제주도 성내 및 축항의 일부, 산지항과 성산포 전경)	二色刷 り	濟州島廳發行	〇	3장소
	Post Card ㉠ 다자와 우표 1전5리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〇〇년11월2일자 목포 소인 神戸市로				
濟-KSC-031	濟州島城内及築港の一部+山地港と城山浦全景 (제주도 성내 및 축항의 일부, 산지항과 성산포 전경)	〃	〃	〇	3장소 濟-KSC-030과 동일, 사용 내용 다름
	Post Card ㉠ 다자와 우표 1전5리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S3(1928)년〇월21일자 〇大門 소인 長野縣松本市로				
濟-KSC-032	海女作業(濟州島)及風俗 + 椎茸栢場 해녀작업(제주도) 및 풍속, 표고버섯 골장	〃	〃	×	3장소
	Post Card ㉠ 미사용 우표란 : 오리 앞은 마크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濟-KSC-033	濟州島孔子廟 + 龍淵 제주도 향교 + 용연	〃	〃	×	2장소 ※용연 4행 詩句
	Post Card ㉠ 미사용 우표란 : 오리 앞은 마크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濟-KSC-034	濟州島眼境橋+放牧 제주도 안경교 + 방목	〃	〃	×	2장소 ※제주도선전가 3절
	Post Card ㉠ 미사용 우표란 : 오리 앞은 마크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濟-KSC-035	濟州島城内市場 + 漢拏山遠望 제주도 성내시장 + 한라산 원경		〃	〃		×	2장소
	Post Card ㉠ 미사용 우표란 : 오리 얹은 마크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日文研 33-77 (참고)	濟州島城内の全景 + 三姓穴 + 鮎の名所外都川 제주도 성내전경+삼성혈+은어명소 외도천		〃	〃		○	3장소 야마모토 컬렉션
	Post Card ㉠ 미사용 우표란 : 오리 얹은 마크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S5(1930)년1월28일자 兵庫縣으로						
<협재+비양도> 소재 엽서							
濟-KSC-036	무제		흑백	불명		×	비양도를 배경으로 협재 성창
	POST CARD / 우표란: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제주성내> 소재 엽서							
濟-KSC-037	(朝鮮名所)全羅南道濟州島濟州城内全景(全南1) (조선명소)전라남도제주도제주성내전경(전남1)	○○ OF SAISHU CASTLE	흑백	京城日ノ出發 行		×	
	POST CARDE / 우표란: 京城日ノ出發行 마크 / 절취선 ⅓ / きかは便郵						
濟-KSC-038	무제.		흑백			×	산지천 하류 집락
	CARTE POSTALE 우표마크 無 / 절취선 ⅓ / 郵便はがき						
濟-KSC-039	무제.		흑백			×	제주측후소 남쪽 경작지
	Post Card ㉠ 미사용 우표란 : 오리 얹은 마크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濟-KSC-040	무제.		흑백			×	제주공립농업학교 정문 여아
	Post Card ㉠ 미사용 우표란 : 오리 앞은 마크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濟-KSC-041	濟州島廳 (제주도청)		흑백			×	
	POST CARD CORRESPONDENCE / ADDRESS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濟-KSC-042	濟州名所 眼境橋 (제주명소 안경교)		흑백	Made in Japan		×	
	CARTE POSTALE 우표마크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삼성혈> 소재 엽서							
濟-KSC-043	濟州島三姓穴事蹟 (NO.4) 제주도 삼성혈 사적 (NO.4)		흑백	伴支店發行		×	濟-KSC-004와 동일하지만 다른 버전.
	Union Postale Universelle CARTE POSTALE 우표란 無 / 절취선 ⅓ / きかは便郵						
濟-KSC-044	濟州島三姓祠 ・ 内景 (其二) 제주도 삼성사·내부광경(其二)		흑백	およし茶屋 OYOSHI-CH AYA 비둘기		×	
	CARTE POSTALE 비둘기 마크 우표란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濟-KSC-045	三姓穴濟州島ノ元祖三姓ハ此穴ヨリ生レ出タト云フ (삼성혈 제주도의 시조 삼성은 이곳 혈에서 나왔다고 전한다)		흑백	왕관 마크		×	2장면
	CARTE POSTALE 우표란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목축> 소재 엽서							
濟-KSC-046	濟州島漢拏山麓牧場(제주도한라산록 목장)		흑백	왕관 마크		○	
	CARTE POSTALE 왕관? 마크 2전 우표/ 절취선 ½ / きがは便郵 S15(1940)년9월2일자 濟州 소인 山梨縣에 / 2錢 우표 발신: 朝鮮濟州島濟州邑 石松旅館 鶴田昌郎						
濟-KSC-047	濟州島民ノ風俗 (제주도민의 풍속)		흑백	왕관 마크		×	2장면
	CARTE POSTALE 왕관 마크 우표란 無 / 절취선 ½ / きがは便郵						
濟-KSC-048	濟州名物放馬ノ狀況 (제주명물 말 방목 상황)		흑백	△S마크		×	
	CARTE POSTALE △S 마크 우표란 無 / 절취선 ½ / きがは便郵						
<해녀> 소재 엽서							
濟-KSC-049	무제.		채색	大正寫眞工芸 所		×	강인한 제주해녀
	CARTE POSTALE/MADE IN JAPAND으로 엽서면 ½ 절취/ 우표란:비둘기 마크 / きがは便郵 / 비둘기◎正자초록색 표기						
濟-KSC-050	海女の出業狀況 (해녀의 출업상황)		흑백			×	
	Union Postale Universelle CARTE POSTALE 우표란 無 / 절취선 ½ / きがは便郵						

濟-KSC-051	石花菜 採捕に活動する海女 (우뚝가사리 채취하는 해녀)		흑백	三宅島坪田村 産業組合發行		×	
	Union Postale Universelle CARTE POSTALE 우표란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濟-KSC-052	(外房州名勝) 仁右衛門島 朝鮮海女ノあわび採リ (외방주명승) 니에몬지마 조선해녀의 전복 채취		흑백			×	※仁右衛門島(니에몬지마) : 일본 치바현 보소반도 남부.
	POST CARD 우표란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濟-KSC-053	무제.		흑백			×	해녀10여명 입수 장면
	POST CARD 우표란 無 / 절취선 ½ / 郵便はかき						
<자연풍광> 소재 엽서							
濟-KSC-054	朝鮮八景・濟州島漢拏山 조선팔경・제주도 한라산		흑백	京城 東洋オフセッ ト印刷株式會 社		×	두꺼운 별표, 안에 지그제그 마크 (日文研11-8-8)
	우표란: 별표 / 朝鮮八景繪葉書 글자로 엽서면 ½ 절취/ きかは便郵						
濟-KSC-055	濟州島天池淵ノ瀧(落美七十二尺) 제주도 천지연폭포(落美72척)		흑백	왕관? 마크		○	
	CARTE POSTALE 후지산 2錢 우표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S12(1937)년5월1일자 제주 소인 부산 부민정으로.						
<인물> 등 기타 엽서							
濟-KSC-056	무제.		흑백			×	대패랭이 쓴 제주여성
	Post Card ㉞ 우표란 : 오리 앞은 마크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濟-KSC-057	濟州島風俗 火田民 (제주도 풍속 화전민)		채색	왕관? 마크		×	개가족 옷 지팡이 곰방대 병거지
	CARTE POSTALE 우표란 無 / 절취선 ½ / きがは便郵						
濟-KSC-058	무제		채색			×	머리 땀아 내린 소년 ※좌측 하단 마크 주의
	CARTE POSTALE 우표란: Made in Japan / 절취선 ½ / きがは便郵						
濟-KSC-059	무제		채색			×	※좌측 하단 마크 주의
	CARTE POSTALE 우표란: Made in Japan / 절취선 ½ / きがは便郵						
濟-KSC-060	濟州島石人 (제주도 돌하르방)		흑백	濟州島城内 田口商店發行		○	
	POST CARD 2錢 우표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S12(1937)년○월 ○일자 靜岡縣으로.						
濟-KSC-061	무제		흑백			×	수건 쓰고 앉은 여성 ※ 원본 아님
	Union Postale Universelle CARTE POSTALE 우표란 無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濟-KSC-062	무제		흑백	大正寫眞工芸 所		×	배가 정박한 바다 정경 ※ 원본 아님
	CARTE POSTALE MADE IN WAKAYAMA로 엮서면 ½ 절취/ 우표란 : 비둘기 마크+ Taisho Hato Brand / きかは便郵						
무지-관제 엮서							
濟-KSC-063	내용: 속기강좌건보 송부 부탁		無地	말 탄 장군 스탬프		○	
	2錢 스탬프 우표 / 절취선 無 / きがは便郵 S12(1937)년10월28일자 濟州 소인 日本東京에						

濟-KSC-064	연하장:근하신년.제주성내 村田송부		無地	(記) 遞信省發行 印刷局製造		○	제주성내 村田 송부
	1 錢5厘 우표 / 절취선 無 / きかは便郵 / 印刷局製造 遞信省發行 大正15(1926)년1월1일자 濟州 소인 日本奈良縣에						
濟-KSC-065	大正9(1920)년6월17일에 쓴 서신		無地			○	제주성내 開濟商事合名會社山田正一郎 송부
	1 錢5厘 다자와 우표 / 절취선 無 / きかは便郵 大正9(1920)년○월○일자 濟州 소인 日本 大阪府에						
제주 불명 사진엽서(확인 및 참조)							
濟-KSC-066	韓人風俗 (한인풍속)	Women of Korea.	흑백	眞鶴洋行發行 (Published by Manazuru & co.)		×	※제목 표기 빨간색
	Union Postale Universelle CARTE POSTALE 우표란 無 / 절취선 ⅓ / きかは便郵						
濟-KSC-067	(朝鮮風俗)農夫の畑鋤 (조선풍속) 농민의 쟁기 작업	The Farmer-M anners at Chiyosun	흑백	○田東洋館 發行		×	
	POST CARD CARTE POSTALE POSTKARTE 우표란 無/ 물결로 엮서면 ⅓ 절취 / きかは便郵						
濟-KSC-068	(朝鮮風俗)市場 (イ27) (조선풍속) 시장	Market.	흑백	京城日ノ出發 行		×	육일승전기 문양+ 濟-KSC-037 참조
	POST CARDE / 우표란: 京城日ノ出發 行 마크 / 절취선 ⅓ / きかは便郵						

濟-KSC-069	(朝鮮風俗)婦人の洗濯 (イ155) (조선풍속) 부인들의 빨래	Washing of Women	흑백	京城日ノ出發 行			
	POST CARDE / 우표란: 京城日ノ出發 마크 / 절취선 1/3 / きかは便郵						육일승전기 문양+ (위 68과 동일) 濟-KSC-037 참조
濟-KSC-070	(朝鮮風俗)鮮女ノ海草取り NO33 (조선풍속) 鮮女の 해초채취	TO COLLECT SEA-WEE DS	흑백	釜山吳竹堂書 店發行			※鮮女 표기 주의
	UNION POSTALE UNIVERSELLE CARTE POSTALE 우표란 無 / 절취선 1/2 / きかは便郵						
濟-KSC-071	(朝鮮風俗)牛の糲摺 (조선풍속) 소의 곡식 빻기	Momisuri of Corea	다색채	吳竹堂發行			우표란 SHOSEIDO TOKYO JAPAN 벼이삭? 마크
	POST CARD 우표란: SHOSEIDO TOKYO JAPAN / 절취선 1/2 / きかは便郵						
濟-KSC-072	(朝鮮風俗)鮮女の米搗 (조선풍속) 조선여인의 쌀 빻기	Customs of Korean	다색채				※鮮女 표현 주의
	CARTE POSTALE UNION POSTALE UNIVERSELLE 우표란 無 / 절취선 1/2 / きかは便郵						
濟-KSC-073	시장		흑백	大正寫眞工芸 所			1930년 발행 《日本地理風俗大系》 17권에 사진 동일.
	CARTE POSTALE / 우표란: Taisho Hato Brand / MADE IN WAKAYAMA로 엮서면 절취선 1/2 / きかは便郵						

2) 日文研 ○○-○○(아마모토 순스케 컬렉션) - 총 4장							
日文研 28-100	漢拏山上ノ奇巖（五百將軍） 한라산의 기암(오백장군)	ROCK OF THE MT KANRA.	흑백		1913년 이전	○	
	UNION POSTALE UNIVERSELLE CARTE POSTALE 1 錢5厘 국화우표 / 절취선 ⅓ / きかは便郵 T2(1913)년○월○일자 濟州 소인 日本 兵庫縣たつの市에						
日文研 30-15	朝鮮八景・濟州島漢拏山 (조선팔경・제주도 한라산)		흑백	京城 東洋オフセッ ト印刷株式會 社		○	濟-KSC-054 동일엽서. 사용됨
	朝鮮八景繪葉書 글자로 엮서면 ½ 절취 / 우표란: 파손됨. 별표 추정/ きがは便郵，島根縣으로 발송한 엮서						
日文研 33-77	濟州島城内の全景 + 三姓穴 + 鮎の名所外都川 제주도 성내전경+삼성혈+은어명소 외도천		二色刷 り	濟州島廳發行		○	濟州島廳發行 -濟州島名所繪はがき 시리즈 중 1.
	Post Card ㉞ 미사용 우표란 : 오리 얹은 마크 S5(1930)년1월28일자 兵庫縣으로						
日文研 31-131	濟州城内の景（其一） (제주성내의 광경 1)	VIEW OF SAISHU KOREA	흑백	濟州伴支店		×	우표란 SHOSEIDO TOKYO JAPAN 벼이삭? 마크
	CARTE POSTALE 우표란: SHOSEIDO TOKYO JAPAN / 절취선 ⅓ / きかは便郵						

3) 濟-HGC-○○(제주기록문화연구소 연구자료) - 총 5장

濟-HGC-001	濟州土人の工作石地像 (제주토인의 공작석지상)	ISIJIZO FAMOUSE PLACES AT SAISHU	흑백		1914년 이전	○	(스캔자료) 원본: 東京이타바시구 향토자료관 소장
	Uniön Postal Universal CARTE POSTALE 국화엽서 1전 5리 / 절취선 ⅓ / きかは便郵 T3(1914)년1월28일자 濟州 소인 東京本郷東京大學에 발신: 鳥居龍藏(도리이 류조) 수신: 石田收藏(이시다슈조)						
濟-HGC-002	濟州島海女休息ノ景(19) (제주도해녀 휴식 풍경)		흑백	伴支店發行		○	濟-KSC-019 참조
	Uniön Postal Universal CARTE POSTALE 다자와 우표 1전5리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T11(1922)년8월○일자 静岡縣浜名郡에						
濟-HGC-003	濟州島西歸浦港ノ景 (14) (제주도 서귀포항 풍경)		흑백	"		○	濟-KSC-014 참조
	Uniön Postal Universal CARTE POSTALE 다자와 우표 1전5리 / 절취선 ½ / きかは便郵 元州 소인 ○○년 8월 11일자 京城 蛤洞 (현 서울 서대문구 합동)에						
濟-HGC-004	濟州島山中盛板峯下藥水(No 18)		흑백	"		×	위 고성일 컬렉션 伴支店發行 시리즈(濟-KSC-001~濟-KSC-020)과 다른 시리즈 엽서. 현재 이 시리즈 전모는 미발굴 ※ 《제주사진첩》(1929년, 제주도삼림조합 발행)에 수록됨
	Uniön Postal Universal CARTE POSTALE 우표란 無(별표 스탬프 찍힘) / 절취선 ⅓ / きかは便郵						
濟-HGC-005	(朝鮮名所) 全羅南道濟州島濟州城内全景(全南2)	THE----	흑백	京城日ノ出發 行 추정			(스캔자료) 濟-KSC-037 참조 원본: ?
	앞면 없음						

참 고 문 헌

[총서류]

- 고정중(1930) 《濟州島便覽》 瀛州書館.
제주도청(1937) 《제주도세요람》 朝鮮總督府.
제주도청(1939) 《제주도세요람》 朝鮮總督府.
한국우정100년사편찬위원회(1984) 《韓國郵政100年史》 체신부.
제주도(1996) 《제주100년》 (도승격 50주년 기념사진집), 제주도청.
김찬흡(2000) 《20세기 제주인명사전》 도서출판 조원사.

[단행본]

- 권혁희(2005)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부산근대역사관(2007) 《근대, 관광을 시작하다》 부산근대역사관.
부산근대역사관(2009)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민속원.
김수현·정창현(2011) 《제국의 억압과 저항의 사회사》 민속원.
독립기념관(2012) 《엽서로 보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한국인의 삶》.
우라카와 가즈야(2017)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조선》 (전7권), 민속원.

[논문]

- 전성곤(2007) <“토속”의 발견 논리와 타자인식: 鳥居龍藏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33집.
이경민(2011) <한국 근대 사진사 연구:사진제도의 형성과 전개>(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찬식(2013) <제주근대이야기(1)>, 《교육제주》 157호, 2013년 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김국화(2015) <일제강점기 관제사진엽서를 통해 본 표상의 정치학:1906년부터 1933년까지 발행된 관제사진엽서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영자(2018) <칠성통문화>, 《일도1동 역사문화지》 제주문화원(근간).

[전시도록]

인천향토사학회(1997년 4월) <개화기 인천 사진엽서전>, 사진엽서를 활용한 최초의 전시회 도록.

성균관대학교 박물관(2012), 《유리원판에 비친 한국의 문화유산: 식민지 조선의 고적조사》.

[일본어 총서류 및 단행본]

朝鮮總督府(1910~) 《朝鮮總督府官報》(1910.8.29.~1945.8.30까지 5567호까지 발행)

黒柳勳(1905) 《繪葉書の栞》 文祿堂.

青柳鋼太郎 (1905) 《朝鮮の寶庫 濟州島案内》 東京: 隆文館.

大野仁夫(1912) 《南鮮寶窟 濟州嶋》 大阪: 福田堂印刷社.

善生永助(1929) 《生活狀態調査》(2), 朝鮮總督府.

朝鮮遞信協會編(1935) 《朝鮮總督府發行の記念郵便繪葉書》 朝鮮遞信協會(경성부 광화문通 체신국 내).

朝日新聞社刊(1975~1976) 《鳥居龍藏 全集》(全12券).

小森孝之編著(1978) 《繪葉書 明治・大正・昭和》 國書刊行會 (본문에서 <小森 해설>(1978)로 표기)

鳥居龍藏(초판: 2003, 개정증보판: 2006) 《ある老學徒の手記》 朝日新聞社刊.

※참조: 田中克彦解説-岩波文庫(2013年) 판도 있음.

朴美貞・長谷川怜(編(2016) 《日本帝國の表象: 生成・記憶・繼承》 えにし書房.

高成一(2016) 《日本統治下の繪葉書でたどる濟州島》 日本繪葉書會 關西研究シリーズ・2.

[일본어 논문]

仲摩照久編輯(1930) 「濟州島」, 《日本地理風俗大系》第17卷、新光社.

西川宏(1970)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朝鮮考古學の形成」,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7集、綠蔭書房

浦川和也(2001) 「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所藏の朝鮮半島寫眞繪葉書について」, 《研究紀要》第7集, 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

浦川和也(2004) 「日本の繪はがき文化の諸相—繪はがきの資料的価値と日本人の意識」, 《研究紀要》第10集, 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

太田宏一(2010) 「大正寫眞工芸所について」, 《研究紀要》第24号, 和歌山市立博物館.

水野直樹(2010) 「日本人は朝鮮の繪はがきに何を見たか」, 《‘寫眞繪はがき’の中の朝鮮民俗》(京都高麗美術館特別展示展).

生田誠(2010) 「20世紀、繪葉書の夜明けから落日まで」, 《‘寫眞繪はがき’の中の朝鮮民俗》(京都高麗美術館特別展示展).

朴美貞(2013) 「植民地朝鮮の表象:植民地の學習と教育のテキストとしての非文字資料」,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4집.

[일본어 통신]

鳥居龍藏(1914) 「鳥居龍藏氏よりの通信」, 《人類學雜誌》 29卷 7号, 東京人類學會.

[일본 전시도록]

高麗美術館(2010) 《‘寫眞繪はがき’の中の朝鮮民俗》 特別展示展 도록.

板橋區立郷土資料館(2011) 《明治・大正期人類學・考古學者云：學者たちの繪葉書・繪手紙の世界》 平成23年 秋季企畫展.

Abstract

Study on Postcards under the theme of Modern Jeju Island, Korea - Focusing on the <KO Sung-il Collection> -

Ranging over Jeju Island-themed postcards(사진엽서 in Korean / 繪葉書 *ehagaki* in Japanese) issued and circula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is study focuses on the history of Jeju Island's <visual information documentation> produced in the context of Japanese imperialism culture industry.

From the Late Period of Joseon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hoto postcards were issued in large volume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Jeju Island. During this period, these postcards were produced and circulated as a means of colonial rule while showing off the colonial modernity.

Nevertheless, no one can deny the fact that these postcards contain the undeniable worth in terms of cultural resources such as physical evidence or place of past human activity(site, structure, landscape, lifestyle, object or natural feature of significance to a group of people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it).

In terms of contents, these postcards took a vital role as imperialist propaganda tools and means to promote local Korean life and culture on a nationwide scale. Meanwhile, tourism postcards as well as postcards in response to the individual aesthetic taste(color, design, composition, symbol etc.) also emerged for the Japanese. At the same time these postcards played a significant role as communication media(information transmission).

This study was conducted in cooperation with Mr. KO Sung-il, postcards collector, Korean resident in Japan. He has about 5,000 postcards

with the theme of modern Korea. About 70 postcards of them are modern Jeju-themed ones.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s and focuses on them, and aims to lay the foundation for modern Jeju postcards research.

To be specific, this study covers the following subjects.

- Creating a database(DB) of modern Jeju-themed postcards among so called <KO Sung-il Collection> by identifying each postcard's contents, publisher, issuance period, printing type etc.
- Examining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modern postal system as well as the birth of postcards in Modern Age of Korea.
- Identifying and investigating postcard publishers(6 places) which had been handling Jeju-themed postcards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 Introducing the representative Japanese figures who visited and recorded Modern Jeju, using postcards as communication media. For example, Ryuzo Torii(1870~1953), Japanese anthropologist, ethnologist, archaeologist and folklorist visited Jeju island in 1914 and sent a Jeju-themed postcard to his colleague in Tokyo University, informing his field trip progress in Jeju island.
- Introducing various use cases of modern(colonized) Korea-themed postcards in the current cultural context in Korea. Based on this, this investigation seeks to find ways to contribute to Jeju studies and its community.
- Ultimately, this study raises issues on practice of managing cultural resources, such as physical evidence or place of past human activity in modern Jeju, suggesting ways of collecting, reinterpreting, preserving and valuating them.

Key Words : Modern Jeju(근대제주), <KO Sung-il Collection>, Japanese colonial period, Modern Jeju-themed postcards, propaganda, tourism, media, visual information documentation, culture industry, cultural resources.

연구진

연구책임 고영자 (사)제주기록문화연구소-하간 소장
공동연구 김은희 제주국제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제주학연구 52

근대 제주 사진엽서 자료 연구 - 재일제주인 고성일氏 사진엽서 컬렉션을 중심으로

발행인 || 김 동 전
발행일 || 2018년 11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www.jst.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8-89-6010-635-2 93380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